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삼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3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12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선거제도

종교단체의 모범적인 선거제도는 없는가. 종교단체의 선거는 포교이자 곧 수행이다. 세속적 행태와는 달리 종교적 의식으로 승화시켜 세간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를 촉발시켰던 총무원장 선거제도만 해도 지나치게 세속의 선거법을 모방함으로써 승가집단 스스로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비난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일부 다른 불교 종단들의 선거제도는 조계종과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 태고종은 종회개시일 입후보하고 그 자리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간결한 방식으로, 천태종은 종회에서 후보를 단일화해 추대하는 방식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진각종 역시 구성된 종의회에서 통리원장을 선출하는 등 세 종단 모두 선거가 아닌 후보단일화를 통한 추대 형식을 띠고 있다. 이들 종단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식이 '전통과 종풍'에 기초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세속 선거법 모방 "이대로는 안된다"

가톨릭의 경우는 전국 15개 교구장이 각 교구별 주교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역시 추대형식이다보니 선거전 같은 것은 없다. 사제평의회나 교구참사회와 같은 의견수렴 및 조정 기구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같은 형태는 전통적인 것이며, 가톨릭인들은 전통을 존중한다.

모 종단의 관계자는 "조계종의 경우 25개 교구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받아 원로회의에서 결정해 추천하고 종정스님이 이를 추인하는 방식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전통과 풍토에 맞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재에 응했던 모든 스님과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제도보다는 '자질론'을 거론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욕심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러나 부족한 제도라도 협력하고 존중한다면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마땅히 고쳐져야 하지만 그보다는 스님들의 '유(有)소유' 정신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종단-단체 '이미지 통일화'

조계종·진각종·종단협 올내 문장개발 마무리

조계종과 진각종, 종단협의회가 종단과 단체를 상징하는 문장(紋章)개발 작업을 벌인다. 문장개발 작업은 종단 및 단체의 이미지를 통일해 대외 인식도를 높이고 내부적으로 업무의 확일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에 대한 통제와 사설사암의 등록 활성화등 부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작업을 시작한 조계종은 최근 의뢰업체인 안그래픽스(대표 안상수)로부터 1차 시안을 받아 검토했다. 조계종은 이 1차 시안이 종단 이미지를 담아내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증과 여론 수렴을 통해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계종은 문장사업과 관련 1천4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조계종의 문장 작업은 올 하반기 쯤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계종은 지난해 종단 사태로 인해 실추된 종단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문장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종단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각종은 1년내에 문장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실용화 할 계획이다. 밀교종단의 특성을 이미지화 해 종단 홍보 효과와 청소년층 포교 효과 극대화 등이 진각종 문장개발의 주요 과제다. 이미 4곳의 업체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는 진각종은 3월말까지 업체를 선정, 곧바로 문장 디자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진각종은 8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올해 안에 문장을 개발해 사용할 계획. 종단협은 소속 종단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통해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고 소속 종단과 미등록 종단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문장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 탁발행위 규제와 무분별한 종단 설립을 막는데도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단협은 올 상반기 중으로 업체선정과 시안검토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소속 종단 대표들과 이사회등의 검증을 거쳐 문장을 확정 사용할 방침이다.

조계종과 진각종, 종단협등의 문장이 실용화 될 경우 다른 종단과 교계 각 단체들도 문장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장은 의장등록 절차를 거칠 경우 법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어 종단이나 단체의 이미지 관리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 도필선 기자 (ytlim@buddhapia.com)

"금강산 유적 최대한 보호"

정부·현대, 조계종에 답신

조계종이 2월 4일 금강산 개발관련 자연 및 문화유산 훼손을 우려, 통일부와 현대측에 공문을 보낸데 대한 답신이 전달됐다.

통일부는 조계종에 보낸 2월 8일자 공문을 통해 "정부는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종합개발 계획이 금강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계종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의 (주)아산(대표이사 김윤규)도 22일자로 조계종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밝혔다. 현대측의 공문은 △금강산 내에서의 개발 최대한 자제 △최소한의 관광시설(스키장 곤도 등)은 금강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 △금강산 지역내의 어떠한 유적이나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신계사를 포함한 불교 문화재 및 유적의 보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금강산 개발과정을 지켜보며 문화유적과 문화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임연태 기자

거조암 나한상 유럽 나들이 "한국인의 혼을 찾아서"

은해사 거조암(주지 혜해) 영산전(국보 14호)에 봉안된 나한님 다섯분이 유럽나들이에 올랐다. 오는 6월부터 내년8월까지 독일 에센과 뮌헨, 스위스 뮈리히등에서 열리는 "한국인의 혼을 찾아서" 유럽순회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떠나기 앞서 2월25일 거조암에서 봉행된 이운환송법회. 꽃가마에 실린 나한님은 '제대성중'이 독송되는 가운데 영산전을 한바퀴 돌아 절아래 행사장에 모셔졌다.

꽃가마 하나당 백명씩 모두 5백명이 동원됐으나 직접 가마를 멘 불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고 이구동성. 한 스님은 "나한님이 점심공양을 너무 많이 드셨나 보다"며 웃기도.

벽안의 유럽인들이 천진도안들을 친견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대소하거나 코딱한 모습에서 탈속의 여유와 해탈을 느낄수 있을까.

나한님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머무르다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포함한 국보15점 보물27점등 총3백24점의 우리 문화재와 함께 오는 4월 출국했다가 내년 가을 귀국한다.

이윤호 기자



◇거조암 나한님들이 유럽 나들이를 위해 영상전을 떠나고 있다.

해인골프장 또 법정공방

공원공단 공기 연장 불허…가야개발 행정소송 제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인골프장의 공사기간 연장을 불허한데 대해 가야개발(대표 김선국)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인골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해인골프장 사업주인 가야개발은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담당 강완구 부장판사)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피고로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재신청 불허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도에도 착공 시한인 4월 7일 이전에 연기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은 98년 12월 15일 해인골프장 사업자인 가야개발이 제출한 사업시행기간 연장신청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착수기한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불허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사업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해인골프장은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가야개발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인골프장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교육부장은 "지난 해 8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국립공원 구역내에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부각시켜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조계사 민족자주정신 성지" 11면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 마을. 이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 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들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동체대비의 무량 복전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3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 체 국 011809-0332390
- 농 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축원해드립니다.

북한 어린이 돕기 123일 白頭大幹 장정

123일간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 꽃 모라지 심고
山에 버려진 쓰레기 치우며



출발 / 1999년 3월 25일(목요일) 오전 10시 지리산 천왕봉
마침 / 1999년 7월 25일(일요일) 백두산 천지
참조 / 참가자 개인 등산 장비 지참

북한 어린이 돕기 : 우체국 / 013045-0102143(계좌번호) · 예금주 / 심시일반(千匙一飯)

산에 오라지 심는 사람들 : 02)823-0014 · 011-442-3838

사 설

여성불자 조직화

조계종 포교원이 발표한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계획 가운데 특별히 주목을 끄는 분야는 '여성불자의 조직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성불자들의 재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양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여성불자 조직화 사업은 지금까지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 여성불교 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어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종단이 여성불자들의 조직화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종단은 그 동안 중요한 포교정책의 하나로 항상 여성불자의 조직화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여성불자들을 묶어 기독교의 YWCA와 같은 단체를 만들고 여성불자들의 대사회활동의 창구로 만들자는 계획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같은 계획은 늘 불발로 끝나거나 용두사미가 되기 예사였다. 나중에는 이 사업이 아예 항목에서조차 삭제돼 잊혀지고 말았다.

여성불교운동이 이처럼 의욕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장기적 계획이 아니라 단기적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하려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모든 사업은 성격에 따라 중장기 또는 단기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성불자 조직화 사업은 성격상 장기사업에 해당한다. 여성불자들의 신심이 비록 대단하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조직화사업을 성공시키자면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종단은 '여성국' 하나 없이 이 일을 하려고 했다. 자연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은 꿈도 꾸지 못하고 몇몇 단체는 사조직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 한가지는 여성불자의 의식고양 사업의 부재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성불자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수적인 면에서 여성불자들은 남성불자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한국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지반이 여성불자다.

그러나 이같은 위치가 여성불교의 수준과 비례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도리어 '치마불교' '기복불교'라는 냉소적 표현이 말해주듯 우리 나라 여성불자들의 종교활동은 사회적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여성불자의 조직화는 우선 의식고양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의식고양 없이 구호만 외쳐서는 한두 번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인 운동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여기에 여성불교의 한계가 있었다.

고무적인 일은 최근 들어 전국사찰에서 실시하는 '불교교양대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교리공부를 통해 바른 종교관을 확립하고 보살도 실천에 나서려는 '새로운 치마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여성불자들의 평균연령도 낮아지고 학력수준도 높아져서 과거와 같은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성향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조짐의 하나다. 이러한 조건은 이제야말로 여성불자를 조직화하고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할 시기임을 말해준다.

올해 포교원이 '여성불자의 조직화'를 사업목표로 설정한 것 자체가 변화된 환경과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조금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들은 의욕과 끈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조계종 한국불교 알리기 나섰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인이 산사에 묵으며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영문 소식지가 발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외국인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를 체험하여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문화에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외국인 사찰체험 프로그램 실시
영문소식지 '로터스 랜턴' 4월 창간

포교원은 서울근교 사찰을 체험도량으로 정해 1박2일 또는 3박4일의 일정으로 참선 예불 발우공양 수계 등으로 구성된 체험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구체적인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체험도량으로 화성 용주사와 서울 봉은사 화계사, 남양주 봉선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부는 한국불교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영문 소식지를 발간하기로 하고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양장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22일 논의했다.

사회부는 이 소식지의 이름은 불교의 깨달음과 전법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국불교 고유의 전통을 담은 '연등' 즉, '로터스 랜턴(Lotus Lantern)'으로 정하고 4월초쯤 창간호를 펴낼 계획이다.

창간호에는 20쪽 분량에 연등축제 안내, 한국사찰소개-불국사, 에세이 등이 실린다. 계간으로 발행될 이 소식지는 5백부를 발행해 외국 정부의 주요 기관과 민간단체, 대학도서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월탄 · 현호스님 등 8명 멸빈 결의
조계종 초심호계원

조계종 호계원은 2월 23일 오후1시 제17차 초심호계원 심리를 열고 월탄, 현호, 원학, 법일, 현소, 성문, 현근, 정우스님 등 8명의 스님에 대해 멸빈(치탈도첩)을 결의했다. 초심호계원위원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리에는 제소된 8명의 스님 전원이 불참했다.

호계원은 이날 결의와 관련 "정화개혁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8명의 스님들은 이미 98년 11월 30일 승려대회 등에서 중징계가 결의된바 있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초심호계원은 3월3일 정영스님 등 12명에 대한 심리를 하며 9일에는 현수스님등 27명에 대한 심리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해종행위자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2일부터 12일 사이에 50명의 스님들에 대한 등원공고를 냈다.

해종특위 위원장 범종스님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헌종법에 의거해 분명하고 원칙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계원이 적법하게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새 포교사 6~7일 품수식

조계종 신규포교사 오리엔테이션 및 품수식이 6~7일 대전 한국전력연수원에서 열린다.

지난 해 11월 실시된 포교사고시 합격자 2백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품수식은 포교사 제도와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 어린이 청소년 군·경찰 복지 사찰·신행단체에서 활동하는 선배 포교사의 포교담과 사례발표 등의 오리엔테이션과 품수식으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2월24일 회장 이 취임식을 갖고 종교인간 화합과 사회활동 강화를 다짐했다.

KCRP 회장에 고산스님 취임

한국종교인평화화회의(KCRP) 제5대 회장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취임식과 3대와 4대 회장을 역임한 김몽은신부(가톨릭 문화연구원원장) 이임식이2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진각종 성초통리원장, 강원룡 원로목사, 김광욱천도교교령, 조정근원불교교정원장, 김성곤국민회의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고산스님은 취임사에서 "하늘의 동근달이 일체의 물에 두루 비추이듯 종교인평화회의는 만인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종교간의 화합과 사회봉사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몽은 신부는 이임사를 통해 "여러 종교 대표자들이 그간 잘 도와주셔서 큰 무리없이 두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쌍계사승가대 인가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3일 회의를 열고 쌍계사 승가대학을 정식 인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은 현재 학인 19명, 교수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가인가 승가대학으로 운영돼 왔다.

이은자 기자

승가대-동국대 학위수여식 가져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현성)와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98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가졌다.

중앙승가대는 2월 24일 오후 2시 정진관에서 84명의 문학사를 배출했다. 졸업식에서 사회복지학과 현공스님이 총무원장상을 받았다. 이번 학위수여는 지난해 고등교육법개정으로 처음 이뤄졌다.

동국대도 25일 오전 10시30분 중강당에서 졸업식을 갖고 학사 3,648명, 석사 439명, 박사 5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6일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은자 기자

통도사 행정 제재키로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조계종 총무원이 제15교구본사 통도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 10일 종무회의에서 통도사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를 취하기로 하고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에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총무원의 제재조치는 △총무부:주지임명, 사찰등록보류, 승적증명 확인원 재적증명원 등 민원보류 △기획실:통도사 특별감사 실시 △재무부:재산관련 승인 보류 △문화부:전통사찰 추천 보류 △사회부:국제관련 증명발급보류 △호법부:등원공고 △교육원:교육이수 증명 발급 보류, 행자교육 제한, 교육기관 지원금 보류, 교육기관 인가취소, 장학금 혜택제한, 상설행자교육장(취운암) 취소 △포교원:신도등록 보류 등이다. 임연태 기자

쌍계사 주지에
도리천스님 선출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에 도리천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쌍계사는 2월 26일 오후1시 산중총회를 열고 고산스님의 후임에 도리천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도리천스님은 67년 범어사강원 대교과를 마친 이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조계사 교무 혜림 정사 주지 쌍계사 총무 석왕사 주지 등을 역임 했으며 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부문이 당선돼 문단활동을 시작했다. 아동문예 작가상(88)과 법무부 장관표창(88)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도원스님 임명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1일 불학연구소장에 도원스님〈사진〉을 임명했다.

도원스님은 76년 용주사에서 정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80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불국사 강원과 일본 대정대학을 졸업했다.

또 교육원은 연수국장에 정행스님을 임명했다. 정행스님은 84년과 87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하고 중앙승가대, 원광대,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은자 기자

도쿄 종교인 평화모임 무산
4월 북경개최 검토

3월 13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종교인 평화모임이 북한측의 시기와 장소 변경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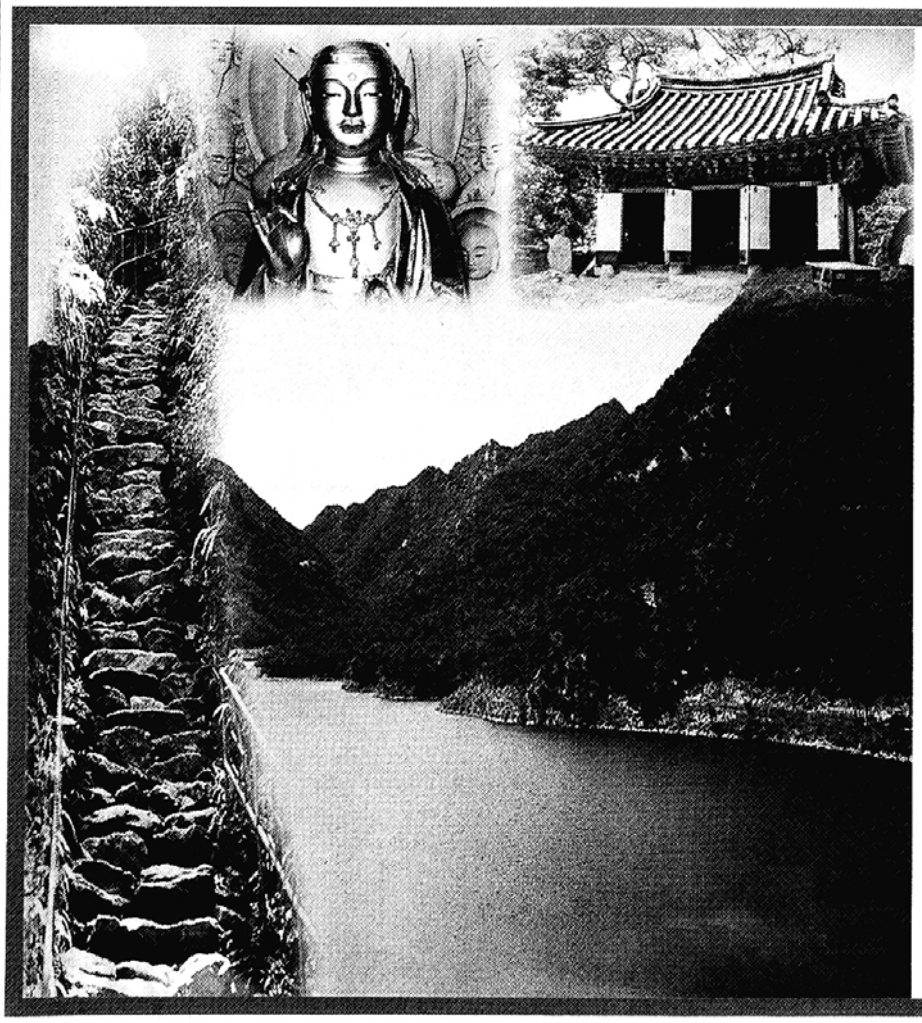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최근 "북한측이 도쿄모임에 대해 일정과 장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4월경 중국 북경에서 모임을 가질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의 일정과 장소 변경 요구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오! 한국불교 좋아요"



정월대보름방생 기도성지 도 솔 암

- 한 곳에서 방생법회 · 보궁참배 · 본사참배 및 삼사순례를!! -

선운사 도솔암은 이 땅의 지장신앙의 根本도량입니다. 1423년 동안 백제문화를 지켜온 도솔암에서는 방생 및 성지순례를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천·인·지(天·人·地) 삼장(三藏) 지장보살님을 공개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기묘년 새해를 천혜의 방생지 도솔제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천장 지장 보살님(도솔암), 인장 지장보살님(선운사), 지지 지장보살님(참당선원)으로 삼사참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삼사 순례코스 ♣

· 도솔암 → 참당선원 → 선운사(본사)
· 도솔암 → 선 운 사 → 내소사(부안)
· 도솔암 → 선 운 사 → 개암사(부안)
· 도솔암 → 선 운 사 → 내장사(정읍)
· 도솔암 → 선 운 사 → 고인돌(고창)

■ 아래와 같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무료공양 : 2,000여명분 가능
· 매 표 소 : 무료입장
· 주 차 장 : 도솔암 입구 대형버스 50대 수용
· 도 솔 제 : 천혜의 도솔산속 청정연못 개방
· 방 생 물 : 물고기, 미꾸라지, 자라, 꿩 준비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禪雲寺 도 솔 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전화 (0677) 561-0075, 564-2861
도 솔 암 대중일동 합장

무인년 조계종 동안거 방장 – 조실스님 해제법어 요약

조 심었는데 콩 나왔도다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

해제대중들이여

"부처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라."
"그대들의 심장 간장 등 오장을 다 뒤바꾸는구나."
"부처없는 곳엔 급히 지나가라."
"기러기는 지나갔는데 소리만 남는구나."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이야기 하지말라."
"문 앞을 나설 때 벌써 틀렸느니라."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조를 심었는데 콩이 나왔도다."
"버들 꽃을 꺾으라. 버들꽃을 꺾으라."
"해가 지고 또 밤이 되는줄 몰랐다고 한들 어찌 사람이 젊어질 수야 있겠는가?"

절단삼관과자희(截斷三關過者稀)라
임봉수해진전위(臨鋒誰解振全威)리오
양화적처하인견(楊花摘處何人見)고
풍송만천사설비(風送漫天似雪飛)로다.

계율은 철길 같은 것이니…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오늘 해제법문은 우리나라 공부인의 삼종병(三種病)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계율(戒律)을 방편으로 생각하고 철저(徹底)히 지키려는 노력이 없는 것이다. 계율은 기차(汽車)가 굴러가는데 철길 같은 것이니, 탈선하면 전복되어 갈 수 없고, 승객도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둘째, 일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운력(運役)에 참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일이 공부에 방해된다면 어째서 백장화상이 '一日不作一日不食'을 주장하셨는가.

세째, 결제때만 공부를 하고 해제철에는 공부를 놔 버리고 방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가 습관화되며 사수(死水)에 잠긴 용처럼 활기가 없으니, 어느 때를 기다려 불조현관(佛祖玄關)을 타파(打破)할 것인가.

하시(何時)에 출두유기(出頭有期)리요
영탁백의천천만(寧度白衣千千萬)이나
불탁공문반개승(不度公門半介僧)이로다.

매어 준것이 푸는 것이요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

(주장자를 한번치고) 이 소식은 매어 준것이 푸는 것이요, 푸는것이 매는 것입니다. 산이 물이되고 물이 산이된다는 소식입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色卽是空)이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장자를 한번치고) 이 소식은 매는 것도 없고 푸는 것도 없다는 소식입니다. 산도 공(空)하고 물도 공(空)하여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경계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제법공상(諸法空相)이라 얻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어 열반에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장자를 한번치고) 이 소식은 매는 것은 매는 것이요 푸는 것은 푸는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산은 그대로 산, 물은 그대로 물인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고득아뇩다라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주장자를 한번치고) "악(一喝)"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는데 오늘은 정월대보름날 해제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청산자부동(靑山自不動)이요, 백운자거재(白雲自去來)라
운산본공리(雲山本空裏)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이라.

사견에 떨어지지 말지어다



동화사 금당선원조실
진제스님

상단하여 주장자를 들어보이시고, 인간세상사가 꿈속에 말을 타고 산천을 구경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분명하지 못이로다. 모든 중생들아 이일을 밝힐지로다 일상생활중에 정진하여 "어떤 것이 이 일입니까"여쭈니 문득 일할을 하시다.

요즘 참선 정진하는 이들이 밝은 선지식의 지도를 받지 않고 공부하다가 개똥같은 소견이나 가지고 알았다 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눈먼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으니 가히 슬프고 슬프도다.

이 부처님의 견성법은 명안종사의 지도하에서 바르게 정진해서 바른 진리의 정안이 열린후에 탁마를 해서 인가를 받아교화하는 것이 근본이니 사견에 떨어지지 말지어다.

모든 부처님과 도인이 전한 진리의 일구는 향상일구(向上一句)이다. 이 향상일구를 알아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의 전신자채처(轉身自在處)를 아느니라.

어떤 것이 향상의 일구입니까 물으니 만리에 뻐꾸더기가 즐비함이로다.

'동국발전이 불교발전' 사명감으로

동국대 14대 총장에 재임 송석구 총장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가 불교중심의 한국학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2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고불식을 갖고 제14대 총장에 취임한 송석구 총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을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재임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1995년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승총장은 교육개혁 단행과 행정개선, 교육환경 시설 확대 등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연속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에서 1위를 차지, 교육부로부터 1백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오는 9월 착공되는 불교종합병원 건립사업은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이룩한 것으로 송총장이 그동안 다른 언떤 일보다도 심혈을 쏟아온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 "지난 임기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중심으로 '동국발전이 불교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대학을 건설하겠다"는 송총장은 "무엇보다 교세확장과 함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2003년 5월까지 불교종합병원을 완공하고 일산 제3캠퍼스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연구지원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불교 중심의 한국학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행정업무와 관련, 효율화·신속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팀제운영, 연봉제 실시 등 행정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총장은 "종립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교수·학생·직원과 인화(人和)단결하여 '세계속의 동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눈길끄는 조계종 교육원-포교원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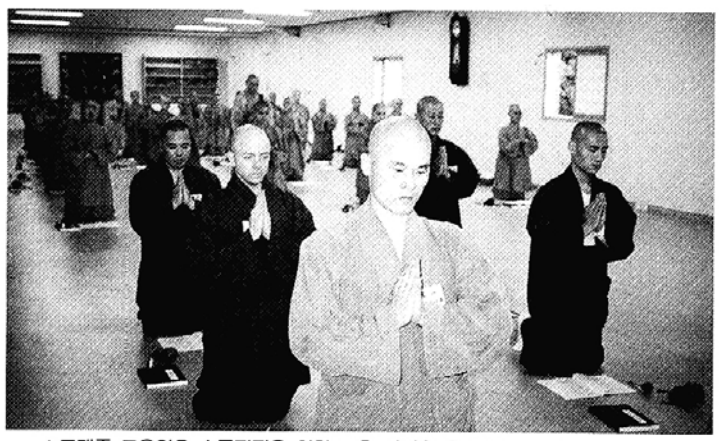
교육원 종풍선양 순회강연…교육법 개정
포교원 여성불자 조직·직장법회 활성화

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승풍진작을 위한 교육 개선을 목표로 2월 24일 발표한 올해 사업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종지종풍선양을 위한 순회특강이다.

지난 해의 종단사태를 교훈삼아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도들의 애종심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초교육부분에서는 출가정신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출가발원문 작성을 행자교육원 수료시에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발원문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기본교육부분에서는 교육기관 평가 프로그램 마련, 학사관리 강화, 기본교육 미이수자 학업 이수 독려 및 사미니승가대학 증설을 추진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승풍진작을 위한 교육 개선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사진은 지난해 길상사에서 열린 직할교구 행자교육.

연수회 입재시 포살법회를 의무화하고, 성보문화재 보존과 문화전승을 위한 연수도 마련하는 등 재교육부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며, 교학연구 연찬회 구성 등을 통해 전문특수교육분야의 학인간 교류기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원은 승풍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불교에서 승직제도의 역사와 현실' 주제의 학술회의를 5월경 실시하고, 사미(니) 및 구족계 수계식 등 교육과 수계업무의 일관성 강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10월경 〈선원총람〉 간행과 함께 선풍진작 학술회의도 준비할 예정이며, 역대선원 방함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선원결제 대중명부 취합관리 작업도 전개한다.

교육원은 이같은 사업의 전개와 더불어 교육관련 종법령 제개정도 추진해, 승가교육체계 정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포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22일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여성불자의 조직화, 외국인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 실시, 사찰수련회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이날 사업계획 발표에서 "각계각층의 포교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포교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외 내실화와 함께 불자 조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교원은 법원화 이후 신도들의 신행체계화 및 행정과 조직체계의 정착에 역량을 쏟아왔고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문화 특성화된 포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인'을 양성해 세상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포교원은 이같은 원칙 아래 △사찰수련회 활성화 및 대중화 △신행단체 종단등록 활성화 △여성불자 조직화 △포교전문인력 양성 △포교사단 강화 △외국인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 △신도시 포교대법회 △인터넷포교 활성화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한국불교체험프로그램은 4월부터 실시한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여성불자 조직화는 신행활동 인구의 70~80%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환경운동 등 대사회적인 활동으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현재 여성불교운동연합(회장 김묘주)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 등 10여개 단체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교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여성불자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교원은 또 각 사찰의 여성불자들이 30~40대 고학력 주부들로의 중심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불자들의 사회활동을 통해 신행의 기복성을 극복하고 불교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이은자 기자
(swjung@buddhapia.com)

해동 제일 지장기도보궁

귄 지장기도 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귄 철야기도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교통편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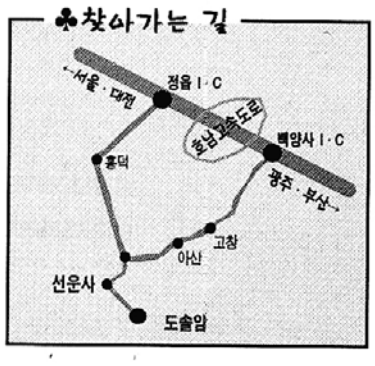
■ 승용차
경부선 → 호남선 → 정읍IC
남해고속·88고속 → 호남고속 → 백양사IC

■ 버스편
서울·경기·인천 → 정읍·고창 → 선운사행 버스이용
부산·경남 → 광주터미널 → 선운사행버스이용

■ 열차편
서울역 → 정읍역 하차 → 선운사행 버스이용
※선운사 매표소 입구에서 도솔암 소형버스 매일 수시운행

※선운사의 동백꽃은 3월 하순경부터 만개합니다.

♣찾아가는 길



선운사와 도솔암의 백제문화유산



▲ 천왕문과 만세루 (전북 유형문화재 제53호)



▲ 선운사 대웅전 (보물 제290호)



▲ 진흥굴 眞興窟 (진흥왕이 출가 수행한 진흥굴)



◀ 벽파을사비 (전북 유형문화재 제122호)



▲ 잠당선원 대웅전(보물 제803호)



▲ 마애불상 磨崖佛像 (보물 제1200호 동양최대의 마애불, 높이 17m)



◇좌로부터 진관, 원택, 광우, 대행스님, 김광삼 사장.

비구니회관 공사계약 체결

추진위원장 대행스님…3월착공 2001년 완공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2월 13일 회장 광우스님, 부회장 진관스님 등 비구니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수서 비구니회관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비구니회관 공사가 3월부터 본격화된다.

비구니회는 공사를 맡은 아리종합건축 김기상 대표이사와 공사대금 80억원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구니회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을 회관건립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본사 김광삼 사장 이 배석했다.

비구니회관은 2001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동화사 증회의원 유광스님



2월 19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現 동화사 총무국장 유광스님이 무투표 당선. 스님은 81년 통도사 강원 대교과, 83년 금산사 화엄학림을 졸업했다.



◇지홍스님이 몽골 바가반디 대통령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한·몽 불교교류 의견 나눠

지홍스님 몽골 바가반디 대통령 방문

지홍 낙산사 주지는 지난 1월말 대통령 접견실에서 몽골 바가반디 대통령을 만나 한·몽 불교교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학장, 윤태일YTN기조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대담에서 바가반디대통령은 "몽골 정부는 불교신앙의 자유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배려하고 있고, 사찰복원에 집중적인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스님은 "세계 지역협력체 결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지역도 불교를 토대로한 한몽교류를 통해 협력체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홍스님은 지난1월26일부터 30일까지 정부초청으로 몽골을 방문, 울란바토르시장이 포교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 백만여평의 부지를 답사하고 울란바토르 시내의 전통사찰 2곳을 참배했다. 위영란 기자

교차로

논산훈련소 군장병에 수계



현성 중앙승가대 총장은 2월 21일 논산훈련소에서 군장병 3천 5백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봉행하고, 떡과 음료수, 염주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천시에 이웃돕기 쌀 전달



법등 김천사암연합회장(조계종중앙종회의장)은 2월 1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20kg쌀 71포대를 김천시에 전달했다.

안양교도소에 떡국 공양



동광 도선사 주지는 2월 16일 설날을 맞아 안양교도소 전 재소자에게 떡국공양을 실시했다.

15~19일 불자수계교육



성열 강남포교원장은 15일부터 19일까지 계를 받지 못한 불자들을 위한 수계교육을 실시하고, 25일 수계식을 갖는다.

53사단 신병교육대서 설법



수진 해인사승가대학장은 2월 21일 부산 해운대 5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 8백여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법했다.

인제군에 장학금 1천만원



마근 백담사 주지는 2월 22일 강원도 인제군에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노인회와 한국산악구조대 용대지대에 각 3백만원, 2백만원의 위로금을 보시했다.

다도·사군자등 강좌 개설



선혜 불교전통문화원장은 다도강좌와 사군자, 문인화강좌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다. 15일 개강한다. (02)732-2068

금강산관광 선상서 토론



법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은 2월 20일~23일 민족화합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금강산 관광 선상토론회에 참석, '민족화해의 방향과 민간통일운동 과제'에 대해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본동 종합복지관장에

적산 봉정암 총무는 최근 서울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현재 동국대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무애재단 장학금 전달



서돈각 무애재단 이사장은 20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3대 한국박물관협회장에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은 최근 마사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한국박물관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암문화장학금 8백만원 전달



손현수 서암문화장학회 이사장(전국산악인연합회장)은 1일 경북 안동 홍은사에서 제6기 서암문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안동지역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10명에게 총8백50만원을 지급했다.

저시력인 모임 초대회장에

미영순 현대중국연구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창립된 '전국저시력인연대' 모임의 초대 회장에 선임돼 후원회원모집에 나서고 있다.(02)593-3396

'그낭 갈수 없는 길' 출판회

이종판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장은 4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구도기 〈그낭갈 수 없는 길〉 출판기념법회를 연다.

"감독관리 철저로 완벽시공"

비구니회관 짓는 아리건축 김기상 사장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불사에 동참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구니회관 공사는 국내외의 비구니스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전국비구니회관 건축 불사를 맡은 아리종합건축 대표이사 김기상씨는 2월 13일 전국비구니회와 공사 계약을 마치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모아 완벽한 건물을 짓는데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마음 선원 각 지방 지원과 5월 준공을 앞둔 안양 법당 공사도 맡았다. 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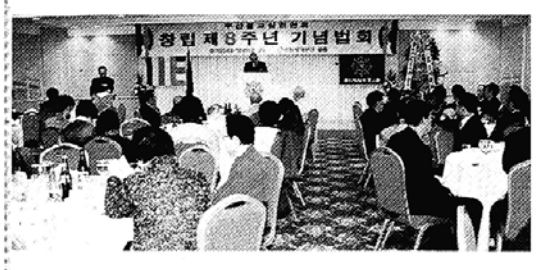
코미디언 남보원 42년만에 학사모



코미디언 남보원씨(본명 김덕용)가 42년만에 동국대학에서 명예졸업증서를 받고 "동국대 남버원"을 외쳤다. 남씨는 2월 24일 오전 10시 송석구 총장으로부터 졸업증서를 받고 "올 여름 디너쇼를 개최해 수익금 모두를 모교 100주년 사업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약속도 했다. 남씨는 57년에 동국대 정치학과에 입학했었다. 그는 학생과 연예인이란 두 길을 걷고 있었는데 2학년 1학기 등록을 못해 미등록에 의한 자동 제적이 됐었다.

남씨는 "연예인으로서의 넘치는 '끼'로 인해 학업은 포기했지만 내가 택한 길에 대해 후회는 없었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고 졸업소감을 밝혔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부산 불교실업인회 창립 8돌 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서춘석)는 2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제9차 정기총회 및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미룡사 주지 정각스님을 비롯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서춘석회장은 "사회와 불교발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일하는 불자들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삼전복지관 결식아동에 장학금

서울 삼전종합복지관(관장 각우스님)은 2월 11일 삼전초등학교에서 의뢰한 겨울학교 아동 14명에게 98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복지관은 또 2월 16일 부설 길상회망의 집 입소자 20명을 위해 공동 차례상을 마련했으며, 탑골공원에서 노인 5백여명에게 자비의 빵을 공양했다.

실직자·외국인 노동자 새해맞이

Focus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설조스님)은 2월14일 서울 미아6동 자비의집에서 실직노숙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새해맞이 한마당 법회를 개최했다. 아침을여는집 및 보현의집 노숙자 각 15명과 네팔 외국인노동자 30명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영가천도재와 놀이마당으로 진행되어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불제자의 정을 나누었다. 특히 불교식 영가천도재와 네팔식 설맞이 행사 로싸르(LHO SAAR)가 어우러져 힘든 삶을 이겨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불국토를 서원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99학년도(남·여) 제9기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보육교사 2급자격 취득

모집인원 및 대상

과정	구분	모집인원	수입시간	대 상
양성 과정	주간반	100명	9:00~1:00	· 고졸이상의 학력인정자 · 99학년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학력인정자
	야간반	100명	6:00~10:00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에서 직접 접수

제출서류 : 1)반명함판 사진 - 5매
2)주민등록등본(초본) -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4)입학원서 작성(본교육원에서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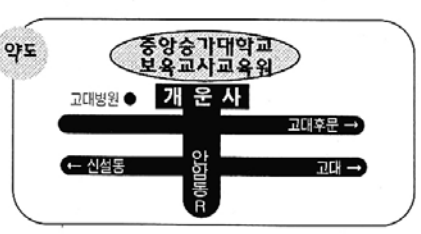
등록금 : 1년 총교육비 975,000원 (교재비 포함)

등록처 : 한국 외환은행(287-22-00455-0) 예금주 : 보육교사 교육원

문 의 :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교학과
02)929-5004, 926-908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특전 : 1. 무시험검정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보건복지부 장관)
2. 관인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교사로 근무 및 직접 운영(40인미만)
3. 방과후 아동지도반 운영 및 지도교사로 취업
4.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특별전형 (수료후 경력자에 한함)
5. 재학중 아르바이트 알선과 수료후 취업알선
6. 해외 유아교육기관 탐방(희망자)
7. 클래식피아노 정규과목으로 책임지도
8. 전산교육원 실비 수강가능(본 대학교 전산실)
9. 본대학교 도서관 무료이용
10. 지하철 이용시 "할인혜택"



교통편
1. 버스 (개운사 입구) - 38번(적색) 803번
2. 버스 (안암로타리) -7, 19, 28, 30, 34, 38, 154-1, 161
좌석 - 2, 28, 30-1, 154, 167
3.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 돈암역
- 마을버스이용(고대병원과 개운사쪽)
4.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 마을버스 이용 (개운사입구 하차)

교육원부설 부루나 어린이집 운영 (등록하신 분 「할인혜택」)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제3호

중앙승가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우136-075) 전화 : 02)929-5004, 926-9083

인술로 포교하는 '자비손'

가족아카데미아 네팔서 환자 1천6백여명 진료
불자약사보리회 소쩍새마을 주민에 무료투약

각 단체들이 새해들어 의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가족아카데미아는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불자보리약사회는 소쩍새마을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청주 금강의료봉사회와 부산불자간호사회는 3월에 지역노인 의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족아카데미아(회장 이근후,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는 2월 1일부터 11일까지 24명의 의료진이 참가 부처는 나라인 네팔 카투만두와 차우라리 보카라 일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가족아카데미아는 1일부터 11일까지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카투만두에서 간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한 가족아카데미아는 북쪽으로 40㎞지점에 있는 차우라리에서도 환자 1천6백여명을 진료했다. 특히 보카라에 있는 티벳 난민촌을 찾아 난민들에게 비타민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

내년에도 국내에 홍보를 강화, 비타민회원의 성금을 늘려 봉사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팔정부는 9일 샹리라호텔에서 가족이카데미 의료봉사단 초청만찬회를 열었다. 이날 만찬회에는 상원의장과 보사부장관등 정부고위인사들이 다수 참석,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숙희)는 2월 21일 소쩍새마을을 방문, 무료투약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불자약사보리회는 소쩍새마을 인근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약품을 전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배타적 의식을 일소하는데 노력했다.

불자보리약사회는 정기적으로 소쩍새마을을 방문하여 무료투약행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청주 금강의료봉사회(회장 우정순)와 부산불자간호사회(회장 황보선, 부산대 간호학과 교수)도 각각 3월경 부산과 청주에서 지역노인불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봉축기념 종교화합 케이크 제작
불교제과인회 전국 순회 세미나 전시

종교화합을 위한 초파일기념 제과기술세미나가 열린다.

대한불교제과인회(회장 정판수)는 4일 서울 서대문구 리치먼드기술학원에서 제과기술세미나를 갖는다. 특히 종교화합을 위해 반야심경 무상게 호신불 십이지신상과 기독교의 주기도문 십자가케이크 만들기 시연및 전시회도 갖을 예정이다.

정판수회장은 "99년 초파일을 맞아 종교화합을 모색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며 "이번 세미나 및 전시회는 제과업계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발전을 통해 제과업계를 포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과기술세미나에는 대한불교제과인회 정판수회장을 비롯한 장명환, 김세종회원이 강사로 나선다. 불교제과인회는 서울세미나및 전시회에 이어 초파일이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331) 212-8976.

김원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한통반야회 9돌 법회

한국통신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4일 창립 9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지도법사 화암스님(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이 법문한다. 또 반야회는 총회를 갖고 신임임원단도 선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교사모임 수계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회장 김진택)은 2월 28일 나주 문성암에서 다정스님을 전계사로 2월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또 수계법회후 총회도 열려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세무사불자회장 정은선씨

한국세무사불자회는 12일 봉은사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법회에서는 경은스님(봉은사 포교국장)이 새해에는 복덕을 짓는 해가 될 것을 기원하는 덕담형식의 법문을 했다. 한편 세무사불자회는 총회를 갖고 회장에 정은선세무사를 선출했다.

교사불자련 사무실 마련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종로구 청진동 수송빌딩 4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교사불자연합회는 3월초 현판식을 갖는다.

불기협 10년사 편찬키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22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총회(사진)를 갖고 올해 예산 5천8백51만원을 확정했다. 불기협은 99년 사업으로 △불기협10년사 편찬 △불교언론인체육대회 개최 △기자연수회 △기자상 시상식 등의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올깨끼 스님 세상공부 하면…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⑧

〈전 호에 이어〉

옛날의 '올깨끼' 스님들은 어떻게 발심했는지 현재의 나로서는 보지 못했으니 알 수 없지만 요즈음 '올깨끼' 스님들은 대부분 수도물을 먹은 뒤에야 비로소 발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기야 20대가 발심하는 확률이 제일 많으니 연령탓이기도 하겠지만.

올깨끼 스님들이 바라보는 사회는 절대로 지옥일 수 없다. 관광객들의 표정에서는 이지러진 것을 볼 수 없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느껴보지 못하고 다만 경전이나 연상의 스님들의 입을 통해서 인생고해니 사바세계니 업보중생이니 하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반, 극락, 피안, 적멸을 동경하고 거기에 미치기(及) 위해 견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 느껴보기 위해서다.

요즈음 승려교육기관은 불교전문강원이 몇몇 본사에 있긴 있지만 내전인 불경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이 외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도회지로 침투한다.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내에 불교대학이 있고 마산대학과 이리 원광대학이 있어서 다소 외전을 익힐 수 있는 문화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승가위주의 대학이 아니고 일반 학생 위주의 대학이고 보니 여기 드나드는 스님들은 수적·물적 열세 때문인지 아니면 신심이 퇴락해서인지 속화의 길을 걷기 십중팔구다. 도시의 무슨 학원이다, 강습소다 하는 곳에서도 올깨끼 스님들이 때로는 승복, 때로는 속복을 걸친 채 드나들면서 외전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몸부림친다.

도시에 진출하여 면학하는 '올깨끼' 스님들의 학자금이 또한 문제다. 은사스님이나 본사의 보조를 받아 기숙사나 등록사찰에서 기거하면서 통학하는 스님들도 있지만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영리위주의 사설 불당에서 '부전살이(불당을 맡아서 받드는 일)'나 해주고 몇 준 얻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외전이나 도시를 외면하고 올깨끼 스님답게 산간에서 청정하게 수도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스님들을 국방부가 그대로 보아 넘겨주지 않는다.

스물 한살만 되면 틀림없이 입대영장이 나온다. 어쩔수 없이 승복을 벗고 군복을 입으면 군대에서는 고문관 취급을 받는다. 좋은 의미에서도 받고 불쌍한 의미에서도 받는다. 그 복잡다단하고 음담패설이 상용어로 되어 있는 사병생활을 삼년간 마치고 다시 절간을 찾아 돌아오는 올깨끼 스님들은 군진(軍塵)을 털고 위대한 발심과 함께 선방으로 돌아온다. 몇 할이나 돌아올까.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올깨끼 스님들은 속진(俗塵)을 씻고 위대한 발심과 함께 돌아온다. 얼마나 돌아올까.

강원을 마치고 책장을 던지고 선방을 향해 돌아오는 올깨기 스님들은 얼마나 될까.

모든 대답은 "극히 소수지요"다.

불교의 윤회설 때문일까. 경제학의 수요공급의 법칙 때문일까. 공기의 대류작용의 원리때문일까. 남방 소승불교를 닮아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해지고 있는 세간과 출세간의 교류현상이다.

우리 상원사 대중은 '올깨끼'의 바로미터를 15세로 잡는다면 3할은 '올깨끼'고 7할은 '늦깨끼'다. 바로미터를 20세로 잡는다면 7할은 '올깨끼'고 3할은 '늦깨끼'가 된다. 20대 전후에서 발심하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 증명된다.

꼬마 스님들이 오후부터 앙숙지간이 되었다. 발단은 걸레때문이다.

작은 꼬마스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생활에 질서를 유지시킨다. 그러므로 무척 개인적이어서 우직하고 내향성이고 정결하다. 절밥을 일찍부터 먹은 명실상부한 '올깨끼'의 생활태도다.

반면에 큰 꼬마스님은 이유가 많고 눈치가 비상하다. '적당히'를 요령있게 요리하면서 약육강식에 철저하고 이해타산이 예리하다. 모든 것에 사시(斜視)적이어서 절밥을 4년이나 먹었지만 아직도 보육원출신의 명분에 투철한 편이다.

작은 꼬마스님이 조실스님방 청소 전용으로 사용하는 걸레는 언제나 깨끗하고 제자리에 놓여있다. 방을 닦고 깨끗이 빨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꼬마스님은 자기 책임인 주지실의 전용걸레가 없다. 주지스님은 출타가 잦아 가끔 청소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방 저방 걸레를 갖다 쓰고서는 제자리에 두지 않고 기분대로 팽개쳐 버린다. 여러차례 주의를 받고도 고치지 못한 습성이다.

오늘도 걸레 때문에 입승스님으로 부터 호된 책망을 들었다. 작은 꼬마스님의 고자질로 간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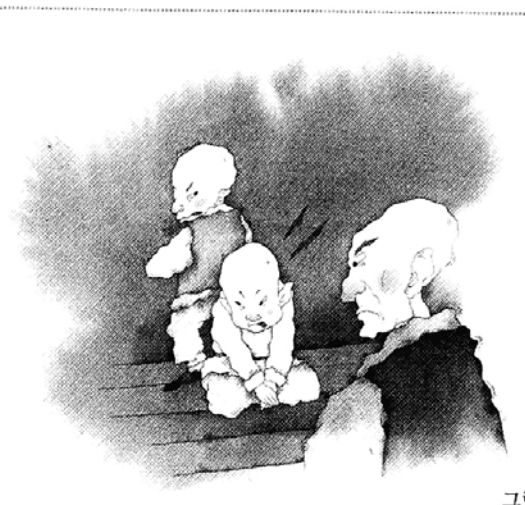
작은 꼬마스님방 전용 걸레를 쓰고 제자리에 갖다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승스님의 훈계에서 풀려나온 큰 꼬마스님의 눈초리가 작은 꼬마스님의 눈초리와 마주쳤다. 이때부터 앙숙지간을 알리는 저기압이 무섭게 깔리기 시작했다.

오후의 뒷방에서다. 저기압은 끝내 먹장구름을 불러온다. 먹장구름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 드디어 번개가 치며 천둥이 울린다. 그리곤 비가 쏟아지게 마련이다.

뒷방에서 이제 막 방선(放禪)한 스님들이 편한 자세로 각자가 아랫도리를 달래면서 잡담이 한창이다. 큰 꼬마스님이 복수의 집념이 가득한 표정으로 누워있는데 작은 꼬마스님이 선반에 있는 자기 바랑을 내리다가 큰 꼬마스님의 발을 건드렸다. 큰 꼬마스님에게는 요행이요, 작은 꼬마스님에게는 불행이었다. 시비가 시작되고 '늦깨끼' '올깨끼'로 수작하다가 욕설을 주고 받고 마주 앉아 서로 꼬집고 발길질이 오가더니 드디어 큰 꼬마스님의 일격이 작은 꼬마스님의 면상에 가해지자 작은 꼬마스님이 저돌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박치기로 응수했다. 큰 코와 작은 코에서 선지피가 흘러 옷과 방바닥에 갖가지 수를 놓았다. 대중들에 의해 혈전은 곧 제지되고 꼬마스님들은 입승스님 앞에 끓어앉아 훈화조의 경책을 들은 다음에 불전의 백팔참회로 들어갔다.

9시에 취침을 알리는 인경소리가 끝나자 탁자 밑 꼬마스님들의 잠자리에서는 오손도손한 얘기소리가 들렸다. 그들 사이는 틀림없이 여름 날씨 같은 것이어서 날이 바뀌기도 전에 벌써 다정지간(多情之間)이 되어 있었다.



그림·이준석

출가 발심 확률 20대 가장 높아
대학 군대 마치고 소수만 선방 복귀

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한국불교선학연구원·무불선원 회원 모집

본원은 직관적 깨우침을 이끄는 참선과 지성적 사유로서 선의 이해를 돕는 선학강좌를 병행하여 선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도모하는 도심속 연구원이자 수행 도량입니다. 2월 4일부터 실시한 예비강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바, 3월 본 강좌 개설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제1기 무불선원 회원 모집 안내

◈ 모집대상 : 참선수행과 선학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분
◈ 모집기간 : 1999. 3. 4.까지 (사정이 있는 분 중간 신청 가능)
◈ 강 의 : 매주 수, 목, 금요일 오후 2~4시, 저녁 7~9시
매주 목, 금요일 요가강좌 오후 4~6시,
◈ 강의내용 및 강사 : 시간표 참조
◈ 구비서류 : 회원신청서 1통/ 증명사진 2매
◈ 문의 및 접수 : **한국불교 선학연구원·무불선원**
전화 : 02)541-0002~3, 팩스 : 02)541-0004

성지순례 및 철야 정진수행

본 선원은 회원 및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시고 경허·만공선사의 법향이 그윽한 덕숭산 수덕사 등 성지순례 및 철야 정진수행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일요일
(3월-3월 27일 오후 3시 덕숭산 수덕사 순례)
◈ 장 소 : 덕숭산 수덕사 및 경허·만공선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 준비물 : 세면도구/필기구/간편복장

강의시간표

3月

주	시간	날짜	수	일자	목	일자	금
1	2~4			3/4	선과 생활/이은윤	3/5	선의 세계/법장스님
	7~9				특강/법장스님		선의 변증법/이은윤
2	2~4	3/10	불교기초교리	3/11	경허선사와 근세불교/성타스님	3/12	선문학(1)/이원섭
	7~9		불교기초교리		선어록①/월운 큰스님		선학입문(1)/법산스님
3	2~4	3/17	불교기초교리	3/18	참 선 실 수	3/19	선과 사문학/이종찬
	7~9		불교기초교리		한국근대불교사의 이해/최병헌		고승법어/혜암큰스님
4	2~4	3/24	불교기초교리	3/25	선어록(1)/김무득	3/26	선문학(2)/이원섭
	7~9		불교기초교리		만공선사의생애와사상/거부스님		선학입문(2)/법산스님

4月

주	날짜	수	날짜	목	날짜	금
1	3/29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1	선과 자연/선과경제	4/2	참선실수/선화
2	4/7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8	경허선사와근세불교/선어록②	4/9	선문학(3)/선학입문(3)
3	4/14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15	참선실수/고승법어	4/16	정보화 시대와 선의 효용성/ 참선실수
4	4/21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22	선어록(②/ 만공선사의 생애와사상	4/23	선문학(4)/ 선학입문(4)
5	4/28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29	선어록③/참선실수	4/30	참선실수/선학입문(5)

5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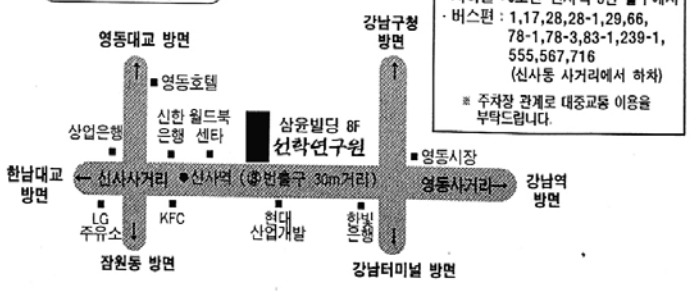
주	날짜	수	날짜	목	날짜	금
1	5/5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5/6	선의 인생관/참선실수	5/7	참선실수/선의 불성론
2	5/12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5/13	경허선사와 근세불교/선어록③	5/14	선문학(5)/선학입문(6)
3	5/19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5/20	참선실수/선과 정신의학	5/21	선의 법률관과 세간법/고승법어
4	5/26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5/27	선어록(4)/만공선사의생애와 사상	5/28	선문학(6)/법장스님특강

▶강사진 (4月~5月) : 유필화(성대교수), 이동환(충북대교수), 정기웅(경찰대교수), 김경현(한의사), 안승준(요가)및 기타 강사진 3月과 동일

고승법어(큰스님 초청법회) 일정

◈ 3월 19일 - **혜암큰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 4월 15일 - **서암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 5월 21일 - **성수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약도 및 교통편



· 지하철 : 3호선 신사역 3번 출구에서
· 버스편 : 1,17,28,28-1,29,66, 78-1,78-3,83-1,239-1, 555,567,716 (신사동 사거리에서 하차)
※ 주차장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
■전화 : 02)541-0002~3, 팩스 02)541-0004

이렇게 들었다

인권

"온갖 존재 실체없고 평등할뿐"

미결수에 대해 법정에서 사복을 입히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사회 각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반인권적 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난 해부터 권한 범위와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돼온 국민인권위원회도 인사와 예산권을 법무부로부터 완전독립시킨 특수독립법인으로 설치키로 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인권은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개인의 존엄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최소한의 윤리다. 부처님께서도 일찌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에 대해서도 그 존엄성을 말씀하셨다. 경전에 나타난 인간존중사상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개장(蓋障)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자쇄호경〉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온갖 사물은 특질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실체가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생기는 일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본래 청정한 까닭에 평등하다. 희론(戱論)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유와 무가 불이(不二)인 까닭에 평등하다. 〈화엄경〉

▨온갖 중생도 다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온갖 사물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성자들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미륵에 이르러도 진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마경〉

▨세존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며, 금수·벌레·천인(賤人)중 살려 주기를 바라는 자를 보았을 때에는 언제나 가엾이 여겨 뜻대로 먹어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 〈아난사사경〉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大悲)가 없다고 말하지 말할지언정 우바리를 천하다고는 말하지 말라. 그가 비록 천민 계급에서 나오기는 했어도 호법(護法)·지율(持律)에는 제1인자이니, 그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종묘과(三種妙果)를 얻게 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천히 여길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하느니라. 〈대방편불보은경〉

▨갖가지 중생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삼세에 평등하며 시방에 통달함을 '다함이 없는 행'이라고 하나니라. 가지가지 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제일의 바라밀다인 것을 '존중행'이라고 하나니라. 〈능엄경〉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을 관찰하고 법으로써 우두머리로 삼고 바른 법을 보호하라.

또 마땅히 법으로써 모든 예쁜 여자를 가르치고 또 마땅히 법으로써 보호해 살피라. 그리고 모든 왕자 대신 모든 벗 모든 관리 및 모든 백성 사문 바라문을 가르쳐 경계하라. 밑으로는 금수에 이르기까지 다 마땅히 보호해 보살펴라. 〈전륜성왕수행경〉

불교식 관혼상제 보급을



서진
서울 서원사 주지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화장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자 중 불교신자의 화장선호도가 가장 낮다는 발표가 있었다.

불교의 전통적인 장묘 형태는 유골을 모아 탑을 짓거나 부도를 만드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육신은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가 업에 의한 연(緣)으로써 이루어진 것일 뿐 본래의 자아는 아니기에 인연이 다하면 다시 지수화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에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째서 불교인은 가르침에도 없는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것일까? 제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불교신도의 관혼상제에 대한 교단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다.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는 불교의 본래 목적보다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얻는 데 부처님의 가피력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무척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은 불교 본연의 임무를 잊고 일반인들의 기복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불교는 불교신자들의 관혼상제에 너무 무관심하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함은 그 종교가 가치관단의 기준이 되며, 의식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신도들에 대한 생활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혼상제 의식을 타종교의 의식에 맞추어 행하였기에 신앙이 대를 잇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의 한국불교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제 언

신행단체 사회 변화 읽어야



이한득
대구불교산악회 사무국장

불교신행단체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힘든 세파를 이겨왔다. 8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재가불자 신행운동은 많은 불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사회변화속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기 위해서는 각 단체마다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고 사홍서원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이 제시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실제로 불교단체들이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불교계의 올곧은 주장을 해온 것은 달라진 점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불교신행단체들도 자체적인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제도권의 불합리한 점까지 지적하여 고치고 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반자로 국정현안에 참여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환경 복지 인권 윤리등 경제발전으로 밀려난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은 불교계가 그 사상적 이론적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천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불교신행단체들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실천하기 위한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변화를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불교신행단체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불교신행단체가 꼭 필요한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부터 스스로 실천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때이다.

개인의 목소리는 적지만 단체의 합성은 더 크게 멀리 퍼져나간다. 단체의 본연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목탁소리

강 지 연 〈취재2부 기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2월25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시작된 뮤지컬 '장보고의 꿈' 공연장. 공연 전에 배우들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공연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장보고' 역을 맡은 임동진씨에서부터 '버들아기' 역인 우상민씨 등 출연진이 연습장소에서도 서로 집사님 장로님 등으로 부르는 독실한 개신교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 개개인의 종교가 극중 인물과 다른 것이 문제점이 될 순 없다. 그러나 배우의 종교가 극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문제다. 임동진씨는 "극 중에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하니'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부처님을 하늘로 바꿨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인들이 와서 이 노래를 듣고 찬송가 같다며 칭찬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장보고는 독실한 불자였다. 장보고가 살았던 신라의 국교도 불교요, 신라인들의 정신 역시 불법에 다름아니다. 자신이 머무르는 곳마다 법화원을 세우고 불법의 향기에 젖어 살았던 장보고가 그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에서 배우의 종교 때문에 대본이 수정되고 노래가 바뀌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대사 하나 하나에 얽매이는 배우들이 장보고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장보고의 종교

뮤지컬 장보고 공연은 이미 95년에 시작됐다. 그 때 불교계에서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 이번 국내공연에서는 불교계가 나서서 후원도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 여태까지 불교계는 너무도 문화사업에 무관심했다. 올해는 정부가 '문화관광의 진흥'을 국정지표로 삼을 정도로 문화경쟁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불교계에서도 이에 발맞춰 불교문화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준비되는 모든 불교관련 공연 전시 등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번 뮤지컬 공연처럼 타종교인의 무지로 불교의 본모습이 왜곡되어 표현돼서는 안된다. (jygang@buddhapia.com)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전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가산불교대사전' 출간 대불사 원력에 감탄

10여년의 작업 끝에 '가산불교대사림'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나왔다. 전 15권 가운데 'ㄱ' 항목 1, 2권 출간이지만 나의 일처럼 자랑스럽다.

40억원의 돈이 들었다고 한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스님의 월급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통장에 자동이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전 편찬을 기획하고 지휘한 지관스님이 크신 원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사전은 한 나라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불교사전은 몇 권 안되었으며, 그나마 일본의 것을 본따고 그것을 축약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했었다.

완간을 위해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하고 싶다. 한 사람의 발원으로 시작했지만, 한국불교 전체의 몫으로 회향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영수〈서울 상도동〉

불교TV 경영난 해소 불자의지 결집 프로 절실

불교TV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TV 살리기를 위한 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세계 최초의 불교영상매체이며, 매우 효과적인 포교매체인 불교TV를 돈이 없어 문을 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

후원회를 결성했다면 이제 불자들의 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1천원이라도 보태겠다는 것이 불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런 불자들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대장경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 97년과 지난 해 내내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모금캠페인을 벌인 것은 좋은 본보기이다.

임동일〈충남 천안〉

연수불참 자격박탈 안돼 군·경찰 휴가내기 곤란

현대불교신문 208호를 통해 조계종 포교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개선안 중 문제가 되는 것은 1년에 3~5일 정도의 연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불참할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는 부분이다.

군이나 경찰처럼 근무기강이 강조되는 조직은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뜻하지 않게 자격을 박탈당하는 포교사가 생길 수 있다. 연수 불참을 이유로 자격을 일률적으로 박탈한다면 불교계는 수많은 인재를 잃을 것이다.

김호철〈포교사, 경찰관〉

유사불교 대책 세워야 불자들 혼란 개종 잦아

요즘 미륵부처님을 설하는 종교들이 많다. 신자수가 수백만을 헤아리고 불자들의 개종까지 잦은데 불교는 왜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안타깝다. 요즘엔 스님들의 잦은 싸움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끝나간다는 그들의 말에 이끌려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한 사람을 포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잘못된 얘기를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부처님이 격하되어 표현되는 것도 훼불과 다름없다. 종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권은주〈경남 진주〉

'현대불교' 법보시에 감사 부처님 가르침 새기며 정진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매주 만나보는 즐거움을 주신 현대불교신문사와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해주시는 분들께 삼배올리는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지나온 날들이 짐이 되어 기억 속에 아른거리고, 번뇌의 집을 쌓으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체의 현상계가 풀끝의 이슬이요, 허망한 무명의 그림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보며 비로소 헛된 인연의 물거품을 지워버리고 참마음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부처님의 대자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참신하고 싱그러운 내용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원력의 보살행에 이곳의 많은 불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한〈춘천교도소 불교회장〉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30명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주간40명 ■야간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40명 ■통신20명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3월 12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법안명상 사범학교 99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21세기를 선도할 지도자그룹에 일원이 될 분을 찾습니다.
◐ 심신정화하여 사회정화 할 수 있는 지도사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함.
◐ 각행원만하여 대중을 자유, 평등, 화합의 세계로 인도할 법사를 양성코자함
◐ 전법교화하여 이웃을 돕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며 진실정토인 정화세계를 이룩할 인재를 양성코자함.

1 교과 및 모집인원 : 법안명상과 10명 (2년제 주말수업)
기공사범과 10명 (2년제 주말수업)
만국역리학과 30명 (2년제 통신 - 법사원위탁교육)
불교학과 30명 (2년제 통신 - 법사원위탁교육)
2 입학자격 : 만18세이상 학력제한 없음 (단 불교학과는 고졸이상임)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9년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 불교학과는 2월25일까지임)
4 전형방법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전형료 ₩25,000 · 원서대 ₩5,000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본 1부, 여권사진 8매, (최종학력증명서1부 불교학과만해당됨)
(단 불교학과는 통신교육이므로서 강의테이프,우송료포함) 숙식별도
6 등 록 금 : 학기당 35만원(입학 동계, 하계 소집교육시 숙식포함)
7 입학금 : 10만원
※ 특전 : 성적우수자 장학금지급,사범및표교사자격수여, 수행법계품수, 수계, 불대학원입학추천 우수졸업생은 본교사범 및 조교사로 임명함
※ 기타 : 기숙사완비 - 선착순 0명 (월15만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않음, 우편접수가능함 (당일소인유효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부로 문의 바랍니다 ■

법안명상 사범학교 정화사 혜명선원
사단법인 법사원불교대학 조치원불교
339-830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전화 : 0415)867-4000 팩스 : 0415)867-4001

사찰 유물전시관 6곳 더 건립

문화재관리국 올 업무계획 문화재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등 10대 사업

해인사 퉁도사 등 8개 사찰에 이어 범어사 도갑사 등 6개 사찰이 각각 10억여원의 국비를 받아 사찰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

문화재관리국은 범어사 도갑사 쌍계사 백양사 선암사 동화사 등에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지원에 따라 쌍계사는 총 2백9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4월경에, 백양사는 1백30평 규모의 1층건물을 올 상반기 안에 각각 기공식을 갖는다. 동화사는 총 27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가 끝나는 올 상반기 중에 건물 규모 등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최근 탱화 등 사찰문화재 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의 국가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며 좀더 많은 사찰에 유물전시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여론이다.

유물전시관 건립과 더불어 문화재관리국의 올해 계획은 △문화재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관광·산업자원화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발전 △천연기념물의 체계적 보호 관리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강화 △문화재의 국제교류 강화 및 남북교류 추진 △문화재관리 정보시스템 강화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근대(1900년대) 문화유산의 보존 정비 등이다.

이중 지난해에 시작돼 2002년까지 계속되는 백제, 신라, 가야, 중원, 다도해, 안동·영주, 강화 등 7개 문화권유적 종합 정비사업에는 백제문화권의 정림사지전시관 건립, 신라문화권의 황룡사지전시관 건립, 중원문화권의 법천사지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7개 문화권의 주요 유적들 가운데 선정된 곳에는 사적공원을 설립하고 무형문화재 공연 공예품 등도 문화상품화된다.

불교문화재의 보고 경주남산 일원은 불상 조사 및 폐탑 보수 정비가 이루어진다. 해체복원이냐 현상보수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륵사지 탑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보수방안을 결정짓는다. 백제 왕궁지와 왕흥사지도 발굴 정비된다.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보존·관리편람'을 만들고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사업 등과 연계한다.

또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화하고, 중요문화재 보존 정비 중장기 계획을 각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등 문화재 보존 방안을 강구했다. 문화재정보 DB를 구축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문화재 발굴 정보 및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존 전승 유공자에게 수여할 '문화유산상'을 제정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연구〉 〈문화재연구 30년사〉도 발간한다.

한·중 문화재 교류 협력책으로는 고구려 발해유적 조사연구 및 보호를, 한·일 간에는 문화재 전문가 교류와 문화재복원 공동 연구 등을 제시했다.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추진기구가 구성되고 해외문화재 현황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평생 문화학습제 실시 문화부 올 사업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는 2월 19일 올해 국정지표인 '문화관광의 진흥'과 '지식기반의 확충'에 맞춰 추진하는 올해 업무계획과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전국민 문화인화', '전국민 신지식인화'를 위해 신지식인 모델을 개발하고 평생 문화학습제를 실시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예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미국 디즈니월드 내에 한국문화 소개관을 개설하는 등 세계 4개 권역별로 한국문화 특성 홍보를 강화한다.

문화관련 사업에는 문화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문화산업 추진체계 정비, 문화산업 영역별 거점성장센터 마련, 문화산업진흥 재원 5천억원 2003년까지 확보 등이 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국관광객 전용 관광안내전화 개설 등 관광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개발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족문화유산을 문화·관광 상품화하고, 지역토산품 문화재 등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육성한다.

이외에도 국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직장인을 위한 야간도서관 운영 확대, 미술디자인 전문미술관 설치,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김벌래씨 4월부터 '한국의 소리전'

에밀레종소리 완벽 녹취



음향의 마술사로 통하는 김벌래씨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가 바쁜 뒤에는 언제나 하나의 작품이 나왔다. 지난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도 그는 바빴었다. 그 결과 '한국의 전통 소리전시관'에서는 에밀레종 소리를 비롯한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울려퍼졌고 관람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독실한 불자인 그는 신라 범종소리에 특히 매료돼 '에밀레종과의 조우'라는 제목의 CD를 만들어 현장에 내놓기도 했다.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소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주제로 하고 그 사이사이 범패나 대금소리 등을 혼합해 음반을 만들었는데 예상대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비의 소리, 영원의 소리 에밀레종 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김씨는 다시 머리를 싸매고 있다. 4월 1일부터 광주에서 한국의 소리 기획전을 열 계획이다. 임진왜란 이후 우리 역사를 지켜온 소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질화 된 소리, 기억하기 싫은 치욕과 분노의 소리까지 온갖 소리를 모아 민족혼을 일깨운다는 야심이다. 산사의 고즈넉한 목탁소리와 영혼을 달래는 천도의식의 소리들을 5·18의 뜨거운 항거가 분출 시키는 소리와 대비시키는 작업도 구상중이다.

영상과 역사 상징 조형물들도 동원될 퍼포먼스 형태의 소리전을 기획하는 김씨는 날씨가 좀 더 풀리면 깊은 산사에라도 파 묻혀 전시를 구상할 각오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문화재소식

월출산 도갑사 발굴 복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월출산 도갑사가 발굴 복원된다.

전남 영암군은 올해부터 2002년까지 모두 5백10억원을 들여 월출산 도갑사지구, 성기동 관광지, 구림·죽정마을 등 3개 권역을 묶어 '구림문화·역사 빌리지'를 조성한다.

도갑사지구에는 3백43억원의 예산으로 도갑사를 발굴 복원하는 한편, 도선국사 기념관 건립, 집단시설지구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도갑사는 대부분이 올해 완공되고, 사천왕두과 회랑 및 3동은 2000년 경 복원이 마무리 된다. 도선국사 기념관과 전시실은 1백여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1층 한옥건물로 올해말 완공될 예정이다.

김철호 근수는 "영암군은 훌륭한 자연문화유산을 보유한 곳"이라며 "다양화된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서다도 해권 관광거점지역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명당 송운대사 자료집' 발간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키는 등 맹렬한 활약을 펼쳤던 사명대사가 역사적 인물로 새롭게 조명된다.

밀양문화원은 〈사명당 송운대사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사명대사 관련 부분만 발췌해 국역한 이 책은 전설적 인물이 되어 있는 사명대사를 역사상 실제 인물로 환원시키고 사명대사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자료집이 나온 것. 사명대사의 행적 자료 68건, 사후자료 6건 등 94건의 기록을 수록한 자료집은 〈조선왕조실록〉의 〈선조대왕 실록〉과 〈광해군일기〉 〈영조실록〉 〈정조실록〉 등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각 자료 밑에는 조선왕조실록의 책·면수와 기재된 연월일을 밝히고 있어 이 방면의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꾸며져 있다.

'거제의 사찰을 찾아서' 나와

거제 불교의 전래와 사찰, 폐사지 현황을 알 수 있는 〈거제의 사찰을 찾아서〉가 최근 발간됐다.

거제문화원(원장 윤병수)이 펴낸 〈거제의 사찰을 찾아서〉에는 거제지역에 남아있는 30개 사찰과 13개 폐사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찰로는 가장 오래된 세진암의 옛 정취를 찾아나서는 답사로 시작되는 이 책은 거제의 불교전래이야기와 거제지역에 퍼져있는 불교종단들의 개괄적인 현황도 곁들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부록으로 답사일정과 고건축 조사방법, 고건축용어 해설, 불교용어 해설, 거제지역 사찰 현황표 등을 담고 있다.

심곡사 불좌상 강원도문화재

양구 심곡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유물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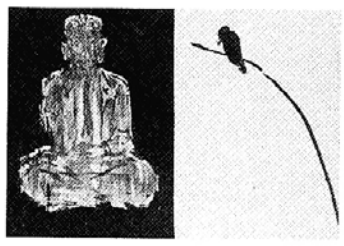
조선 숙종42년(1716년)에 조성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제작연도를 알 수 있는 복장발원문(腹藏發願文)을 동반하고 있어 우리나라 불상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 등 좌우협시 보살상은 본존과 같이 법의를 입고 아미타수인을 취하고 있어 보살들의 격이 높아진 조선후기의 불교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현대판 선화 '감상'

박병춘 '명상적 공간전' 4일까지 원서갤러리

한국화가 박병춘씨의 '명상적 공간'전이 4일까지 종로구 원서갤러리에서 열린다. 한지와 먹 파스텔 아크릴 등의 재료로 창작된 '새가 되고싶은 나(사진)' '부유하는 부처' '구도자' 등 이번 그림들은 작가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의식의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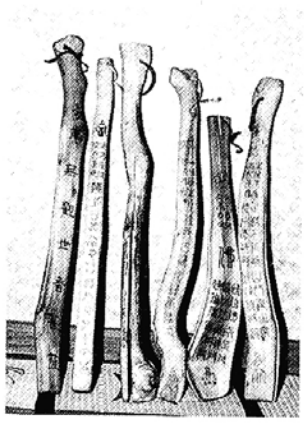


동양화의 형이상학, 먹의 정신성을 일상적 삶의 공간속으로 떠내와 만든 작가의 그림은 현대판 선화(禪畵)를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02)765-2705

화제의 전시

고목이 죽비로 탄생

정중화 '나무죽비전' 10~16일 웅전갤러리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썩어가는 나무들을 죽비로 재탄생시킨 소연 정중화씨의 나무죽비전시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웅전갤러리에서 열린다.

나무의 결을 살린 자연 그대로의 나무죽비에 여러가지 서체로 부처님말씀과 조사들의 게송을 새긴 죽비 80여점, 옷걸이 100여점, 숟과 주장자 목탁채 등 3백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나무 작품들은 전부 정씨가 직접 손으로 수작업한 것이다. (02)734-3851

신라에 범패보급 진감국사 진면목 소설로 만난다

김화수씨 '소설 진감국사'



음악은 곧 도(道)였다. 진감국사에겐 그랬다. 소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진감국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렵기도 했다. 음악은 세상을 편안하게도 하지만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는 이치를 깨달은 터였다.

우리나라에 범패를 처음으로 보급한 선승(禪僧) 진감국사(774~850). 한학자이자 서예가인 김화수씨(52)가 펴낸 〈소설 진감국사〉(경서원 刊)는 진감국사의 일대기를 소설로 꾸민 책이다. 진감국사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사실에까지 접근하려 한 작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 소설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서른한 살 청년으로 당나라에 유학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교일치 사상과 26년간의 범패(梵唄) 공부과정, 귀국 후 신라 불교계에 범패를 보급하기 위한 진감국사의 노력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불교음악을 승화시키고, 음성공양의 진선미를 살려낸 업적을 전하는데도 비중을 두었다.

'산은 성과 함께 적연하고, 골짜기는 범패소리로 울려퍼졌도다…묵묵한 자비의 음덕을 드리우고 임금들의 부름을 거부했네'라고 적고 있는 신라말 석학 최치원이 지은 쌍계사 경내에 있는 진감국사탑비(국보47호)의 비문. 이 책은 그런 진감국사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같은 부처님 말씀 100가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이 버거울 때, 막연한 불안 속에서 이정표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각나는 분, 부처님.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아함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법을 하신다. 난해하고 현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삶의 진상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책은 아함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단한 독후감을 덧붙인 것이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원뜻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홍사성 지음/ 86 배판 변형 286쪽/ 값8,000원/ 장승 펴냄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 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한국불교 기도성지'

불교에서 기도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불보살의 원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중생이라도 지옥고를 받는 자가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약사여래, 천개의 눈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펴 어루만져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갖가지 모습으로 나투어 감응하신다. 사찰에 전해오는 수많은 영험담이 이를 증명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 신문의 전문기자가 필자로 참여, 발로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에는 신비로운 기도성취 영험담, 절의 역사,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장선돈 외 지음
A5신 280쪽
값 7000원
불교시대사

불교시대사 장승 주소: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4호 전화: (02)730-2500, 725-2800 팩스: 723-5961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의 저자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국판/값 5,000원



대원미디어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우:140-190)
대표전화(02)757-6717 팩시밀리(02)775-8043

화제의 책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타스님 편역

화엄경 핵심내용 발췌한 금언집



"세상의 낙(樂)이란 결국 고통아닌 것이 없다. 탐욕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것,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일타스님(은해사 조실)이 편역한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은 〈화엄경〉의 핵심을 가려 뽑은 일종의 '화엄경 금언집'이다.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다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많아 불자들도 한번쯤은 〈화엄경〉을 접해보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엮게 됐다고 일타스님은 말한다.

모두 265개의 말씀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간중간 내용을 그림으로 옮긴 변상도를 넣어 〈화엄경〉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간결히 읽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민족사, 5천5백원〉

화제의 책

아직도 그곳엔 희망이 있더라 정운스님 지음

집착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사는 삶



언제든지 떨치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머물되 집착하지 않는 기다림으로 사는 삶.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일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결코 가난하지 않으리라. 가을은 바라보기만 해도 넉넉하듯이 말이다.

충남 보령 세원사 정운스님의 〈아직도 그곳엔 희망이 있더라〉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수행담을 곁들이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에세이집. 인연의 장, 마음의 장, 정토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장에 맞는 작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다. 희망은 찾는 사람에게만 있음을 깨우쳐 준다. 〈불광출판부, 7천원〉

화제의 책

경주 남산 신영훈 지음

불국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행문



산 같은 바위가 집에 있어야 마음이 놓였다. 산의 바위에도 사람들은 마음을 담았다. 경주 남산에는 그런 자취들이 역력하다.

불국사에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구현하였듯이 신라인들이 영산으로 조형하려 했던 곳 경주 남산.

문화재 전문위원 신영훈씨가 펴낸 〈경주 남산〉은 앉아서도 그곳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책이다. 매 쪽마다 2컷 이상의 컬러화보를 실어 이해를 도왔으며, 유적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놓았다. 직접 답사한 내용을 옮긴 책이라 현장감이 살아있다. "남산은 영원한 곳이다" 저자는 이렇게 소감을 적는다. 〈조선일보사, 4천원〉

초발심 일깨우는 죽비소리

재연스님 산문집 '입산'



반승반속의 행자
절집생활 거치며
스님이 되는 과정
때로는 눈물짓게
때로는 숙연하게

여러날 동안 깨달음, 해탈, 열반 따위의 절집 말을 곰곰 따져 봤지만 그걸 찾으러 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기도 한 것 같고… 딱부러진 말 한마디 찾아내지 못하고 절 마당에 들어섰다. "왜 중이 될려고 하는가?" 어눌하게 우물거릴 수 밖에 없었다. "시인 될라고요"

발꿈치까지 따라온 열아홉 살을 일주문 밖에 내려놓고 다시 한걸음. 가슴을 졸게 하면서도 설레게 하는 낯설고 두려운 새벽을 그렇게 열었다. 마음을 다해 마음 없는 곳에 이르기 위해 '유 행자'는 눈 위에 수북이 떨어진 머리카락 위에 한 방울 맑은 눈물을 떨구었다. 기어코 깨우치고야 말겠다는 서늘한 각오. 노스님의 '바늘처럼' 따가운 가르침, '외로움이 식량'이라는 스님들의 너스레, 떠나간 도반과 세상에 대한 그리움들….

28년전 고창 선운사로 출가했던 재연스님. 스님은 출가 당시와 막 행자생활에 들어섰던 순간들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는다. 〈입산〉(문학동네 刊)은 그런 행자시절의 기억조각들을 짜맞춘 산문집이다. 수행의 길에 들어선지 어느덧 28년, 그 세월을 뛰어넘어 돌이켜본 행자 시절이 아름다운 언어로 수놓아져 있다. 스님들은 누구나 일생중 가장 치열하게 구도를 위해 살았던 때를 '행자기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입산〉은 스승과 선배 스님들, 도반과 절집 사람들, 선방과 저잣거리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서슬 푸른 수행자의 내면을 사실적이면서도 인간미 넘치게 담아냈다.

산문집은 시간순으로 흐른다. 반승반속의 행자가 1년의 수행을 거치며 스님이 돼가는 과정이 때로는 눈물짓게, 때로는 웃음을 머금게, 때로는 숙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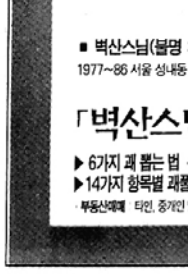
노스님이 가르쳐 준 '일미칠근'(一米七斤·쌀 한 톨에 업이 일곱 근)은 무엇을 깨우쳐 주려 한 것일까. 어느 저녁 나타나 법당에서 손가락을 불사른 후 말없이 산문을 나선 젊은 객승이 던져준 화두는 또 무엇이고, 시다림을 한 후 "중 노릇 십 년, 남의 눈물 그치게 하기는 커녕 나는 어째 걸핏하면 눈물이 나냐?"던 스님의 울부짖음은 어떤 의미인가. 새벽 3시반에 일어나 예불을 준비하고 〈자경문〉을 외고 책거리를 하며 행자는 그렇게 스님이 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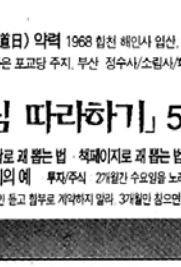
읽다보면 어느새 자신이 열아홉 그 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연과 고향의 새소리도 정겹게 들려온다. 하지만 때로는 행간 속에서 '헛것'을 좇는 사람들에게 내리치는 죽비소리도 들린다.

재연스님은 "수행이란 없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털어내고 비워내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출가 후 전국 각지 선방을 들며 공부하고 태국을 거쳐 인도 뿌나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한 것도 모두 비우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귀국후 격포 앞바다 위도의 작은 암자 내원암에서 수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도 초발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수행, 그것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는 스님의 몸짓이 〈입산〉 속에서 느껴진다. 값 6천5백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거부스님 '치문경훈' '서장' 번역 출간

수덕사 승가대학 강주 거부(巨芙)스님이 공부하는 학인들을 위해 〈치문경훈〉과 〈서장〉(수덕사 승가대학 刊)을 번역해 펴냈다. 재가자나 학계에서 번역과 주석을 달아 출간한 적은 있었으나, 스님으로서 〈치문경훈〉과 〈서장〉에 대한 번역과 주석을 같이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진호스님의 〈정선치문〉과 〈신수대장경〉 등을 저본으로 삼았다. 스님 번역본으로는 탄허스님 역본이 유일하며, 주석은 달려있지 않다.

〈치문경훈〉은 승가대학 1학년 과목으로 조사스님들의 어록이 종합돼 있으며, 〈서장〉은 강원 2학년 교과목으로 선에 관한 조사스님들의 어록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거부스님 역본은 대부분 직역으로 원문을 번역해 놓았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신수대장경〉에 나타난 오자(誤字)는 각주를 달아 설명해 놓았다. 공부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재가자들에게도 〈치문경훈〉과 〈서장〉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거부스님은 "스님의 시각에서 번역하고 각주한 것으로 공부하는 것이 학인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두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값 〈치문경훈〉 1만8천원, 〈서장〉 1만5천원.

故 고유섭씨의 저작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75년만에 일반 공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미술사와 미학을 본격적으로 수학한 학자이자 우리 미술을 처음으로 학문화한 학자로 평가받는 우현 고유섭 선생(1905~1944). 그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우리 건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집필했던 〈한국건축미술사 초고〉가 75년만에 일반에게 선보이게 됐다.

〈한국건축미술사 초고〉(대원사 刊)는 조선건축의 지위와 특징으로부터 시작해 상고·삼국·통일신라·고려·조선 등 각 시대별 건축의 특징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내용은 주로 각 시대별 건축의 특징과 의관 및내관, 재료 구조를 살피는데 주력하면서 우리 건축의 한 축을 형성해 온 불교건축, 즉 사찰과 탑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범어사 동도사 해인사 화엄사 금산사 송광사 등의 대표적인 사찰건축물은 비교적 상세히 언급돼 있다.

당시 주로 쓰던 일본 건축용어나 고어(古語), 당시의 고유명사 등을 현대어로 고치는 작업은 김동현 교수(연세대 건축공학과)가 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어체 및 한문체 문투와 용어가 적지 않아 읽기에 쉽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이 책은 지난 64년 같은 제목으로 200여부가 발간된 바 있으나, 일부 고고미술 동인들만이 나누어 가졌을 뿐 일반에게는 배포되지 않았었다. 값 1만2천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허 운	여시아문
3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4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5	산에는 꽃이피네(대)	법 정	동쪽나라
6	밀교강좌	혜 정	출판시대
7	티베트의 지혜	소갈린포체	민 음 사
8	경허-길 위의 큰 스님	한 중 광	한 길 사
9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10	있는 그대로	마하리쉬	한 문 화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벽산스님 따라하기=어려운 주역을 현대 상황에 맞게 풀어 쓴 책.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도록 쉽게 구성돼 있다. 자신의 운세를 측복한 전화위복의 사례 5가지와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31가지의 실전사례도 제시했다. 벽산스님(합천 칠성암 주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시원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상하 두 권. 〈봉성기획, 각 권 1만2천원〉



▲폐허의 붓다=참선과 도에 관한 저자 무닝앙에오의 자기체험과 관점을 드러낸 책. 깨달음과 우주적 진리, 명상 수행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가운데 선종에서는 쓰지 않는 사인선(死人禪)을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 이처럼 이 책은 불교의 보편적 원리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무묘양에오는 독특한 우주관으로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분열되는지를 비판해 왔다. 〈모색, 1만2천원〉



▲조선왕조 상식여행=차(茶)문화가 쇠퇴한 까닭은 무엇인지, 왕족의 결혼풍습, 궁녀들의 삶, 관리들의 하루 일과는 어떠했을까. 이 책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정치사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인 시각까지 곁들인 교양서다. 왕과 궁중생활, 양반과 서민생활, 정치·외교 이야기, 사회·문화 이야기 등의 주제별 접근으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엮어져 있다. 경향신문 최정흔 기자 지음. 〈이토, 1만원〉



▲우리는 가족이다=엄마, 아빠, 그리고 이 세 식구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에세이. 집안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에 대해, 또 학교에서 겪었던 나름대로의 사건들에 대해 아이가 한 자기표현을 엄마가 귀담아 들었다가 글과 그림을 만들고, 아빠는 아이의 생각과 엄마의 솜씨들을 모아 책으로 묶었다. 아이 박재민 엄마 이정혜(일러스트레이터) 아빠 박재준(남서울대 교수)의 따뜻한 가족사랑 이야기. 〈육공일 비상, 1만2천5백원〉

문의 354-6204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봉성기획

신창원,
잡힐까? 안잡힐까?

강도살인 탈옥범 신창원
현상금 5,000만원



서울지방경찰청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 벽산스님(불명 : 道日) 약력 1968 합천 해인사 입산, 1973 부산 범어사 총림 대화상 은사로 득도, 1975~76 통도사/봉선사 강원 대교과수료, 1977 동국대 역경원 원장 운허 대종사 법좌하에서 수학, 1977~86 서울 성내동 자은 포교당 주지, 부산 정수사/소림사/화엄사 주지, 現 합천 칠성암 주지, 부산 금정구 생활 선원 주지

「벽산스님 따라하기」 50쪽만 따라읽으면 누구나 쉽게 괘를 뽑을 수 있습니다.

▶6가지 괘 뽑는 법 · 쌀로 괘 뽑는 법 · 책페이지로 괘 뽑는 법 · 바둑돌로 괘 뽑는 법 · 동전으로 괘 뽑는 법 · 생활속의 숫자(아파트호수, 주민등록번호, 차표 등)로 괘 뽑는 법 · 일진, 년, 월, 시로 괘 뽑는 법
▶14가지 항목별 괘풀이의 예 투자/주식 : 2개월간 수요일을 노려라. 의학, 식품 주식이 좋다. · 시험/학문 : 다시 재정비하라. 마음만 앞서가고 있는 상태다. 코과서, 참고서, 기출문제를 연구하고 7일동안 정신수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 부동산매매 : 타인, 중개인 말만 듣고 섣부로 계약하지 말라. 3개월만 참으면 좋은 계약이 이루어진다. · 사업 : 새사업은 6개월 뒤에 시작하는게 좋다. 소자본으로 재별 부담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10,000명의 실전상담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쓴 생활주역
30분만 보면 점쟁이 뺨친다
벽산스님 따라하기

신국판 상,하권 / 값 각권 12,000원

■보조사상硏 '대혜서장연구' 발표회

화두는 '개인의 내면화된 의심' 공안은 '선문답의 객관적 판례'

"공안(公案)과 화두(話頭)는 구별돼야 한다. 화두는 '개인의 내면화된 의심'이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실천이나 공안은 선문답의 객관적 유산으로 남겨진 '관례'일 뿐이다."

'묵조선(默照禪)의 비판'으로 널리 알려진 대혜종고(大慧宗고 · 1088~1163) 선사의 간화선(看話禪)을 집중 고찰한 세미나에서 보통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공안'과 '화두'를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대혜서장(大慧書狀) 연구'를 주제로 2월25~26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스님) 제2차 선전연구 발표회에서 인경스님(동국대 강사)은 '대혜 간화선의 특질'에서 "화두는 선대(先代)의 고칙(古則)인 공안에 대한 주체적인 자기의심으로, 이 둘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경스님은 "화두는 깨달음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적 의심'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만약 공안에 의심이 없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선문답 정도로,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의심은 공안이 가지는 개념적 모순이나 논리적으로 회통할 수 없는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이 갈등구조가 개인에게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수행의 한 방식으로써 간화선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 인경스님은 "대혜가 공안과 화두라는 용어를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조주(趙州)의 무자(無字)를 '역대 조사와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눈썹을 맞대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귀로 듣기 위해' 밤낮으로 탐구해야할 문제로 여겼던 것처럼 선문답으로서의 공안과 개인의 내면 속에 의심으로 자리잡은 화두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안은 그 개수를 따지자면 천만 가지일 것이지만 이 모든 의심은 하나의 화두로 귀착된다"며 "결국 개인의 내면에 자리잡은 화두는 오직 한 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조사상연구원은 2월 25~26일 〈대혜서장〉 연구발표회를 갖고 간화선을 집중 고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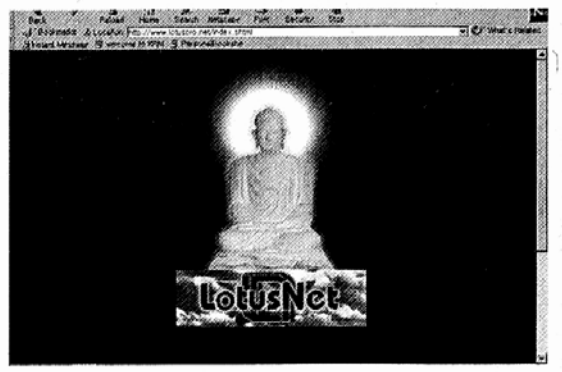
이밖에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혜의 묵조선 비판에 대하여(김호귀 · 동국대 강사) △선종사에서의 간화선의 위치(혜원스님 · 동국대 교수) △돈오점수의 수행법과 무자화두 참구법의 관계에 대한 대혜종고와 보조지눌의 견해비교(이병욱 · 고려대 강사)가 발표됐다.

김호귀씨는 "묵조를 향한 대혜의 비판은 지나치게 대혜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혜의 묵조선에 대한 '깨달음의 무시' 또는 '깨달음에 대한 착각'이라는 주관적 해석은 묵조비판에 있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묵조선과 간화선의 수행의 차이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공안에 대한 전체화(全體化) 내지는 과정화(過程化), 궁극적인 목교인 깨달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좌선에 대한 내적인 형식 등 중요한 테마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혜가 묵조를 겨냥한 비판도 그 근저에는 이같은 여러 요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간화적 방식으로 묵조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종사에 있어 간화선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찰한 혜원스님은 "대혜의 간화선은 달마의 반야주의적 대승사상에 입각한 선지(禪旨) '벽관(壁觀)'이 그 근저가 된다"고 주장했다. 혜원스님은 "대혜의 '간화선'의 주창은 '달마선'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며 "이렇게 볼 때 간화선은 선종사에 있어서 후기에 나타난 선수(禪修)였지만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 중국 선종의 본질을 한층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병욱씨는 대혜의 선사상과 지눌의 간화선 사상을 비교하며 "대혜의 무자화두참구법과 돈오점수 수행법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선불교 이해에서 보면 조화되기 어렵지만 돈오점수 수행과 간화문 수행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고찰했다. 이씨는 "대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무자화두참구법을 주로 말하고 있지만 방편으로 돈오점수 수행법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둘의 조화가 대혜의 영향을 받은 지눌 선사상의 주요 과제였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로터스넷과 티벳하우스

베트남-티벳불교문화 · 교리비교 틱냑한스님 올 일정 관련 정보 소개

베트남불교와 티벳불교 교리도 비교하고 문화도 익히며, 20세기 서양 불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틱냑한스님과 달라이 라마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이 사이트들은 바로 '로터스넷(lotusnet)'과 '티벳하우스(tibethouse)'.

로터스넷=베트남 불교계 소식과 불교도서 정보, 불교음악는 물론 베트남어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는 베트남 불서 12권의 내용을 요약해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책의 표지그림도 그래픽 정보로 보여주고 있다. 90여종의 법어 명상 기타 불교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이 수록된 테이프 11개도 공개해 이곳을 방문한 네티즌은 인터넷 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VPS(베트남어 프로그램)를 웹브라우져에 설치해 텍스트정보를 열람하면 베트남어도 공부할 수 있다.

불교전자잡지 〈로터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터스 넷'에는 '불자의 도리' '명상과수행' 등 총 17가지 주제에 대한 담마난다스님(베트남)의 글과 베트남의 전래 불교우화도 열람-로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7월 15부터 한달간 '프럼빌리지'(프랑스)의 여름수행을 주관하고 9월초순 워싱톤(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틱냑한스님의 1999년도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티벳하우스=티벳정부 산하 문화-학술기구로 인터넷 상에는 뉴욕과 런던 지부등 개설돼 △교육 △박물관 △환경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뉴욕지부 '티벳 하우스' 사이트에 개설된 '박물관' 서비스는 18 · 19세기 티벳 동부지역에서 불교 의식에 사용됐던 의구(儀具)의 전시 정보를 비롯해 티벳관련 사진 1백여점을 그래픽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뉴욕지부 '티벳하우스'는 이외에도 14대 달라이 라마의 어록(語錄)을 제공한다. 이중에는 노벨상 수상식('94), 미국기자협회('93), ICT('96)에 참여한 달라이 라마의 연설문을 비롯해 '평화행진 선언문' '(아시아 나우(Aisa Now))지와의 인터뷰' 등이 제공되며 열람 · 다운 · 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티벳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위스덤 출판사'(Wisdom Books, 美)와의 연동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도서목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출판사를 방문하면 최근 발간된 〈20세기 고승열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티벳인들의 비폭력 독립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밀라레파 기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 기금은 또 변화를 달성하는데 강력한 매개체로 상징되고 있는 전세계의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밀라레파 기금이라는 명칭은 11세기께 티벳의 성인(聖人)으로서 시인이자 음악가, 명상 수행가인 제트슨 밀라레파(Jetsun Milarepa)라는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로터스넷 http://www.lotuspro.net/index.shtml
티벳하우스 http://quietmountain.com/tibethouse/

"혜초연구 본격화 절실"

가산불교硏 '혜초스님 조명' 세미나

"신라 불교 발전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은 위대한 탐험가 '혜초'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연구는 통일신라 불교의 면모를 밝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세계정신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혜초'를 주제로 2월27일 중앙박물관에서 혜초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기조강연에 나선 지관스님은 "천 2,3백년 전에 세계를 탐험했던 혜초스님에 대해 외국의 연구성과에 기댈 뿐 본격적인 연구조차 시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왕오천축국전〉의 관독과 번역 등 혜초스님의 제 방면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초와 8세기 신라불교'에서 정병삼 교수(숙명여대)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못지 않게 주목해야할 부분이 밀교 고승으로서의 혜초의 활동"이며 "혜초는 밀교의 대가들과 나란히 주도적 활동을 펼칠 만큼 밀교 고승의 경지에 이르렀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정교수는 "신라에 귀국하지는 못하였지만 밀교경전 〈천발대교왕경(千鉢大敎王經)〉 등에 대한 연구와 수행은 8세기 신라불교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혜초의 구법행로 검토'에서 김상영교수(중앙승가대)는 최근 혜초스님의 선승(禪僧)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 "혜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중국 · 신라의 밀교사와 관련한 연구는 불교사상사의 중요한 과제에 속하므로 이에대한 본격적 연구는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관스님


◇정병삼교수


◇김상영교수


◇여성구씨

또 여성구씨(국민대)는 '입당(入唐)구법승과 입축(入竺)구법승에 대하여'에서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로 떠났던 구법승들의 구도정신은 신라인의 기상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중국과 인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으며 또한 신라불교를 한국불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기자

"불교는 相生 생태학 지향"

고영섭씨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발표

새로운 밀레니엄의 핵심적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생태' 문제에 대한 불교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자연에 대한 인간의 '몰이해'와 '무자비'(無慈悲)가 오늘의 생태위기를 불러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생태관은 연기와 자비의 관점 위에서 상생(相生)의 생태학을 지향한다"고 밝힌 논문이 발표됐다.

'생태문학과 생태철학'을 주제로 2월25일 열린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제1회 심포지엄에서 고영섭씨(동국대 강사)는 '불교의 생태관-연기와 자비의 생태학'을 통해 "불교의 생태 이해는 인간을 넘어서서 유정지물과 무정지물 전체에 걸치는 연기의 세간과 정보(正報)와 의보(依報)의 상호동일성(上卽)과 상호투영성(上入) 위에서 전개되는 상생의 생태학"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불교적 인간은 끝내 중생세간과 기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불교의 생태관은 뭇삶들의 끊임없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선을 열어둠으로써 끝내 불보살의 대비심으로 구제하는 '연기 패러다임'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학술단신

'정토학연구' 창간호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 학술논집 〈정토학 연구〉 창간호가 나왔다.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이번 창간호에는 지난해 '현대사회와 정토신행'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등이 수록됐다. (02)581-3137

'선무학술논문' 제9집

국제선무학회(회장 김철)는 〈선무학술논집〉 제9집을 최근 펴냈다. △선과 심장(박옥규 · 원광대) △선무수련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노윤구 · 영산대) 등 논문 22편이 수록됐다. (0653)850-6619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 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 · 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 · 불[火] · 흙[土] · 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9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강정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도 체중이 10 kg 이사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종합강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 내고향 99. 1. 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ml
(700ml 4병분량 ,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 선 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 (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정가 ₩1,000,000원
(약 2개월분)

◐ 구입문의 :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예 금 주: 대구여래한방원

如·來 ·治 ·身 ·自 ·然 ·食 ·品 ·會 ·社

계율 익으면 해탈 저절로 온다

경전 속의 禪 사상 8

증일아함경〈하〉

삼학구조 · 구차제정설 밝혀

세존 · 사리불 등 4선 열반 보여

글쓴이

김 형 준
〈동국대 강사〉

사선(四禪)은 그 자체가 계성취(戒成就), 혹은 심수습의 척도이자 과이지만, 아함에서는 이 사선의 단계를 거쳐 다시 삼명(三明)을 얻는다고 함으로써 계→사선→삼명, 즉 계·정·혜 삼학의 구조가 성립된다. 여기에서 삼명이란, 자신의 무수한 전생의 모습을 보는 억숙명지(憶宿命智), 유정의 생사윤회를 보는 유정생사지(有情生死智), 그리고 번뇌가 다하는 멸진지(滅盡智)를 말한다. 삼명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멸진지로, 결국 사선→삼명은 사선을 통해 지혜해탈함을 의미한다.

사선은 세존의 깨달음은 물론 입종(열반)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른바 장부 〈대반열반경〉의 사선열반설이 그것인데, 세존께서 사선(四禪)·사무색정(四無色定)·상수멸정(想受滅定)이라는 구차제정(九次第定)의 순역(順逆)을 거쳐 다시 사선(四禪)을 통해 반열반하신다는 일견 특이한 구조는 불교수행에 있어 사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면이 되고 있다. 곧, 그 형식상 원시불교 선정구조의 최종적 형식인 구차제정(九次第定)과 사선이 세존의 입종과 관련해, 그 위상을 경합하지만, 궁극에는 사선에 의해 반열반함으로써 진정한 불교의 수행정신이 무엇인지를 재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증일아함경〉에서도 이와 동일한 선정구조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대반열반경〉과는 달리 세존이 아닌 세존의 제자들이 사선에 의해 반열반하고 있다. 즉, 사의단품 (제18권)에서는, 사리불과 목건련의 사선열반설이, 대애도반열반품(제50권)에서는 대애도(케마)비구니의 사선열반설이 설해지고 있다.

먼저 사리불과 목건련의 경우를 보면, 라자그리하로 걸식을 나갔다가 집장(執杖)범지들에게 폭행을 당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목건련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사리불에게 자신은 먼저 열반에 들고자 함을 밝힌다. 이에 사리불은 목건련보다 자신이 먼저 열반에 들겠다며 세존께 허락을 구하고는 구차제정을 순역으로 들더니 마지막으로 사선에서 나와 비구들에게 그것이 바로 사자분신(獅子奮身)삼매임을 설한 뒤, 고향으로 가 그곳에서 반열반한다.

사리불의 입멸소식을 전해들은 목건련도 세존께 허락을 구하고는 라자그리하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유행하다가 중병에 걸려 열반에 드는데, 그는 맨땅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사선-사무색정-불빛삼매-물빛삼매-멸진정을 순역(順逆)으로 들기를 두 번 거듭하고는 마지막으로 사선에 의해 반열반에 든다.

이상 증일아함을 중심으로 선사상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가지 예를 통해 우리는 계(戒)와 선(禪)의 불가분한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특히 목건련과 사리불, 대애도비구니의 사선열반은 〈대반열반경〉에서 보는 세존의 사선열반과 마찬가지로 불교에 있어서 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곧, 사선에 의한 입종은 그가 곧 계의 완성자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가 해탈이라는 결과를 내는 직접인이 되고 있음을 라훌라에 얽힌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곧, 계율을 잘 지키는 라훌라가 여전히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비구들이 그 이유를 세존께 여쭈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답하신다.'

'그 계율을 완전히 갖추어/ 모든 감관을 잘 단속하면/ 그는 그 길로 차츰 나아가/ 마침내 모든 번뇌 없어지리니(제7권, 화멸품)' 곧, 수행자에게 계가 익어갈 때 해탈은 저절로 온다는 뜻이다.

나아가 팔난품 (제37권)에서는, 계와 선과 혜, 곧 삼학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아누룻다여, 마땅히 알아야만 하느니라. 만약에 비구로서 계를 성취한다면 곧 선정을 얻을 것이요, 선정을 얻으면 곧 지혜를 얻을 것이요, 지혜를 얻으면 곧 다문(多聞)을 얻을 것이요, 다문을 얻으면 곧 해탈을 얻을 것이요, 해탈을 얻으면 곧 무여열반(無與涅般)에서 멸도하리라. 이로써 계율이 가장 수승함을 밝히느니라."

곧, 원시불교에 관한한 선정이나 지혜는 모두 계를 구족할 때 저절로 생겨나는 수행의 열매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7

마음챙김 ③

모든 대상이 無我임을 알면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사물의 실체는 온곳도 간곳도 없어

만일 수행자가 유·무정물들의 '생성과 소멸'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지속되고, 사라지는가'를 고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아무데서도 오지 않고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 흔한 전형구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수행이 쌓인 후에는 이 전형구가 매우 자명해지지만, 그러한 수행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몇 마디의 말로 전달할 수는 없다.

하나의 지각은 1초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또다른 지각이 그 다음 순간에 즉시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1시 35분 25초와 28초에 각각 '촛불'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촛불로 인식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각의 작용이 새로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대상은 다른 것이다.

지속적으로 영속한다는 환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 대상들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지각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변할 뿐이며, 우리가 보는 유·무정물의 특성도 변한다. 마음챙김은 '지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론들에게는 흥미가 없지만 실제로 지각되는 것에 관해 관찰한다.

만약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던 중에 거리에서 예쁜 소녀를 언뜻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그 결과는 시각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이라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시각 기관과 시각 대상의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난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언젠가 이와 유사한 감정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모이기 전에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건이 정지되면 그것은 사라진다. 물론 그것이 오래갈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그것은 그 소녀에 대한 유쾌한 감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물결처럼 항상 흔들리고 마음챙김을 방해한다.

이제 예쁜 소녀를 보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없었으며, 그것이 정지되었을 때는 더이상 있지 않다. 이러한 특별한 시각 접촉으로부터 생긴 이러한 특별한 감정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데서도 오지 않았다. 그 감정은 조건들로부터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어딘가에서 온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되기 전에는 그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사라진 후에는 그 것은 존재하지 않고, 어디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자명해진다. 마음의 변화를 초래하는 조건들이 충분히 상호보완된 상태라도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 두통이 어디로 갔지"라고 흔히 반문하는데, 여기에는 지각과 감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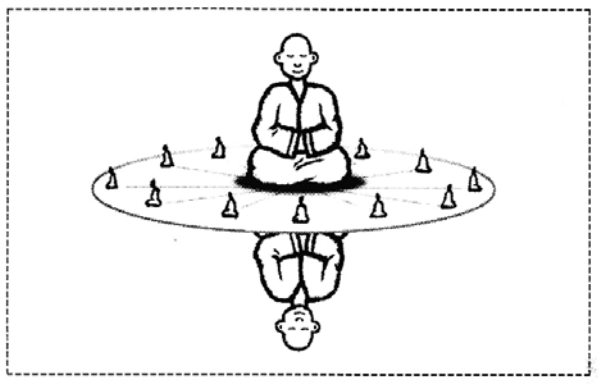
〈법구경〉에서는 "지혜의 눈을 가리고 모든 것들이 무아임을 알게 된다면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이른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선승 스즈끼는 "지혜의 눈은 '우리들로 하여금 실재 자체의 기반 속으로 똑바로 꿰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종류의 직관'이라고 설명했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왼쪽과 오른쪽

개념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

쉽게 절대화하는 습관 버려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기본적인 개념은 실제로 그것을 설명하려 들면 그리 쉽지 않다. 하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새로운 기본 개념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각각의 개념들이 홀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러나 실상 이 개념은 저 개념에 의존하고 저 개념은 이 개념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개념에 의지함이 없이 외계에 있는 생명체에게 오른쪽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파인먼 교수는 패리티 보존이라고 불리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보기를 들었다. 여기서는 미치오 가쿠가 지은 〈아인슈타인을 넘어서〉(전파출판사)에 실려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해 보자. 먼저, 패러티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슈뢰딩거 방정식이 모두 그것을 거울로 변환시키더라도 똑같다라는 것이다. 물리학의 방정식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두 우주(왼쪽 우주와 오른쪽 우주)는 물리적으로 모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행성의 생명체와 통신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자. 서로는 볼 수 없지만, 서로의 언어를 해독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질문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는 머리가 하나, 팔이 둘, 다리가 둘입니다." 그들이 대답한다. "우리는 촉수가 둘 머리가 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설명하고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다음 대화를 하면서 순조롭던 대화가 곤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오른쪽에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혼란하게 했다. 그들이 대답한다. "우리는 혼란스럽다. 우리는 '심장'의 의미를 이해한다. 우리는 그것이 3개나 있다. 그런데 '오른쪽'은 무슨 뜻인가?" "당신도 알다시피, '오른쪽'이란 '오른손'이 있는 쪽을 말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여전히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이 대답한다. "우리는 손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더듬이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더듬이가 어느 것입니까?"

우리는 말을 더듬기 시작한다. 잠깐 생각한 후 "만약 당신이 당신 몸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당신의 몸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대답한다. 이는 구심력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싸이클을 시계방향으로 돌 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 우주인은 "우리는 돌린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계방향'이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는다.

우리는 "당신은 위와 아래의 의미를 아십니까?"라고 묻는다. 그들이 대답한다. "물론, 위란 우리 혹성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쪽이고, 아래란 중심을 향한 쪽입니다. 우리는 위아래를 이해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시계침이 위를 가리키게 한 후 시계방향, 즉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라고 답한다. 여전히 "우리는 위를 이해하고, 시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른쪽'이나 '시계방향'이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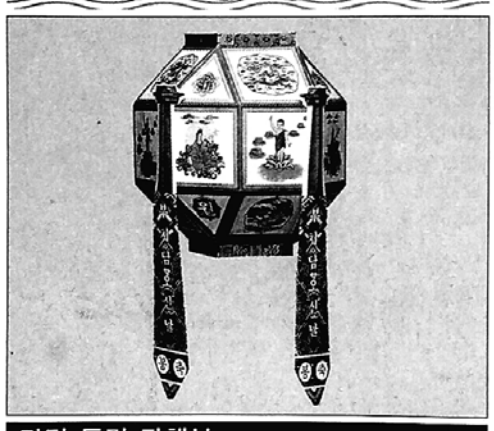
최후의 시도를 한다. "만약 당신이 북극점에 앉아 있으면 당신의 행성은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한다. "우리는 극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남극점과 북극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결국 우리는 손을 들고 만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물리학자들은 한때 라디오만 가지고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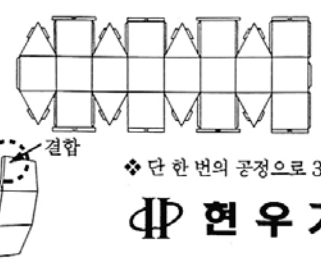
우리의 심장이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우리의 세상이 오른쪽을 선호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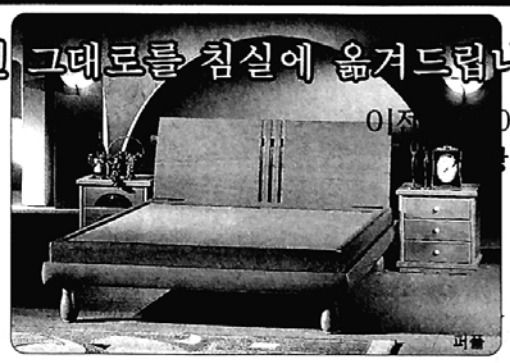
오른쪽이라는 기본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연 중에 시계 방향 또는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개념들을 사용한다. 이 같이 많은 개념들은 또 다른 개념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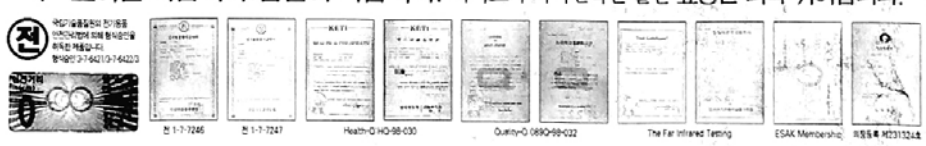
그래서 쉽사리 절대시하고 고정되게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몸에는 생기를… 생활에는 윤기를… 아~보아
자연, 그대로를 침실에 옮겨드립니다.
이제 ~~~어요.
~~~이 달라지게…

황토의 원적외선은 혈액순환촉진, 피로회복, 숙면, 체온상승, 발한작용촉진, 음이온방출, 숙취해소, 과산화지질분해등의 효과가 있고, 황토의 양이 많은 침대가 원적외선 방출량이 많은 침대입니다.
* 사찰을 통한 단체 구입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아~보아는 다릅니다;품질이 다릅니다. 써비스와 가격만족은 물론 효능은 더욱 뛰어납니다.

● 황토 흙침대의 명품으로 남겠습니다.
하나 : 살아있는 황토흙을 천연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 : 황토흙의 양이 국내 최고입니다
셋 : 전자파장애 Zero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넷 : 황토판의 내구력이 타사제품과 비교기되지 않습니다.
다섯 : 두꺼운 동판을 굉목으로 사용하며, 소비자가 직접 흙판두께, 동판두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 최고의 원적외선 방출침대
일곱 : 삼성할부금융 제휴 할부판매(최장36개월)
여덟 : 타사제품까지도 완벽한 A/S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보아황토침대 AHBOA MUD BED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7-5 동화빌딩2층
고객상담실:(02)3431-0322
~~~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3·1절 80돌-수송공원에 '普成社 기념 조형물' 건립

"조계사 민족자주정신 성지"

범종교 3·1정신 현창운동추진위 민족기상·단결 상징 조형물 세워

독립선언서 인쇄했던 보성사 현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수송공원에 27일 제막된 보성사 기념 조형물.

"이곳이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곳이란 걸 아십니까?"

"글쎄요…"

조계사 마당에서 만나는 불자들 대부분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普成社) 위치가 현재의 조계사 법당 앞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3·1절 80돌을 앞둔 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옆 수송공원에 황금빛의 조각작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계사가 민족의 자주정신을 현양하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수송공원에 세워진 조형물은 3·1운동 당시 전국에 배포된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를 기리기 위해 '범종교 3·1운동정신 현창운동추진위원회'가 설립한 것. 서울 시립대 정대현교수가 조각한 이 조형물의 상단부는 청동을 재료로 3인의 군상을 형상화해 민족의 기상과 단결을 표현하고 있다. 상공에서 보면 조형물의 형태가 태극마크로 보이는 것도 민족정신의 결집 의지다. 이 조형물의 하단에는 독립선언서와 보성사의 옛모습 그리고 독립운동 상황도와 새움말이 조각돼 있어 3·1 정신의 계승 의지를 담았다.

보성사는 1919년 2월 27일부터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으로 알려 위치는 수송공원이 아니다. 현재의 조계사 법당과 그 앞의 홰나무 사이가 원래 위치다. 30평의 2층 건물이었는데 3·1운동 직후 일본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 지번은 종로구 견지동 44번지.

27일 기념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 불자들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역사적인 장소가 오늘날 한국불교의 1번지인 조계사 마당이란 사실은 보통의 인연이 아닐 것"이라며 "조계사가 불교 분규의 현장으로 세계에 알려진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참회와 자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1정신을 바로 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1운동의 의의와 해방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마음이 사무친 독립선언서로 인해 3·1운동은 전국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백용성, 한용운 스님이 불교를 대표해 참여했듯 오늘날의 모든 불자들이 국난극복과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숨막히게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옛터가 오늘날 수행도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불자들에게 '소중한 역사의 선물'이란 게 불자들의 의견이다.

'범종교 3·1정신현창운동 추진위'가 수송공원에 조형물을 세운 것도 종교인이 3·1정신을 계승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취지다. 따라서 누구보다 지리적으로 각별한 인연을 가진 불자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 조계사는 법당과 홰나무 사이인 보성사의 원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수송공원의 조형물 위치가 3·1운동 당시 보성사가 위치했던 곳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보성사는 1906년 이용익 선생이 '흥학교 이부국가(興學校 以扶國家)'를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사립 보성중학교의 교내 출판사였다. 독립선언서가 보성사에서 인쇄된 것은 민족대표 33인중의 하나인 이종일 선생이 보성사의 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종일 선생은 훗날 '묵암비망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있다.

"2월 20일. 오늘부터 독립선언서를 보성사에서 인쇄하기 시작했다. 장효근 김홍규 최남선 신영구와 내가 좁은 인쇄소에서 문을 굳게 닫고 찍기 시작했다. 25일. 2만5천 매를 우선 인쇄 완료하여 천도교 본부로 운반하다. 26일. 1차로 인쇄된 것을 각계 동지들 7~8명에게 2천에서 3천매씩 배포했다. 27일. 오늘까지 2차로 1만매를 더 인쇄하여 천도교당으로 가지고 가다가 파출소에게 검문 당했으나 족보라고 속이고 겨우 운반했다. 어제 대한인 형사는 의암과 상의하여 겨우 매수할 수 있었다. 수 천원을 집어 주니 경연쩍게 물러갔다."

이 비망록에는 간단히 언급됐지만 독립선언서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조선인 형사의 일화는 유명하다.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가 한창 인쇄되던 1919년 2월 27일 밤. 보성사를 급습한 종로경찰서 소속 한국인 형사 신철(신철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짐)이 독립선언서 인쇄장면을 목격했다.

그가 상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순간 독립만세 운동은 화염될 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종일 보성사 사장은 다급한 그 순간에 침착히 대처했다. 천도교 중진 최린선생을 찾아 그와 만나게 했다. 최린 선생은 그에게 "만약 입을 다물어 준다면 역사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오"라며 거금 5천원을 건네 주었다. 그리고 형사는 독립신문 인쇄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신철은 곧바로 신의주로 출장을 떠나 버렸다. 그러나 3·1운동 후 일본 경찰은 신철의 '배신'을 알게 됐으며 신철은 용산헌병대에 의해 체포 됐다. 신철은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에 앞서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갔다.

80돌을 맞은 3·1운동. 그 정신을 오늘에 이어 미래세계를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 3·1정신 현창 운동의 대의다. 추진위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발표한 '3·1정신 현창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영성깊은 인간으로 접화군생하는 우주적 주체로 거듭난다. △조국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룰 때까지 지극 정진한다. △모든 종교인들은 한 마음을 이루어 새 세상을 향하여 순일하게 나아간다 등의 의지를 밝혔다.

임언태 기자(ytlim@buddhapia.com)


◇1919년 3·1운동 직전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의 모습. 우측 뒷편의 한옥집이 보성사이며 그 앞 홰나무는 지금의 조계사 법당 앞에 있는 나무다.


◇옛 보성사 터는 지금의 조계사 법당과 홰나무 사이.

◇3·1절 관련 행사

3·1절 기념식	3월1일 오전 11시, 탑골공원
3·1정신 현창대행진	3월1일 오전 10시, 조계사 명동성당 등에서 탑골공원 구간
학술발표회	4월19일, 주제 '국난극복과 21세기를 향한 3·1정신 계승방안'
미술전시회	3월1일~10일, 서울 관훈동 동호갤러리
한용운 백용성스님 추모법회	3월1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 광동여고 강당

2·8독립선언기념 한일 평화행진

반전·반핵 주장… 김희로 석방탄원서도 제출

3·1 독립선언에 앞서 80년전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에 의해 거행된 2·8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한일종교인 평화순례행진이 2월10일 일본 동경시내에서 펼쳐졌다.

일본 내 한국YMCA 주최로 개최된 이날 평화행진단은 10일 동경시내에서 '전쟁반대 및 반핵, 평화' 행진을 전개한데 이어 12일 일본 항공 자위대 백리기지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또 행진단은 13일 일본 방위성을 항의방문하고, 14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김희로 석방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한일종교인평화행진에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사무처장 도관스님, 박정기 유가협 의장 등 4인의 불교계 대표가 참석했다.

진관스님은 16일 열린 동경집회에서 '전쟁반대'에 대해 연설했다. 행진에 참여했던 도관스님은 "현지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오늘의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자부심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설가 송우혜씨가 공개한 '독립신문'에 의해 대한독립의군부가 중국 지린(吉林)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은 1918년 무오년이 아니라 1919년 3월 중순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최초의 독립선언서는 1919년 동경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과 도관스님이 일본 자위대 백리기지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주의 근원 생명의 원천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28

태극

'우주의 근원은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이다. 태극이 동(動)하여 양(陽)을 낳고 동(動)이 극(極)하면 정(靜)하여 음(陰)을 낳는다 … 양이 변하고 음이 화합하여 수화목금토를 낳아서 오기(五氣)가 차례로 베풀어지고 사시(四時)가 운행된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고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이황은 〈성학십도〉에서 동양철학의 핵심인 태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태극은 우주 만상의 근원이며 인간생명의 원천으로서 진리를 표상한다. 따라서 태극은 사멸이 있을 수 없는 구원(久遠)의 상을 상징한다. 태극도형은 우주가 음양의 대립적인 원리로 갈리기 이전의 원초적인 상태를 표상한 것이다.

고대부터 문화유적이나 생활습속에서 태극의 관념과 도형은 많이 나타난다. 서양에서의 태극 문양은 음양 상호작용의 상징이며 전체와 부분의 역동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공예품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삼태극은 하늘 땅 사람의 3재(才)를 표현한 것이다.

왼쪽 그림은 관음사 내벽화로 천정에 그려진 천주악상의 북에 삼태극 문양이 선명하다.

오른쪽 그림은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복음서 표지그림이다. 태극무늬가 서로 연결돼 생동감있게 장식되어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관음사 벽화 '천상주악상'. 1740년.


◇성 마태복음서 표지 그림(부분). 721년. 대영박물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⑨

7. 진심이란 망념이 없어진 것
(眞心息妄)

或曰 眞心在妄
혹왈 진심재망
則是凡夫 如何得出妄成聖耶
칙시범부 여하득출망성성야
曰古云 妄心無處卽菩提
왈고운 망심무처즉보리
生死涅槃本平等
생사열반본평등
經云 彼之衆生 幻身滅故 幻心亦滅
경운 피지중생 환신멸고 환심역멸
幻心滅故 幻塵亦滅 幻
환심멸고 환진역멸 환
塵滅故 幻滅亦滅 幻滅滅故
진멸고 환멸역멸 환멸멸고
非幻不滅 譬如磨鏡 垢盡明現 永嘉亦云
비환불멸 비여마경 구진명현 영가역운
心是根法是塵 兩種猶如鏡上痕
심시근법시진 양종유여경상흔
痕垢盡時 光始現
흔구진시 광시현
心法雙忘性卽眞 此乃出妄而成眞也
심법쌍망성즉진 차내출망이성진야

물었다. "진심이 망념(妄念) 속에 있는 것이 곧 범부인데, 어떻게 해야 망념에서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대답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망심이 없는 그 곳이 곧 보리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하였으며, 경에는 '저 중생의 환신(실체가 없는 육신)이 사라지는 까닭에 환심(실체가 없는 마음)도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마음도 사라지는 까닭에 환진(실체가 없는 번뇌)도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번뇌가 사라지는 까닭에 실체가 없어 사라지는 그것까지도 역시 사라지고, 실체가 없어 사라지는 것까지도 사라지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거울을 닦아서 때가 벗겨지면 밝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영가 스님 역시 '마음은 곧 근관이요, 법은 곧 객관이다. 이 둘이 므두 거울에 묻은 때와 같아서 때를 벗겨내면 비로소 광명이 나타나듯이 마음과 법을 함께 잊으면 성품이 곧 참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허망한 데서 벗어나 진실을 이루는 것이다.

或曰莊生云 心者 其熱燄火 其寒凝氷
혹왈장생운 심자 기열초화 기한응빙
其疾俛仰之間 再撫四海之外
기질면앙지간 재무사해지외
其居也淵而靜 其動也懸而天者
기거야연이정 기동야현이천자
其惟人心乎 此莊生 先說凡夫心
기유인심호 차장생 선설범부심
不可治伏 如此也
부동치복 여차야
未審 宗門以何法 治妄心也
미번 종문이하법 치망심야
曰以無心法 治妄心也
왈이무심법 치망심야

물었다. "장생(노자의 사상을 크게 선양한 장자)은 '마음이란 뜨겁기는 타는 불과 같고, 차기는 얼음이며, 빠르기는 위 아래로 쳐다보는 사이에 천하 밖을 두번이나 어루만진다. 가만히 있을 때는 깊고 고요하며, 움직일 때는 하늘에까지 오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생이 먼저 범부의 마음은 이처럼 다스리기 어려움을 말한 것인데 종문(宗門 : 선종을 일컬음)에서는 어떤 법으로 망심을 다스립니까?"

거울의 때 벗겨내면 광명 비추듯
허망한데서 벗어나면 참된 성품

대답했다. "무심의 법으로써 망심을 다스린다"

或曰人若無心 便同草木
혹왈인약무심 편동초목
無心之說 請施方便
무심지설 청시방편
曰今云無心 非無心體 名無心也
왈금운무심 비무심체 명무심야
但心中無物 名曰無心 如言空瓶
단심중무물 명왈무심 여언공병
瓶中無物 名曰空瓶 非瓶體無 名空瓶也
병중무물 명왈공병 비병체무 명공병야

물었다. "만약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 초목과 같을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무심이란 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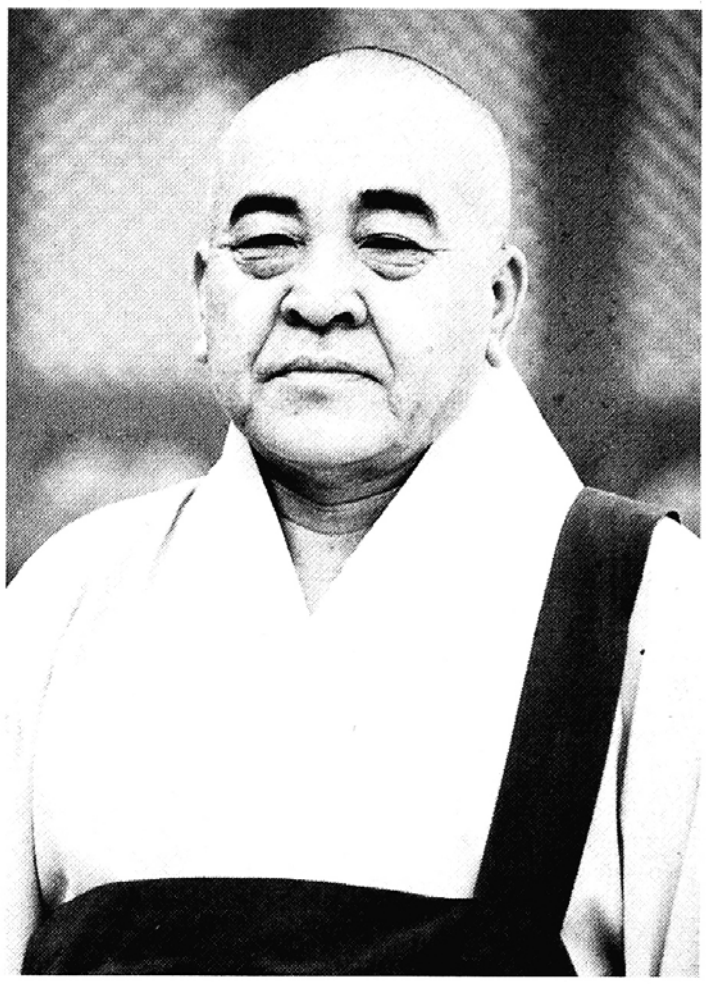
대답했다. "지금 무심이라 한 것은 마음의 본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무심인 것이다. 단지 마음 속에 물(物 : 생각)이 없는 것을 일컬어 무심이라 한다. 말하자면 빈 병이란 병 속에 물건이 없는 것을 빈 병이라 하는 것이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 병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김원각〈시인〉

큰스님 수행한담

"인과법은 세상에서

화정스님 〈포천 보덕사 주지〉



약력
- 1935년 전북 순창 生
- 55년 서옹스님을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
- 백양사 선운사 은해사 등에서 강원 이력 마침
- 65년 이후 장흥 보림사 수락산 흥국사 양평 용문사 등 주지, 백양사 총무 백양사 주지
- 포천 보덕사 중창, 현재 보덕사에 주석

믿음만 강요하는 종교 설땅 없어요
교육-복지불자에 힘 모을 때
기복불교에서 지성불교로 탈바꿈

정초가 되어서인지 매일 절을 찾는 신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일년을 살아갈 일이 걱정 된다는 신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이 정말 한심하다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도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에 와서 근심 걱정과 한탄을 한다는 겁니다. 정초에 부처님께 근심 걱정을 털어 놓고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죽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후련한 그 마음이 오래 갈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법당에 앉아서는 마음을 경돈하지만 읍내에 들어서면 어느새 번잡스러워 진다는 겁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하나 올 정초에 신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니까요. 신도들은 하나같이 묻습니다. "스님들이 그렇게 싸우고도 불교가 잘 될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만 가슴이 작아 집니다. 나의 허물을 내 입으로 어떻게 변명할지 궁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호기롭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명이 넘는 스님 가운데 수십명이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잘 안될 불교라면 뭣때문에 믿습니까. 불교를 믿으면 되지 스님들 싸우는 일에 뭐그리 애를 씁니까. 잘 믿는 신도는 그 복으로 잘 될 것이고 싸우는 스님들은 그 업을 면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쯤되면 어지간한 신도들은 내 말뜻을 알아 듣습니다. 그래도 더 자세히 우리 불교의 폐단을 묻는 신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불교가 지금 앓고 있는 병 3가지를 말해 줍니다. 이 3가지 병은 불교가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속화 되면서 생긴 것인데 단순간에 고쳐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자들이 노력해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부르고 말 위험천만한 병입니다.

그 첫째 병은 승단이 너무 복잡하고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하나여서 모두가 일불제자인데 무슨 종단 종파가 그리 많은 겁니까. 옛날에는 선교양종으로도 불법은 맥을 이어 왔고 그 이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의존했습니다. 수행을 할 사람은 산중불교의 지킴이가 되어 산공부를 하고 경학을 연구하고 포교를 할 사람은 중생들 속에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 패거리들도 아닌 승단에 왜 그리 갈래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종단에서 말썽을 일으켜 징계가 되면 저 종단으로 간판을 바꿔 걸고, 비구종단에서 물을 먹고 잘 살다가 어느날 속가 살림살이를 차리고는 종단을 바꿔서 계속 절집 사람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한 불교의 기둥인 승단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도덕이 허물어져 간다고 염려가 태산 같더니 요새는 승단에서도 위계가 많이 허물어 졌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심과 겸양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는 수행자 집단에서 위계가 없어 진다는 것은 수행의 맥이 녹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병입니다.

또 하나의 병은 문중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문중이란 원래 좋은 풍습이었습니다. 훌륭한 스승 아래 그 법을 잇는 문하의 무리들이 있어 불교의 정신과 덕화가 더욱 현창되는 힘이 바로 문중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정과 돈과 권력 같은 세속의 논리들이 문중을 얽어매고 있기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출가하는 이들이 문중을 먼저 따진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문중이라는 인연의 끈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스님들이 존경 받는 그런 승단이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지적하는 병은 관광수입입니다. 60여 사찰이 문화재관람료 명목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사찰은 모두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요 사찰들입니다. 문화재와 자연환경 역사가 가장 빛나는 절들이 관람료를 받음으로 해서 병이 든다는 겁니다. 관람료를 받는 절에서 그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도 교화와 포교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으니 도심의 포교당이나 빈한한 말사들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미 전대의 스승들이 가꾸어 주신 명찰의 이름에 걸맞게 목마른 중생들에게 단비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람료를 받는 절들의 관람료 수입은 당해 사찰이 한푼도 못쓰게 해야 합니다. 대신 그 수입을 종단이 모아서 교육을 위해 포교를 위해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제양성에 그 정재들이 쓰여져야 합니다. 현대 한국불교는 건물 불사를 참으로 훌륭히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홀했던 것이 도제양성입니다. 아무리 절간을 잘 지으면 무엇에 씁니까. 그걸 잘 지키고 훌륭히 쓸 뒷사람이 없다면 오늘의 불사는 한낱 소꿉놀이에 불과합니다. 승려가 승려를 교육하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교육하고 받는데 재정이 적잖게 듭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매섭게 후진을 길러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기에 드는 재원을 관람료로 쓴다면 좋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선대의 스승들이 물려준 빛나는 유산으로 인해 얻은 수익금을 전체 불교가 똑같이 유용하도록 쓰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나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문중의 득세를 열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구는

한성대학교

1999학년도 1학기 사회교육원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 모집>

삼보에 귀의 하옵고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불교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한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반을 개설 하였습니다.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반에서는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의 전수, 각종 행정기술의 습득은 물론 현대사회의 시사문제 등을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층분석 강의해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 · 아 래 · · ·

1. 기간 : 불기 2543년(1999년) 3월 셋째 주부터 6월 넷째 주까지 (1999. 3. 16~6.22)
2. 강의 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시 50분까지
3. 모집인원 : 40명
4. 수 강 료 : 1인당 15만원(한 학기)
5. 접수기간 : 99년 2월 18일부터 ~ 99년 3월 11일가지 ※전화접수 가능함
6. 문 의 처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전화 (02)760-4401, 744-8480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과 사회교육원장 명의의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 개설과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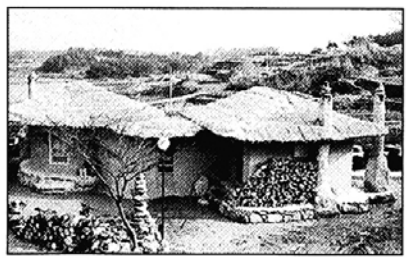
개설학기	교과목명	개설학기	교과목명
1학기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I (조직 인사, 재무, 회계)	2학기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II (정책, 복지, 지방자치))
	불교재산관리		불교 상담심리
3학기	불교와 정보화	4학기	불교와 사회문제
	불교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불교 사회복지의 현실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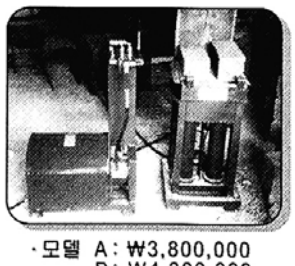
※ 매 학기 마다 사회저명인사의 특강이 있습니다.
1학기 특강 ① 한국 종교정책의 현황과 과제
②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서의 남북관계와 불교

황토 흙벽돌 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634-1237

탈종공고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예하 귀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1리 752
■성 명 : 박선동(불명:성 관)
■사찰명 : 행운사

위 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2.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큰스님 수행한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풍족하면 잡념과 탐욕 더 생겨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 생각하며
마음공부에 시간과 노력 투자해야



◇40여년전 화정스님의 백양사 강원시절 사진. 앞줄 오른쪽 첫번째는 현재 나주 중림사 주지인 지향스님이고 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화정스님이다. 세번째는 前 백양사 주지 학능스님, 다섯번째는 입적한 태허스님이다.

불사를 여법히 회향하고 이 마음 한 조각 잘 닦아 부처님 모시는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불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마음 속으로는 나보다 더 예리하게 병폐를 지적하고 혹독한 처방전을 내릴 것입니다.

이제 불교는 다시 생산불교의 풍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백양사 강원에 있을때 종종 찾아 갔던 스님이 계십니다. 내장사에 계셨던 고벽스님인데 스님은 늘 "앞으로는 신도가 절에 쌀이나 돈을 갖다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전혀 알길이 없었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의 의미는 무척이나 넓을 것입니다. 복지사업도 생산불교이고 교육불사도 생산불교입니다. 사찰소유의 농지를 농부들에게 도지 줄 것이 아니라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를 실천하는 수행체험 프로그램의 실습장으로 만들면 승가와 재가가 함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를 향해 뭔가를 생산해 내는 불교가 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고답적인 교리만을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불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강원을 마치고 장흥 보림사 주지를 맡고 있다가 문경 김용사로 불려갔지요. 총무소임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967년경인데 김용사에 나의 은사이신 서옹스님과 성철스님 서암스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참으로 서슬 푸른 선사의 풍모 그 자체였습니다. 검박한 생활과 철저한 수행력은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는데 뭘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묵묵히 화두삼매에 드는 것으로 모든 걸 다 가르치시는 그런 경지였지요.

그때 김용사는 논 1백마지기와 밭 1백마지기를 경작했습니다. 그러니 30여 대중 스님들은 하루도 일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이 끝난 뒤에 참선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날들이 피곤하기 그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만큼 달콤하게 '중 생활'을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잡념이 생기고 탐욕이란 망령이 기승을 부리는 법입니다. 종단분규니 뚜지싸움이니 문중이니 파벌이니 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도 생산불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결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간의 종교는 인간의 고난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기쁨과 희망으로 환치시켜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믿음만이 강요되는 종교는 이제 시선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완성해 나가는 보다 능동적인 믿음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의 지향점은 바로 선(禪)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서구의 지성들이 동양의 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미래의 종교에 대한 보편적 신념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을 통한 지혜의 충족으로 인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구가하게 될 것을 말입니다. 인류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인간의 윤리는 무엇때문에 무너지고 있으며 인간성은 어떻게 회복하자는 겁니까. 아니, 인간성이란게 뭡니까. 냉철하게 따져 보고 합리적인 결론을 유추해 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얻는 길이 바로 참선입니다.

공산주의는 '획일'로 당하고 민주주의는 '방종'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요즘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생활현장의 개인이나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데서 인륜은 무너지고 인간성은 사라져 갑니다. 개인을 통제하고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이는 어떤 훌륭한 제도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은 법질서로 충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같은 콘사이스식 교육이 그걸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개혁의 난제를 풀기위한 노력이 대단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인간교육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에 대한 믿음만 심어주어도 윤리 교육을 다 마치는 겁니다. 인과를 믿고 그 어김없는 법칙을 두려워 한다면 정치판에 청문회가 있을 수 없고 경제난이 올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범죄도 결국 인과의 엄연한 법칙을 알지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교육의 첫 걸음은 인과를 알게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인과의 법임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본래 나의 모습'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 곧 화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몸의 정체를 알아 내려는 끝없는 정진이 참선이니까 참다운 인간 삶의 모습을 도출해 내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닙니까.

나는 19년전에 이곳 보덕사라는 단출한 절을 맡은 뒤로 불사를 하느라 많은 세월을 고생했습니다. 81년에 이곳에 왔는데 한심하게도 토끼길에 전기도 없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지장전과 산신각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올림픽이 열린다고 법석을 떠는 88년에야 이 절에 전기가 들어 왔다면 쉽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고생이 고생이 아닐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고된 일과 더불어 절살림을 배운 덕일 것입니다. 밀밥과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행자시절이 없었다면 짱기질에 모내기에 새벽바람 가르며 들판을 쏘다니던 시절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배부르고 주머니에 돈 넉넉하면 절대 수행 못합니다. 이것은 스님들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재가자들도 마음속으로 끝없이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좀 넉넉히 산다고 시주나 크게 하는 길로 복을 다 짓고 마음을 다 닦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달마에게 자신의 불사공덕을 과시하려 했던 무제가 "공덕이 없다"는 선사의 한마디에 입을 다문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마음의 밭을 지성으로 일군다면 자신의 근기도 상승하고 불교의 병폐도 치유되고 나아가 세계가 한송이 꽃으로 필 것입니다.

정리=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자기행동 책임지지 않으니 인륜 무너져
한국불교 3대병 못고치면 속화 못면해

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옳은 선견(先見)이에요. 소위, 기복불교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쌀됫박과 돈푼을 불단에 올리고 막연히 소망을 기원하는 불교에서 수행정진과 교리적인 지식의 충족 또는 그에 대한 체험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지성불교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불교라고 해서 공짜 신도들만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승단이 신도들의 날카로운 지성과 열정을 실망시키거나 그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굳이 절에 시주할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교는 뭘 갖다 바치고 빌기만 하는 종교가 아닌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불교가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농사짓는 것만이 생산불교가 아니예

나의 수행일기



조현춘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

'초등학생도 경전독송 가능하게'
화두삼아 금강경등 한글화 노력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나는 여러가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 내안으로 불어오는 법풍(法風)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고, 나는 계속 꾸준히 경전을 독송해 나갔다.

그러면서 차츰 한문으로 되었거나 고어로 풀이된 〈금강경〉을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현대의 한글로 풀이된 〈금강경〉을 만들어야 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로부터 3주후 나는 내가 직접 초역을 하고 '화엄경과 화이트헤드를 공부하는 모임(대장 안형관교수)'에서 검토한 한글로 풀이한 〈금강경〉 원고를 들고 무비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을 찾아간 것은 스님의 〈금강경 오가해〉책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너무나 자상한 가르침을 주셨다. 내것을 보시더니 "그렇네요. 이렇게 번역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절 냄새가 폭폭 나네요"하면서 너무 좋아하셨다. 처음에는 그저 격려 정도로 생각했다. 도가 높으신 어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스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약이 올랐다. 그래서 일부러 학생을 나무라듯 스님의 번역에 대해 흠을 잡았다. 불손한 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3시간 40분 동안 한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스님을 보면서 나는 완전히 기가 죽어 버렸다. '이 어른이 진짜 사람인가?' 하는 놀라움 이었다.



두번째 찾아갔을 때에도 스님은 2시간 40분 동안 〈금강경〉 해석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한글로 불경 번역을 하겠다고 나선 나에게 스님은 불경의 한글화를 위해 평생동안 작업해 온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다. 나는 큰 감동을 받았고, 큰 힘이 되었다. 나무 무비보살 마하살! 나무 무비보살 마하살!

그런 스님의 자상한 가르침 덕분에 지난해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을 출간했다. 또 〈금강경〉외에 다른 몇가지의 경전도 번역하기 시작했다.

나는 동양과 서양을 대립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양의 정신문화가 없는 서양문명은 공허하고, 서양문명이 없는 동양문화는 산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동양 사람들은 물론 서양의 많은 현인들도 정신문화는 동양에 있다고 보아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양문화의 핵심이 불교에 있다고 보며,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금강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본다.

심리학을 전공한 나는 〈금강경〉이 동서고금 유일무이의 교양서인 동시에 최고의 정신관련 전공서라 믿는다.

〈금강경〉은 한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다. 수지독송위타인설하는 경이다. 반복해서 읽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종교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금강경〉을 독송하도록 하고, 모든 교육자들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독송해야 한다고 믿는 내 주장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일까!

경전은 그 시대 대중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내 연구실에서 '〈금강경〉독송모임'을 연다. 〈금강경〉 독송도 하고,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2차역)을 위한 낱자 수정도 하고 있다. 또 화화모임과 한국등서정신과학회에서는 〈화엄경〉과 등서양 고전을 현대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게 이런 수행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불교를 믿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따라 항상 행복하길 발원한다. 〈끝〉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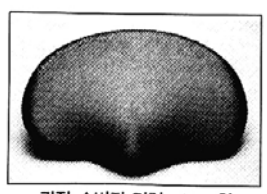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이 개발되었다.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진다.
- 크기가 작아 휴대·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
사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이다. 사찰 판매용, 보시용, 초파일 등의 기획상품으로 다량 구입하시면 귀 단체의 이름을 제품에 새기고 도매가격으로 납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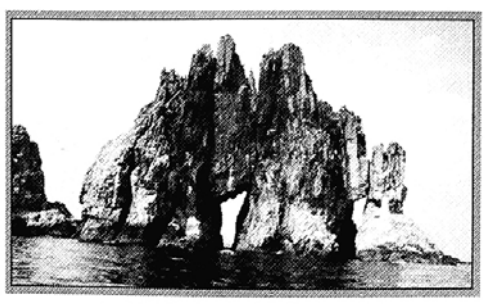
권장 소비자 가격 : 27,000원

※ 통신판매 가능. 전화 주십시오!

전국 도·단위로 총판권을 가지고 영업하실 분, 불교용품 유통업체는 연락 주십시오.

인체공학제품 개발 전문업체
"한얼휴텍(Hanol Human & Technolgy)"
TEL (02)433-7447/ FAX (02)433-7417

세존도 소원성취기도 및
방생법회 유람선취항



△ 500인승 사랑의 유람선

여지껏 불자의 입으로만 전해오던 불가의 전설적 성지이며 소원성취한다는 석가세존의 신비를 간직한 남해의 최남단 세존도에 마침내 500인승급 대형 크루저 유람선이 취항함으로 불가의 전설적인 세존도에서 소원성취 기도 및 방생법회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해는 신라고대사찰인 금산 보리암, 용문사, 화방사가 있는 불교의 산교육장으로 고대사찰 삼사순례와 세존도 소원성취 방생기도 법회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하심과 불자여러분의 불심을 한층더 새로이 할 것입니다.

■ 소요시간: 왕복 3시간, 매월 수시운항
■ 전 화 : 0594) 862, 863-0947

남 해 해 상 관 광 레 져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해수욕장

'99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72년 9월에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대중불교의 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불교전문교육의 요람지로서 2년제 야간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포교사 자격고시대비생 (교리 및 의식교육) 불자
3. 강의시간 주4일 수업 (오후 7시부터 ~ 8시 30분까지)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불교문화의 이해 ◇초기대승불교	◇비교종교 ◇반야사상	◇부파불교 ◇유식사상
	2 학 기	◇기신론 사상 ◇선사상	◇천태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학기 : 의식이론 및 실습교육 / 동·하계스쿨링교육(특강 및 의식실습 실시)
※ 교수진 :
권기종교수(동국대) 강건기교수(전북대) 권탄준교수(동국대) 장희옥교수(동국대) 최종석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김사업교수(동국대) 김종명교수(동국대) 김웅기교수(동국대)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2월 28일 18:00까지(본대학 서무과)
6.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서무과로 문의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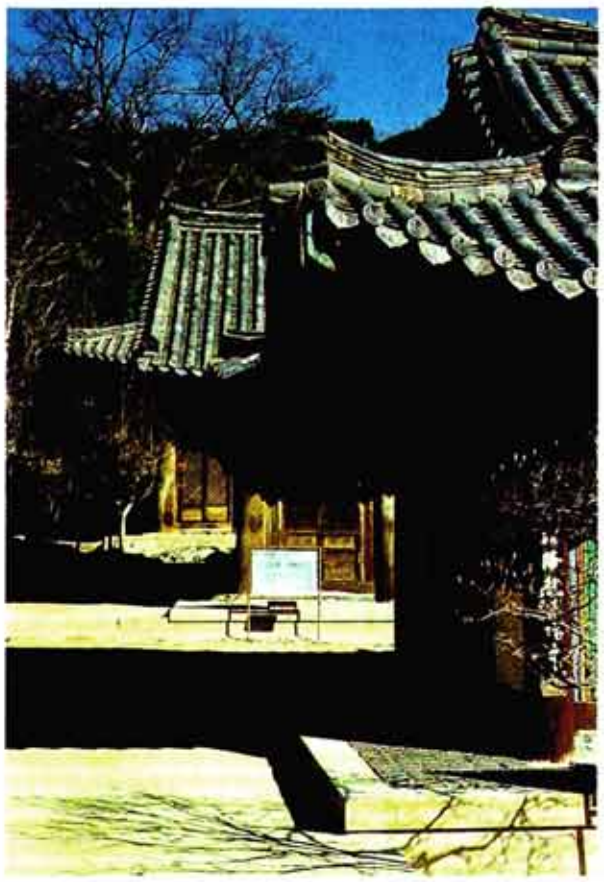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옛것 살리며 새것 짓는 '교훈'

가람의 장면들 3

통도사 중로전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건축학〉


◇새 건물이 옛 건물을 가리지 않도록 설계된 통도사 중로전. 옛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국건축의 소중하면서도 겸손한 윤리가 숨어있다.

천년에 걸쳐 나란히 선 건물 3동
가리지 않게 배열한 질서 돋보여

미륵불 기다리는 가섭 봉발 눈길

불보사찰이며 동시에 현존 최대의 사찰인 통도사 가람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일주문이 있는 입구 쪽부터 말하자면, 우선 영산전 약사전 극락전으로 이루어진 하로전(下雄殿) 지역이 나타난다. 그 다음 일주문을 지나면, 대광명전 용화전 관음전이 일렬로 서있는 중로전(中雄殿) 지역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웅전과 금강계단으로 이루어진 상로전(上雄殿) 지역이 있다.

노전(雄殿)이란 사찰의 중요한 불전을 관리하는 노전스님이 기거하는 곳으로, 통도사에 상중하 3개의 노전이 있다는 것은 3개의 가람이 합쳐진 복합 사찰이라는 의미도 된다. 그만큼 통도사 가람은 거대하고 복잡해서, 통도사 건축을 제대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한국 사찰건축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중로전 지역이다.

우선 3동의 커다란 건물들이 일렬로 서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보통 이런 규모의 불전들이면-하로전의 세 불전들과 같이-서로 직각되게 놓여 있는 가운데 마당을 형성하면서 가람을 이루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앞 뒤 일렬로 놓이다 보니 전각과 전각 사이에는 넓은 마당이 없고, 각 건물로 들어가려면 앞 건물의 옆면을 돌아 들어가야 하는 어색함이 있다. 또한 용화전 앞에는 밥그릇과 같이 생긴 이상한 탑이 서 있어서 궁금증을 더한다.

중로전 제일 뒤쪽에 있는 대광명전은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화엄신앙의 불전이다. 그 앞의 용화전은 미륵불을 모신 불전이고, 가장 앞의 관음전은 명칭 그대로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용화전 앞에 서있는 사발 모양의 탑은 일명 봉발탑(奉鉢塔)이라고도 불리운다. '바릿대를 바치고 있는 탑'이란 뜻이다. 이런 모양의 탑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이름부터 호기심을 돋운다.

미륵은 인도에서 활동했던 실존 인물로 전한다. 미륵이 죽자 사람들은 그가 보살이 되어 도솔천에 올라갔다고 믿기 시작했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지상의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명상에 잠겨있다. 이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 유명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오른지 56억 7천만년 후에 다시 지상에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베풀어 지상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게 되어있다. 지상에 내려온 미륵은 이미 부처의 신분이 되며, 3번의 설법은 용화수 아래서 설해지기 때문에 용화삼회라 이름한다. 미륵불의 세계는 당연히 용화세계이며, 용화전은 용화세계를 재현한 불전이다.

미륵불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미래불이며,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메시아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먼 훗날 미륵불이 하강한다고 해도 무지한 중생들이 그를 미륵불로 믿어줄 것인가? 무언가 징표가 필요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제자인 가섭에게 자신의 바릿대와 가사를 주면서 일렀다.

"가섭아, 너는 열반에 들지말고 내 발우와 가사를 간직하고 있어라. 훗날 미륵불이 하강하여 용화세계를 열 때 발우와 가사를 바쳐라."

누구보다 먼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섭에게는 섭섭한 일이지만, 미륵불을 증거하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가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당부대로 지금도 계족산에서 바릿대를 들고 서서 미륵불이 하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통도사의 용화전과 봉발탑은 가섭이 미륵에게 바릿대를 바치는 바로 그 용화세계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입체적이고 건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로전의 세 건물은 동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대광명전은 신라시대, 용화전과 봉발탑은 고려시대, 그리고 관음전은 가장 나중인 조선 후기에 건축됐다. 중로전 일대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천년이 넘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건축적 질서가 숨어있다.

가장 먼저 자리잡은 대광명전은 가장 크고 높다. 용화전은 그보다 약간 작고 낮게 건축됐다. 먼저 세워진 뒤쪽의 대광명전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배려한 것이다. 가장 나중에 세워진 관음전은 아예 3칸으로 칸수도 줄이고 지붕도 제일 낮게 만들었다. 세 건물은 비록 앞뒤로 나란히 서 있지만, 새건물이 옛건물을 가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건축됐다. 관음전 앞에 서 보면 3동의 불전들이 이루는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되 결코 옛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한국건축의 위대한 윤리요, 현대가 받아들여야 할 소중한 교훈이다. 또한 이처럼 용화세계는 질서정연하고 겸손한 세계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얼굴·몸집 크나 팔은 왜소

진천 사곡리 미륵불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궁골에는 인삼밭이 빼곡하다. 사찰터를 감싸고 있는 상산(霜山)은 영험하여 진천은 이 산의 이름을 따서 '상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산허리에 올라 지녁노을과 함께 덮이는 구름을 바라보는 절경을 상산모운(霜山暮雲)이라고 하는만큼 산하가 절경이다.

민가와 한참 떨어져 있는 인삼밭 한가운데에 있는 미륵불은 현재도 마을사람들이 지성을 드리고 있다. 얼핏보면 묘소앞에 세우는 석상과도 비슷한 미륵불은 둔부에 있는 꽃매듭이 유난히 눈에 띈다.

둔부의 꽃 매듭 특이
가슴 균열 파손 우려

백호와 삼도가 드러나고 있으며 팔은 큰 몸에 비해 유난히 왜소하게 조각돼 있고 다리부터는 땅속에 묻혀있다.

30cm관석에 조각된 미륵불은 높이가 2m이며 폭은 85cm이다. 총폭은 42cm. 두고 67cm. 얼굴폭 50cm, 코 26cm이다. 특히 귀는 40cm로 밉으로 늘어져 어깨와 붙었다. 미륵불은 주변암석의 주류를 이루는 단단한 화강암으로 조성됐지만 가슴부터 금이 가고 있어 파손이 우려된다.

석불문화연구회 서현 답사부장은 "불상형식이 특이하여 고려시대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변에 통일신라후기의 마애여래입상(충북유형문화재 제124호)과 석굴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궁골의 밭 한가운데 있는 미륵불.

마애여래입상은 높이 690cm의 대형 마애불로 석굴입구에 내만된 암벽을 이용하여 거신광(擧身光)을 표현한뒤 여래입상을 양각했다. 비만형의 얼굴에 두귀는 길어서 어깨에 닿았다. 거대한 규모에 비해 조각기법이 뒤떨어진 것으로 보아 미륵불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두귀가 크게 조성돼 있고 두손은 몸앞에서 들어 인지와 중지를 맞댄 채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고 있는 아미타구품인을 연상하게 하는 것도 미륵불과 동일한 조각수법이다.

특히 궁골은 중국 원나라때 루빌라이의 비(妃)인 오씨가 태어난 곳으로 고려에 있는 부모에게 궁궐을 지어주었다는 얘기가 전하는 곳이다.

정리=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정영호박사 감정

■중기사 비로자나불

통일신라 하대 조성
전각 지어 봉안해야



전북 임실의 중기사 비로자나불(사진)은 눈을 파고 목부분과 귀에 결함이 있지만 신라말 고려초에 유행된 비로자나불 조성형식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중기사 비로자나불은 통일신라 하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인이 정상적인 지권인을 결하고 있으며 무릎까지 덮힌 법의도 유려하기 짝이 없는 전통적인 신라형식을 따르고 있다. 머리가 나발이고 상호가 동안(童顔)이다.

이 정도의 불상이면 대좌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중기사는 옛날 대형사찰이 자리잡았던 사지로 추정된다. 그런만큼 사찰터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복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제보 : (02) 722-4162~3

불사의 전당

▶사방불
부처님조성 천불 만불
협찬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막강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목감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징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어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 (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가 세상에 나왔으니 모든 게 내탓일 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점안식을 하고 지원을 설립했는데 이는 여러분의 돈독한 신심이 합쳐져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원은 누구의 집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자립니다. 오늘은 점안식을 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물을 떠놓고 초를 켜놓고 향을 피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가 따뜻한데로 모이고 시원한데로 고이니 불편한일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행동해야

우리네들 마음이 부처님 같질 않아서 사불이 될 염려가 99%나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다 모셔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에서 점안식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점안식을 하는데 붓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찍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점안식 하는 분의 심중을 거기다가 입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의 뜻과 더불어 같이 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점안식을 한다면 사불이 될 염려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거기에서 영계성이 들려서 애를 태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의 점안식은 쉽게 말해서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는 남의 집에 전화를 할 수가 없죠. 또 남의 집에서 나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죠. 통신이 되질 않고 두절이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심안에 이 부처님을 동시에 더불어 같이 이루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같이 더불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체 보살들도 같이 할 수가 없고, 구경천에서도 같이 할 수가 없고, 도리천에서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함이 없이 동시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 많이 쓰시죠. 그럼 그걸로 비유하죠.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모든 입력된 마음을 합류화 시켜도, 만약에 영이 수천 수만이라도 내 영에다가 한데 합치면 영이지 합친 사이가 없습니다. 물질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수십만 명을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 한테 입력을 해놓으면 부처님께서는 일일이 관찰하시고 용도에 따라서 모든 응신으로서 응해주시죠.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니까 보살을 내보내서 병이 있으면 약사가 돼주시고, 죽어서 좋은 데로 못가는 사람에게는 지장이 돼주시고,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앞엔 칠성이 돼주시고, 물에 가서 애쓰는 사람한테는 주해신이 돼주시고, 산에 간 사람을 염원하면 주산신이 돼주시고, 이렇게 수없이 나투어 주십니다. 나툰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 사람보고 저 사람 볼 때 벌써 나툼입니다. 화한다 이겁니다. 화해서 나툰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는 방법은 모두에게 똑같은 자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화하시고 그렇게 무상하시며 묘법으로써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은 어떠한 일에도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 세균성 이런 것이 악하게 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 생각하시고 둘이 아니게끔 마음을 동글려서 절을 한다면 일배를 한다 하더라도 천배 올린 것만 못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의 머리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뒤쳐지는 사람이 있고 너무 게을러서 뒤쳐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 이게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우리네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부처님을 승상하신다면 깨우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깨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도



그림 · 최주현

상대에 맞춰 대해주면 너 · 나 없어 그대로 화목 부처님 법 우리네 법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과거 자불이 현재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종자가 없다면 지금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종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체를 먹고 쓰고 살고 이러죠.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뿌리없는 나무가 있는가. 여러분도 종자가 없다면 뿌리가 없고 뿌리가 없다면 싹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싹인 것입니다. 싹은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믿어야 되지 딴 나무의 이름과 형상을 의지하고서 거기서 뭘 달라고 하니 그게 됩니까. 첫째 벌써 통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사는데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지는 않고, 자식의 탓으로 남편의 탓으로 부인의 탓으로 부모의 탓으로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싸우니 그 가정은 벌어지는 겁니다. 자꾸 싸우고 그렇게 되면 돈도 쓱 들여다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저 집에 들어가면 찢기고 그럴 거니까 난 들어가기 싫다 이런 뜻이죠. 돈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겠습니까. 일체 만물이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이 꽃 한송이도 내가 예뻐하면 나에게 적응을 하고 내가 미워하면 이건 적응을 안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웃에서 살아도 내가 속에 미운 생각이 뭉쳐 있으면 그 쪽에서도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미운 생각에 막아지니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 탓으로 생각해라 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런 거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세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것, 이걸 한번/계산 잘 해보십시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편이나 자식이나 나가서 어떤 불편한 일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행동해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따뜻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고 시원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기 잣대로만 재고 자기 생각으로 재서 말을 하려고 하니 이거는 씨가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대해주고 작으면 작은 대로 대해주면 그대로 둥글어지죠. 너 나가 따로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목해지고 가정에 이혼율도 적어지고 또 자식하고 떨어질 일도 없죠. 가정이 화목해지면 사회가 화목해지고, 사회가 화목해지면 나라가 화목해지죠. 이 세상 모두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많아서 마음없는 게 마음이며, 부처가 너무 많아서 부처는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될 가능성을 99%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부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됐을 때에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또 부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건질 때에 내가 건졌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부처님 일은 떠나서 한번 여러분의 얘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봤을 때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만 만나고 있겠습니까? 어디를 갔을 때 거기만 가고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듣고 보고 가고 오고 만나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공했어요. 찰나찰나 이것 보면 저걸 봐야 하고 이것 들으면 저걸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돼줘야 하고, 형님 하면 형님이 돼줘야 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돼줘야 하고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는데 만약에 내가 형님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찰나찰나 바뀌어서 어떤 거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부처예요.

어떤 것이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란 말입니다. 마음도 어떤 마음을 썼을 때 내가 썼다고 할 수 없으니 마음도 너무 많아서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시시각각으로 화해서 변하고 돌아가니까 어떤 마음을 썼을 때 내가 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천차만별로 화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모두가 공했구나, 어떤 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닥쳐오는 대로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는데 인간은 고등동물이어서 나쁜 거 좋은 거를 잘 알고 있으니 좋게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좋게 마음을 쓰되 전자에 살아 내려오던 습관대로 하지 말고 시대가 변하는 대로 좀 더 한생각으로 바로 들어가라는 거죠. 감수성이 빠르고 상상력이 빠르고 지혜가 빠르면 그냥 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전에 있는 원식입니다. 원식! 수 · 상 · 행 · 식 · 원식. 이것이 바로 한데 합쳐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6)

뿌리가 싱싱하면 잎은 절로 푸르르다

믿음은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완전한 믿음은 그 어려움의 얽힌 실타래를 깨끗이 풀어 버린다.

믿음은 믿은 만큼 보답한다. 일체를 믿는 이에겐 일체를 주고 절반만 믿는 사람에겐 절반만 준다. 주인공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쳤다 해서 좌절할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는 한 어려움을 준 거기에서 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 그러므로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본래 부처로서의 광명이 우리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게 된다. 그 광명 앞에는 어떤 어둠도 당해 내지 못한다. 온갖 더러움과 욕심, 어리석음이 일시에 사라질 것이다.

"당장 급한데 어떻게 주인공을 믿고 전부 맡기라 하는가?"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뿌리가 싱싱하면 가지와 잎이 절로 푸르르니 썩을 일도 없게 된다.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공덕의 탑을 쌓고 믿음은 결코 시들지 않는 지혜의 나무를 자라게 한다.

주인공에게 믿고 맡길 때 주인공의 응답이 온다. 뒷전에 물러앉아 있던 주인공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주인공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다.

진실하게 믿고 물러서지 않을 때 비로소 해결하면서, 체험하면서, 감흥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아! 내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단호하게 쥐고 들어가 맛을 보고 감흥이 되고 마침내 참 나가 드러나게 된다. 참 나가 드러나 부자 상봉이 이뤄지면 부와 자가 더불어 자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그 자리에 일임하게 되면 왜 모든 일이 잘 풀리는가? 그것은 근본 자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우러나와서 유위의 법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때에 따라서 다보 여래가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며, 관세음 보살 · 문수 보살 · 보현 보살이 되기도 한다. 또 신장이 되기도 한다. 주인공은 무엇이든 아니되는 게 없으니 주인공 자리는



본래 공한 것이지만 그러한 묘법이 있다. 그러므로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다면 주변이 화락해질 것이다.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굳게 믿었을 때, 에너지는 속사포같이 한찰나에 전달이 된다. 또 그런 믿음으로 주인공을 부르면 우주 전체가 한꺼번에 듣는다.

주인공밖에 할 수 없다고 믿어 진실로써 맡겨 놓는다면 믿고 맡기는 순간 마치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이 모든 게 밝아진다. 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사회, 내 국가, 이 세상이 다 밝아지게 되어 있다. 고로 믿고 맡기느냐 않느냐의 한생각에서 천지가 벌어진다. 한생각 잘하면 무량의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한생각 잘못하면 무량수의 죄업을 뒤집어 쓰게 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본래로 죄가 없기에 죄 불을 자리 또한 없으나 한생각 잘못 일으켜 어둠에 빠져 든다는 뜻이다.

한마음 자리에 대한 굳은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억겁 년 이래의 업보도 그 행복한 마음 앞에서는 솜처럼 가볍다. 왜냐하면 한마음의 그 무한 광대한 복락에 비추어 볼 때, 중생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온갖 근심과 번뇌와 경계를 한짐 부려 놓는 것과 같다. 믿으면 편안해진다. 나는 본래로 부처라, 죄업에 물들지 않고 인과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 대광명의 존재임을 알아서 자신의 근본 마음에 귀의한다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놀듯 편안해진다. 나는 진리의 바다를 자재로이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 해도 여한이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했다면 생활 속에 어찌 잡다한 불안이나 걱정이 있겠는가.

믿음이 자라면 즐거움이 나오고, 그 즐거움 속에는 죽음이 목전에 닥쳐도 태연자약할 만큼의 진실이 자리잡는다. 생활 속에서 마음의 힘을 체험해 보라.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협찬 : 한 마 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보고 듣고 가고 오는 게 모두 찰나이니 空

☞ 15면에서 계속

법이라 이런 소립니다.

이것을 한데 합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공법이죠. 그래서 평등공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등한 공법으로서의 그 생각을 잘 내신다면 꿈을 꾸고도 둘이 아니게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영화 배우들이지 이 모습 가지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우리가 캠핑을 나왔다고 봅시다. 캠핑 나와서 한 철 살아나가는데 왜 아귀다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얘깁니다.

이 모습은 벗을지언정, 옷은 갈아입을지언정 이 영원한 자기의 불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佛)입니다. 그리고 교(敎)는 우리의 일체만물의 삶에 속한 것입니다. 살면서 배우고, 살면서 진화되고, 살면서 너그러워지고 좁아지기도 하고 널부러지기도 하고 이러는 작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머리깎은 사람만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가 바로 불교(佛敎)입니다.

자기 주인공 불성에 몰입해서
과거자기와 현재자기 상봉해야
보이지 않는데서 오는것 대처해
살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밝아졌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네 몸통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를 자유자재로이 다스릴 수가 없고 굴릴 수가 없느니라. 오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가 너 자신을 굴릴 수가 없느니라. 그 오신통 안에서 통을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공부를 할 때 이 마음은 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체가 없어서 여기 서서 저기를 뛰어 올라갈래도 올라갈 수 있고, 이 지구를 벗어나서 금성엘 갈 수도 있고, 우주를 갈래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라는 것에만 집착하고 생각을 하니까 영 넓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상력으로 뛸 수가 없으니까 행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기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을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보이지 않는 데서 오니깐 대처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일러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자기의 근본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부처다 이겁니다 자아부처! 과거의 자기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자기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바뀌고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다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되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모습 아님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증득하실려면 자기한테 몰입을 해서 즉 주인공이 불성이니까 불성한테 전부 몰입을 해서 과거 자기를 현재 자기가 상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봉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헤나간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시려면 한번이 전력을 보세요. 불을 켤 때 켜지고 꺼지는 것만 보시지 전력이 들어왔다 나가는 사이는 모르시죠. 못 보시죠. 그래서 전력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과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과학에서는요 꼭 물질로 봐야만 과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이요, 바로 무의 법이요, 정신세계입니다. 간편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신세계를 모르고야 어떻게 물질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는 소립니다.

우리 몸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있습니다. 생명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면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들 잡수세요, 공양 올려야죠."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럼 왜 공양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밥 잡수실 때에 여러분 혼자 드십니까? 여러분은 심부름만 해주는 거예요. 입에다 떠넣기만 하지 그것을 섭취하는 것은 다 몸 속의 생명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양이예요, 공양. 공양이라는 그 자체가 한데 이 세계에 어우러지면 공식이 되죠. 부처님께선 그때 그걸 원식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밥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모든 걸 순응하고 물 흘러가듯 마다하지 마라, 또 가는 거 잡지 마라 이럽니다. 내 분수는 내가 알아서 개천을 건너뛸 때도 아주 못 건너뛸 때는 건너뛰질 말아야 하고, 내가 건너뛸 만 하다하면 건너뛰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행을 못하신다면 무효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 즉 자동차가 가는 데 심봉 가운데 끼여진 쇳덩어리가 움죽거리게 됩니까, 바퀴가 굴러가게 됩니까? 그 가운데 중심은 바퀴가 굴러가게끔 힘을 배출해 줄 뿐이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여러분한테 있는 불성이라는 자체는 움죽거리지 않고 부동합니다. 그러하되 힘을 배출해 줍니다. 그러니 그것이 불성이라면 불기둥이라고 해도 좋고, 주장자라고 해도 좋고, 자부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고 일거수일투족 살아나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일체가 다 거기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깊이 하시고 닥쳐오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감사해! 너만이 이렇게 길을 인도할 수 있잖아. 감사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갈 수 있어' 하고 놓으면 됩니다. 어느 누가 회사엘 다녔는데 이렇게 안되고 부도가 날 것 같고 해서 '너만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선 그렇게 모든 것을 마음 안에 다 관하고 몰입했답니다.

이게 몰입이라는 게 보림한다 이 소립니다. 이 모든 것을 몰입을 해서 거기다 놓으면은 그것이 큰 바다, 즉 지혜 바다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체 각급에서 다 물이 스며들어서 한 아래로 모인다면 그게 큰 바다가 되죠. 바다가 되게 여기다 모아만 놓는다면 자꾸자꾸 모아져서 물로 화한단 말입니다. 물로 화하고 붙에 타버리고 이렇게 화해서 큰 바다 즉 마음의 바다가 지혜로써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동적으로 수증기로 올라가서 정화를 합니다.

내 마음의 지혜바다를 자꾸 정화를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크고 작은 게 없이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먹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먹게 됩니다. 그것이 평등공법입니다. 평등하게 내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처가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것을 알고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잘못된 걸 알고 고통을 알고 괴로움을 아니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괴로움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고 나쁜 거 좋은 거를 모른다면 저 짐승들 같이 먹고 사는 것만 알뿐, 생전에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남이 불쌍하면 불쌍한 줄 알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전에 살아오던 관습이 남아서 습관에 처하고 욕심에 처하고 이래서 그것을 과감히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디다. 굴왕신이 들어서 저 집을 못 짓는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손이 있어서 이사를 못 간다고요. 지금 당장 집이 팔리고 집을 내놔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못 가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죠. 이건 조그마한 문제라도 무척 큰 걱정입니다. 식구가 다 못 가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사서 고생하는 거죠.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간다 하면 그게 법이 돼야지, 어떻게 남의 말에 줄줄 끌려 다닙니까. 내가 간다면 내가 가는 대로 법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끌려 다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약한 탓이고 관습적인 습관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이러더랍니다. '내 손에 들어올 만해야지 뭐 건드리지. 내 손에 들어올 만하지 못하니깐 못 건드리겠더라' 고 귀신들이 모여서 그러더랍니다.

꿈을 꿔도 그래요. 이거 언짢은 꿈인데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이거를 또 어디가서 물어보고 온통 야단이 나죠. 그런데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꼭 그런 대로 일이 생기죠. 여러분에게 만약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둘이 아닌데, 꿈에 어떤 것이 보이든지 둘이 아닌데' 하며 놓으세요. 역대로 내려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본다면 모두가 둘이 아니고 부모 아님이 없고 자식 아님이 없습니다. 자기 손가락 자기가 잘라버리겠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진짜로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데 자기가 있으니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보이는 데 자기가 있고, 보이는 데서 닥치는 것은 보이는 데서 해결하고, 안 보이는 데서 닥치는 건 안 보이는 데서 해결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고 남의 형상을 믿고 이름을 믿고 온통 빌러 다니니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거를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모르면 기복이라도 해야죠. 하지만 아는 분들은 좀더 자기 자신을 한 번 잘 보시고 한 번 실천을 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철 살다가 이 모습을 벗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철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두뇌에 즉 말하자면 입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듯 말이에요. 입력이 돼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도 차원에 따라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짐승의 모습을 타고 났다면 짐승 대접밖엔 더 받겠습니까. 속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모습이 그러니까 짐승의 대접밖엔 못 받죠.

여러분도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여자의 모습으로 타고났으니까 여자의 대접을 받죠?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의 대접을 받고 남자의 행동을 하고 그러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덧붙이기를 '허! 너가 그러면 나도 그러지. 너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너는 뭐가 잘났어.'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분들은 아버지도 됐다가 오빠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때로는 할아버지도 돼 줄 수 있어야 되고, 여자 분들은 할머니도 돼 주고 누이동생도 돼 주고 아내도 돼 주고 어머니도 돼 줄 수 있는 그런 여자여야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귀하게 생각이 되고, 한 그릇에 숟가락을 열 개든지 다섯 개든지 끼워 놓고도 그것을 퍼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거쳐
인간되도록 이끌어온 자기인데
왜 못믿어요 그게 보배 예요

행복한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줄 아시진 않을 테죠. 잘 아시죠. 돈이 많고 보란 듯 하게 살고 자식들에게 용돈 끊어지지 않게 주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하는 사람들의 애들 보면요, 큰일을 못해요. 남의 도움만 받았기 때문에 도의, 도리, 의리를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키우시려면 절반씩 절반씩 줄여서 좀 인의롭게 '너 이러면 깡통 차.' '이러면 뭐가 어때.' 하지 마시고, '너도 울어봐야 우는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고생을 해봐야 고생한 사람의 심정을 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절약해서 잘 해나가자' 고 말하면서 사랑하면서 뜻으로 이렇게 관해 나가세요. 또 만약 잘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세요.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전기처럼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관해 주면 그 자식한테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한 식구로 가설된 것 아시죠. 두루 부모라는 생각,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이어주는 가설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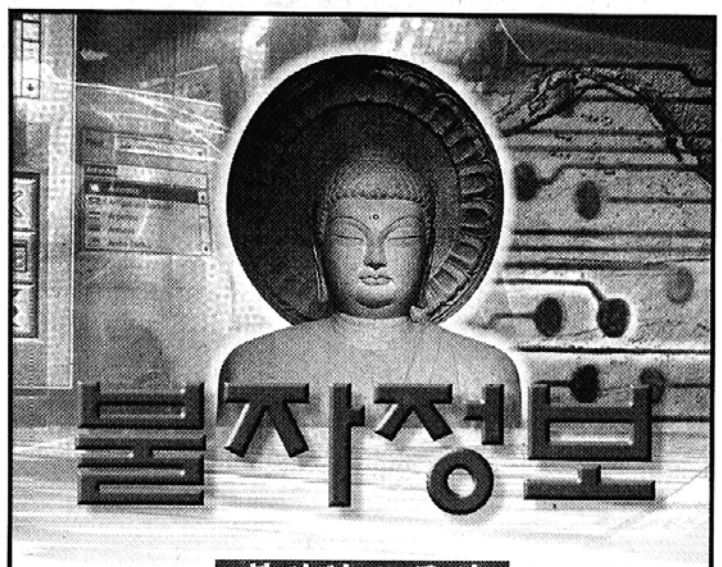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한 대로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실천으로 옮겨지고 '아 살기가 이만하면 좀 괜찮겠구나 아, 이렇게 살기가 쉬운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갈팡질팡했구나.' 이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그렇게 묘하고, 자기가 자불이고, 자기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못 믿어요. 자기 종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구요. 어떻게 나는 모든 게 미거하고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딴 그림만 보고 딴 이름만 보고선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공부하세요.

연기법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 공부를 하는데 먼 곳에 사는 친척이 "아이구, 아무개야, 나는 이렇게 해서 죽게 됐어. 피가 멈추질 않고 이렇게 병원에서 봐도 어디서 그러는지도 모른대." 해서 "그럼, 알았어"라고 했을 때, 그 소리 듣자 마자 그 사람 몸체는 거기 있지만 마음은 이 걸로도 저걸로도 다 화해서 응신이 돼서 거기로 바로 갑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봇장도 없고, 벽도 없이 거기로 가서 바로 안에 들어갑니다. 영화에서는 문없이 그냥 쓱 들어가지죠?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한마음으로써 작용을 해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멈추게 되면 그 다음날 "전화하고 나서 바로 피가 멎었어." 이러면 "그래, 멎었으니까 인제 이렇게 이렇게 관해봐. 내 책 한 권 보내줄께."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나중에 책을 보고 그렇게 일상생활에 관하며 살아서 외국에서도 편안하게 잘 산대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자기가 진짜 믿으면 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서 딴 사람 말은 아주 잘 들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지 말이예요. 자기가 자기 소중한 줄 알아야 자기가 소중하게 되고 남들도 소중하게 봐요. 그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내 집에서 사는 강아지도 내가 발길로 툭툭 차면 남들도 툭툭 차게 됩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거쳐서 인간까지 되도록 이끌어 가는 자기인데 왜 못 믿어요. 그게 보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진짜로 믿고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무도 잎새 하나도 버리지 않고 뿌리에 매여 있습니다. 아시죠? 이 잎새 하나도 버리지 않고 뿌리에 매여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한 생각을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 됩니다
내가 가는대로 법이 되어야지 끌려다녀서야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당뇨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의단요법·무료시술
치료비 전액무료
※ 의학적 완치사례 공개 ※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잠이 쏟아진다!
■ 잠시 앉아만 있어도 잠이 쏟아지고 힘이 샘솟는 「비아그라」보다 더 신비한 「건강요」와 「한방베개」탄생
만약 2주간 사용불만시 100% 환불!!
전기사용무. 온돌침대겸용.보관간편
수신자부담/080)721-8858 세광산업(주)
-7일사용후 입금가능합니다.-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강좌

수맥강좌안내
1.신비의 추·L-로드
2.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수맥차단제 판매 ₩10,000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주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쪽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
◇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
- 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학교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불광사,승가대학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구인

말법시대의 중생을 교화하여 구제하고 어려운 시대의 경영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무후무하고 상상을 초월한 지혜방편을 마련하고 **관심있는 스님, 포교사, 신심이 돈독한 불자들을 초빙**하오니 많은 연락바랍니다.
02)579-0102,0103
011)217-9223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32)868-2989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2분)
02)359-7766

경주시 황용산 토굴에 사는 비구승입니다.
삭발을 위해 **천도재, 49재, 기도 및 법회 보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이나 뜻있는 불자은 도움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1)773-8640
동로 합장

지장기도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1)508-6050
범어사 **지장암**

모 집
불교미술(불화)
남·녀 문화생 곡명
02)388-6004
011)351-1688
한국 정통 불교미술원

구 직
사찰 운전
종무 입주원함
53세 충청도
박처사
02)444-9348
019)334-3388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귀하
■ 사찰명 : 용화사
■ 위 치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2리 산 1
■ 주 지 : 강 청
위 사찰은 귀 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2. 19.

기타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컷본 판매◆
화엄경(80권)=1,400,000원
법화권(7권)- 170,000원
사 교(7권)-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2)962-6477 처 사

현대자동차 신차판매 안내
스님과 불자님들의 차량문제
"믿고 맡겨 주시면 불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원응 곽영순 과장
대표전화 : (053)627-6616
휴 대 폰 : 011-509-9456
호 출 : 012-494-6181

귄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51)441-0089 달마사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회향암
혜월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벽지 ◑ 바닥재 버티칼·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줄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전 통 황 토 방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순수 황토만으로 시공하며 장판을 깔지 않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며 도배나 화학제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음.
금강황토 산업 032)427-7899/016)360-2236
FAX 032) 427-5634 지정 합장

정신병 신병 집중치료
환자 및 가족비밀 절대보장
1.약물 치료가 아님
1.가정에서 관리 어려운 환자
1.요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1.병명없이 아픈 사람
1.돈을 마구 쓰며 구타를 일삼는 사람
1.신병 들린 사람
본 스님은 27년간 수도한 분
묵계사 고찰정법 기도도량 지리산 명당
0595)884-1382~3
011)599-9144/011)883-9144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수양·병치료
· 양로원 성격의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는 최적의 수양 기도처로써 특히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환자들에게 친부모처럼 모시고 기도와 침술로서 완치시킴.
※침구, 숙식제공, 동참기도
※가격 : 입실 보증금 1,500만원 (월세로도 가능)
※위치 : 동대문구 전철 5호선 장안평역 3분거리
만불사 수양원 02)2245-7075

사찰안내

사찰 운영안내
◇위치 : 대구 달서구
◇법당 : 20평 ◇요사 : 20평
◇가액 : 전세 1,300만원
◆시설비 없음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옆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011)671-5161

◆ 토굴팝니다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 지 : 90평
◇ 건 평 : 15평(황토흙방 3)
◇ 가 액 : 3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18)621-6969

사찰(급)안내
네팔로 급히 출국하므로 급전세합니다.
※입주 즉시 법회 가능※
■사찰명:경주 무학산 성불암 토굴
■대지 : 200여평(산신당+용왕당) 합1개
■건물 : 대웅전 내 방2개, 주방, 전체 기름 보일러 목욕 샤워시설, 주차장 완비 전세금 1,800만원, 답사후 절충
011)543-4275/017)558-3450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774
◆ 대지 : 2000평 내에 목조기와 단층주택 큰방 4칸 (이중창방범창도 있음)
◆ 법당 : 임법당 1칸, 삼존불, 탱화 4점, 현판 및 넓은 마루도 있음
◆ 법당 신축부지도 있음
◆ 가격 : 시설집기 일체포함 총 3,600만원
0451) 641-7569

안성 사찰부지
◆ 특징 : 고시원,교육관,실버타운지 다용도최적토목공사완료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저수지 및 국도접
◆ 평수 : 합 1,500평(다섯필지로 분할도 되어 있음)
◆ 가격 : 해외이민사정상 평당 현시세 70만원이상을 40만원정도에 급매함.
02)2281-1515

포교원 안내
◇ 위 치: 부산 온천3동 수덕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 액 :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1)311-3744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 당,요사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 법당 : 18평 ■ 요사 : 50평
■ 부지 : 65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위치 : 통영시
◆부지 : 1,180평
◆법당 : 25평 ◆요사 : 25평
◆가액 : 답사후 절충
◆ 특징 :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시내에서 차편 5분 (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층건평 : 83평
- 법당, 사무실
- 요사채 방13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 직접면담(급매) ※
0336)643-9051
012)925-6118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방어진 시외·시내 중점 최요지
◆ 법당 10평,거실 10평, 주방 5평 화장실 1개
◆ 차량봉고 15인승, 입주즉시 법회가능
◆ 전세금 : 250마원(매월 40만원)
◆ 가격 : 합 1천 3백만원 (시설비 포함되어 있슴)
016)567-837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 미촌리 만월암 밀양에서 16분 거리
◆ 대지 : 103평
◆ 건평 : 22평 신축건물 스라브 시설완비
◆ 가격 : 3천 9백 (등기필)
0542)371-1306
0542)372-5040

포교당 운영하실 분
◆ 위치 : 동래구 온천 3동 (부산 백화점 맞은편)
◆ 법당 : 71평
◆ 4층 건물에 3층,방 3개,주방시설
◆ 특징 : 시설비, 보시함, 에어콘, 온풍기 설치 되어 있음 주차시설 완비, 교통이 편리함
051)505-0300

급,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성덕면
◆ 부지 : 소나무 숲속 370평
◆ 법당 : 콘크리트 39평
◆ 요사 : 방2,거실,주방30평
◆ 기타 : 불사중 동불발견
※ 김제시 10분, 만경읍 5분, 전주시 40분거리
◆ 가격 : 급매 칠천만원
0658)542-585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밀양에서 25분거리)
◆ 평수 : 242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개, 차량진입 가능, 약사여래 부처님, 미륵존불,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슴.
◆ 가격 : 1억 2천(절충가능)
0527)391-5360

사찰 안내(급)
이민으로 급히, 현시세 1/3가격으로
◆ 위치 : 충주댐 입구 원효종 "불암사"
◆ 대지 : 700평(진입로 포함)
◆ 요사채 : 34평 (교화당, 주방, 방6개, 현대식 사워장)
◆ 법당, 산신각, 석굴암 합 34평
◆ 부속물 : 5층석탑, 석가모니 석불상, 해수보살 좌불석상
◆ 발경장 하실 분 2,000평 - 3년(300만), 5년(500만) (귀농인 정착 희망자 우대)
0441)848-1766/019)485-1766
0431)211-9546(자택)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2천 5백만원 (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사찰(급)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치 건평 100평)
◆2층 -법당 / 1층 -요사채
◆가 액 : 3억 5천(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 ● ● 사 찰 안 내 ● ● ●
좌청룡 우백호가 격을 이루어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터이며 산과 호수 계곡이 기를 이루어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 그대로 조화를 이룬 사찰터 입니다.
· 위치 : 천안 독립기념독립기념과 인접지역 · 매가 : 7억원(절충가함)
· 건물, 토지내역 및 특징 : 대지 : 300평, 전 : 22,000평, 임야 : 20,000평 - 국임대 : 28,000평-현대식 3층건물 1동(100평)
· 밤나무, 감나무, 호도나무, 잣나무등 유실수 다수
· 전화 및 전기시설 완비 · 교통 편리지역 · 현고시원성업중
· 대지 : 79평
· 건평 : 200평(12세때 방 23개)4층건물(지하 1층,지상 4층)
· 법당 : 15평(삼존불,후불탱화,신중·산신·용왕 탱화)
· 위치 : 안산시내 중심지역
· 특징 : ①분교설비타운으로 기획된 사찰로서 세대별로 불자님들께 분양 가능하며 현재 사찰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됨②인구 밀집지역으로 포교최적지임③교통편리지역(서울 시청기준 45분거리)
· 매가 : ■ 오백만원((융자금 및 보증금 별도)
· 전세 : ■ 사백만원
⊙전국 사찰 및 포교당 다량보유하고 사찰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2) 736-3578~9/ 휴대폰 011) 789-2255/ FAX 02) 739-4603 **금 강 기 획**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

(생활)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 경신작업을 추진해 내년 3월까지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회사·백화점 등 공공 장소에 설치된 무인 자동 발급기를 통해 시간에 구애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왕따 신고 1588-7179

(교육) 교육부는 집단따돌림 대상 학생들의 신고 및 상담을 위해 전국 1백80개 지역교육청과 연결되는 단일전화(1588-7179, 친한친구라는 의미)를 2월 22일 개통했다.

"한국의 소리를 찾습니다"

(환경) 환경부는 자연의 소리, 인공의 소리, 동·식물의 소리등 각 지역별로 남기고 싶은 우리의 소리 100가지를 연말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뒤 내년에 이를 녹취, 음반에 담아 유래·사연등을 실은 해설집과 함께 보급키로 했다.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금융) 금융감독원은 2월24일부터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1천13억원에 대해 주인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금감원은 1만원 이상 계약자에게 주소로 우편안내 통지문을 보내고 1만원 미만인 계약자에게는 보험설계사의 방문이나 전화로 지급을 알리기로 했다.

7일부터 'TEPS 강좌'

(방송) EBS-FM은 'TEPS 강좌'를 7일 신설해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한다.

TEPS는 서울대 어학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라디오 TEPS'는 현재 TEPS 시험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송 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한국 1백년…'

MBC-TV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15분에 역사교양 다큐멘터리 '한국 1백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를 방영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지나온 1백년간의 의식주 등 구체적인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인구의 변화 등 사회변천과 가치관의 변화를 조명해 나간다.

3일 자연다큐 '동강'

KBS-1TV는 3일 밤10시 토종 물고기 '쉬리'와 영월 동강의 4계절 생태계를 촬영한 자연다큐멘터리 '동강'을 방영한다. 백룡동굴의 비경과 미국에서 들어와 토착화된 무지개 송어의 번식지도 함께 공개된다.

■ 종이컵·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아난타의 재활용정신 배우자"

썩지않아 환경파괴 주범…눈앞의 편리함 좇지말아야

〈법구비유경〉에서 '아난타는 자신의 새 옷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누더기 옷은 옷잇으로, 헌 옷잇은 베갯잇으로, 헌 베갯잇은 방 깔개로, 헌 깔개는 발걸레로, 헌 발걸레는 마룻걸레로, 헌 마룻걸레는 갈기갈기 찢어 진흙과 섞어 반죽해서 벽을 바르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전단향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쇠로 된 발우만 사용토록 할 정도로 재사용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승가의 대중생활. 절약과 근검이 계율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당시의 생활상은 오늘날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대비된다.

매년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약 38만 t (하루 1천35t). 문제는 이 제품들이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쓰레기 대란과 자연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4천억원의 자원이 낭비되고 쓰레기 처리비만도 1천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환경피해 복구비까지 합치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감소책은 환경보호를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10평 이상 유통업체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가 시행됐으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3개월동안 과태료가 없는데다 돈을 받고 쇼핑백을 판매할 경우 고객들의 항의를 우려해서다. 이에따라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첫날인 2월22일, 백화점에서는 여전히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해 이 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우선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팔 때 그 가격이 현실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만 따져 가격을 10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못해 사용을 자제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최고 3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과태료 액수도 대형 유통업체의 규모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0% 이상 회수, 재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도 필요하다.

소비자들도 이젠 의식을 바꿔야 한다. 편하다고 일회용품을 계속 쓰다가는 더 큰 환경비용을 물어야 하고 환경파괴에 의한 부작용도 감수해야만 한다. 장바구니를 들고 백화점에 가는 일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물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적게 쓰는 것의 공덕을 알고 소박·검소한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낭비를 없애는 것이다.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 절약(Reduce)운동 등 '3R 운동'의 종착역은 바로 검소한 생활문화의 정착에 있을 것이다.

〈일회용품이 썩는 기간〉

▲스티로폼, 알루미늄 캔=500년 이상 ▲일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병, 일회용 칫솔=100년 이상 ▲일회용 컵, 일회용 나무젓가락=20년 이상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환경전문가들 정부 환경정책 부정평가

환경-경제정책 통합기구 설치 최우선 과제

우리나라의 환경전문가들은 정부의 환경정책 수행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에 따르면 대학교수, 환경정책 담당공무원, 민간환경연구소 연구원 등 환경전문가 1백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현 정부의 환경개선 노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정부의 환경개선 정도에 대해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변화없다'(47.0%)거나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41.1%)는 견해를 보였다. 현정부의 지난 1년간 환경정책 수행만족도에서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등 부정적 평가가 68.2%에 달한 반면 '만족'은 2.0%에 그쳤다.

이들의 66.2%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현정부가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현정부가 환경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극히 비관적인 전망도 26.5%에 달했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행정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환경 및 경제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개발 국가위원회'의 설치(67.11%)를 우선 과제로 뽑았다. 이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46.3%)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44.9%) ▲물관리, 자연환경보전기능의 통합(22.1%) ▲환경관련 법제의 강화(21.5%) ▲환경오염 감시 및 조사(19.5%) ▲환경정보화를 통한 정보공개(18.8%)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14.1%)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아동학대 상담전화

(02)336-5242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며 언제나 가엾이 여겨 뜻대로 먹어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아난사사경〉

아동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린이보호회(회장 이배근)는 2월 22일부터 20여명의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 24시간 어린이학대 상담전화를 받고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 학대 예방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단체는 또 상담원을 직접 학대받는 어린이의 집에 보내 정도가 심할 경우 어린이를 보호시설로 데려와 숙식과 치료를 제공하고 어린이 전문 보육사를 배치해 상처를 치료할 계획이다.(02)336-5242

시론

복제소 '영롱이'



김성규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의 윌머트 박사팀에 의한 체세포 복제양 '돌리'의 발표로 세계가 들끓은 것은 1997년 2월의 일이었다. 그 후 미국, 일본, 뉴질랜드에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였고,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체세포 복제 소 '영롱이'를 탄생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우리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며, IMF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복제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건은 47년 전인 1952년 미국의 브리그와 킹이 수정란 세포를 떼어 클론 개구리를 탄생시킨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비해 복제 양 '돌리'는 체세포를 떼어 내어 복제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복제 양 '돌리'는 몸의 한 부분에서 떼어 낸 체세포를 사용하였다는 데 과학자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체세포를 사용하여 복제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생식세포를 사용한 복제와 비교해 보면 수 천 배나 많이 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0억 되는 지구상의 인류의 수를 몇 년 내에 수십 배로 불려놓을 수 있으며,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도 우수한 형질의 동물을 수십 배 만들어 낼 수 있다. 생식세포의 복제에서는 성장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므로 모체와 같은 형질로 될 확률이 매우 희박한데 비해, 성숙된 체세포의 복제에서는 모체와 거의 같은 형질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구상에 멸종해 가는 동물을 부활시키고, 희소 동물들을 증식시킨다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인간의 복제가 현실화 된다면 지구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될지도 모른다. 인간복제 문제는 엄청난 사회,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간 복제 연구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인간복제 과정에서 인체 세포 사용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럽 여러 국가들도 '생물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복제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 이 복제 문제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던 원자폭탄에 이어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후 원자폭탄은 원자력발전으로 이어져 인류의 복지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 "생명공학은 발전할 수록 좋다 수용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문제다"

이와 같이 복제 문제도 복제의 부정적인 면을 인간들의 이성과 지혜로 잘 극복한다면 엄청난 자원의 생산으로 인류복지에 큰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까지 생물의 증식 방법이 생식세포의 수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비해 체세포의 수정으로 생물의 증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과학의 발전에 의한 생물 증식 방법의 확대라는 점에서 과학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

돈이 많이 있다고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을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학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부함과 경제적인 풍요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성품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전 인류가 생명존중 사상이 철저한 불법의 바다로 귀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과학은 발전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것을 수용하고 바라보는 인간들의 성품이 문제가 될 뿐이다. 모두에게 보살심이 가득하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들 무슨 문제 이겠는가. 萬古長空 一潮風月.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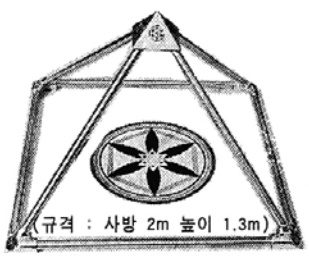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梵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기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분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
수정 피라밋 히란야!



(규격 : 사방 2m 높이 1.3m)

재질순동 천연수정, 히란야 10개 부착, 대형코팅 히란야 및 고급 기에너지 발생 테이프 증정~!
* 피라밋 히란야「의료용 '氣' 발생기구」: 특허청 의장 특허등록 NO. 204454, 223495, 227171, 227172, 227173
◆ 피라밋과 히란야 사용시 원인불명의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치매예방 및 호전이 가능하고 체질이 급격히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정신적으로도, 병고에도 너무힘들때는 옥을 같이 사용하세요!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심장병, 당뇨, 뇌졸증(중풍), 동맥경화등의 순환기장애에는 90% 이상의 효과. 제일 못하다는 신경통에도 60%의 확율입니다. 50%의 효과면 선약이라고들 합니다.(한방의 세계적인 권위인 북경중의병원 임상보고서)
제 옥목걸이, 반지, 팔찌, 108염주, 단주, 침선용옥방석, 환자용 옥폄질매트, 품 침구류, 복대, 무릎대, 옥바늘의 기초화장품, 녹차잔외 옥도자기
신제품 옥분 108염주 (10mm알, ₩60,000) 목걸이 겸용 옥분 혼합제품, 무거운 것을 싫어하시는분 적합,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용, 마음자리를 잘 볼수 있고, 탐진치의 瞋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 옥에는 기(氣)옥과 맹물같이 기가 안나오는 벌옥이 있습니다. "옥을 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하면 그 옥은 이미 기옥이 아닌 벌옥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체크해 보셔요.
서울옵지로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범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 전화 ■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 FAX : 0343)445-3370

대불련 새내기 환영준비 바빠요

서울·경남등 24개 지부 다양한 행사
민요공연·불교강좌·장기자랑 '눈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산하 지부들이 3~5월까지 유명 강사의 공개강좌등 신입생포교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대불련에는 24개 지부, 173개 지회 등이 개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불련 최소 단위인 '대학생불교동아리' 즉, 지회에서의 새내기포교는 중앙집행부와 관할 지부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다.

대불련 중앙집행부는 각 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99년도 신입생 포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포교〉를 최근 발간하고, 지회별 10부씩 배포했다. 40쪽 분량의 포교책자는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나에 대한 고찰) △주변 조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불자로서의 삶 △지부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대불련 중앙집행부는 홍보포스터도 제작했다. 대불련은 또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체'로서의 대불련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문양을 개발, 세 가지 홍보포스터도 제작했다. 홍보포스터는 천리안에 개설된 '대불련포럼(JGKBUF)'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지부에서 다운로딩(가져오기)해 이용할 수 있다.

경남지부(지부장 이항로)는 3월 27~28일 '새내기 첫걸음'을 마련한다. '대불이의 불교알기'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첫걸음'에는 신입생들에게 불교와 대불련을 설명하고, 경상대학교 등 경남지역 8개 대학교의 회원들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놀이들이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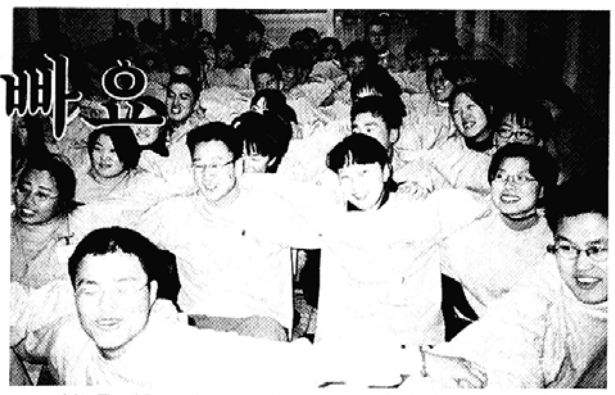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성만재)는 4월 4~5일 동화사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발돋음 강좌 '새내기들과의 가출'을 개최한다. △법명스님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 △나의 곁에 있는 것은 △야외 자자 포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새내기…'은 대학생들이 문화적 전통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서울지부(지부장 이승철)는 5월 1일 '새내기와 함께하는 프로포즈'를 개최한다.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바람직한 청년불자의 이상을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불련 소개 △민요공연 및 따라 배우기 △풍물패 축하공연 △새내기 장기자랑 △법명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레크리에이션 △대불련 가요제 대상수상자 공연 △지회별 소개 및 서울지부 어우러지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외에도 광주지부(지부장 양문승)에서 4월중 '불교입문강좌 및 대중교양강좌'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강릉·경기·공주·제주·목포등 21개 지부의 '새내기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대불련 한승희회장은 "95년도부터 종교동아리에 가입하는 신입생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새내기를 맞는 중앙집행부, 지부 그리고 지회의 행사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교를 배우며 우정을 다져요. 대불련 서울지부 새내기 프로포즈에 참가했던 신입생들의 즐거운 한때.

명사들의 건강비결 ⑥



이 병 주 〈동국대 명예교수〉

"건강비결이 따로 있나.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 잘자는 것이지."

이병주 박사(78·동국대 명예교수)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만큼 좋은 '보약'이 없다고 말한다.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강사시절 시작한 새벽 산행이 이 박사의 건강비결이다.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되어버린 새벽산행으로 지금도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관리는 평소의 생활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들을 삼가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노력이 건강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요령은 너무도 평범한 수단인 영양 운동 휴식의 조화입니다. 소식이 약보이고 운동이 삶의 활력소가 되며, 휴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저장입니다."

저녁 9시 취침, 새벽 3시 30분 기상, 산행, 소식이 이 박사의 하루 건강관리. 또 매주 일요일에는 북한산 승가사를, 1년에 한번은 설악산 대청봉을 오른다. 물론 사찰에 들러 마음닦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마음의 밭을 잘 가꾸면 신체도 건강해진다는 것이 이 박사의 정신건강론이다.

50년째 새벽산행 지속…잠도 잘자
영양·운동·휴식 조화가 건강비결

이 박사가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4년, 권상로박사로부터 두시언해를 배울 때였다. 공부시간은 새벽 5시. 동대문에 살고 있던 이 박사는 새벽4시30분에 일어나야 권상로 선생이 살고 있는 돈암동까지 갈 수 있었다. 낮에는 강의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 했던 이 박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러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힘겨워하는 나를 보고 권상로 선생은 '그렇게 체력이 약해서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학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평생 운동습관을 갖게된 동기입니다." 이박사는 두시언해를 공부했던 8개월 동안 아침운동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팔순을 눈앞에 둔 이병주박사는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이 넘치는 모습이다. 꼿꼿한 허리, 맑고 또렷한 음성, 밝은 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박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권상로 선생님의 덕택이다"고 고마워했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봉화산수련원 '한문서당' 최우수

제1회 전국 청소년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선·발우공양등 27개 강좌 인성교육

봉화산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의 한문서당 수련프로그램이 2월 9~11일 '체험·참여를 통한 미래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강원도 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진규씨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 단체등 관련기관에서 총 100여종의 청소년프로그램이 응모, 경합을 벌였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봉화산청소년수련원의 한문서당 수련프로그램은 '발우공양' '반야심경 외우기' '참선' '예참' '자세 바르기' 등 27가지의 수련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규원장은 "한문서당 수련프로그램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사에 참여한 5백여명의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봉화산수련원은 상금 2백만원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 환경보호, 인터넷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종욱 기자

청교련 붓다의 메아리 동대부고 사물놀이 갈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광명스님)는 2월 21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제48회 붓다의 메아리'를 개최했다.

수국사 학생회, 영파여고·동대부고 불교반, 성불·해연 학생회등 불자 3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풍물, 탈춤, 꽁트, 허슬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동대부고 학생회의 사물놀이는 청소년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광명 스님은 "붓다의 메아리가 청소년들과 동문들의 단결된 한마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는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포교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BS '거룩한 만남' 4백회

7일 능인선원서 기념공연 등 행사

성금 모금 방송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행을 펼쳐온 불교방송의 최장수 프로 '거룩한 만남'(총연출 진영조PD)이 4백회 특집을 맞아 7일 오후 2시 능인선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나누는 마음이 세상을 밝힙니다'란 제목으로 열릴 이번 행사는 동화스님(중요무형문화재 50호)의 바라춤 공연을 시작으로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연주, 4백회까지의 성금 수혜자들과의 만남의 시간, 심진스님과 김영임씨의 축가, 작곡가 유승엽씨의 오카리나 연주 등의 순서로 꾸며진다.

91년 4월5일부터 방송된 이 프로는 그동안 24억원의 성금을 모금해 매주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비롯, 소년소녀 가장 등 다양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다. 진영조PD는 "이 프로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이들이 많다는 사연에 보람을 느낀다"고 4백회를 맞은 감회를 털어놨다. 이날 행사는 12일 오전9시5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새싹프로 교계후원 절실"

BBS '룸비니 동산' 제작 한지윤PD



◇룸비니동산 제작팀. 사진 오른쪽에서부터 한지윤PD, 진행자 자용스님, 도우미 박미정씨.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을 지키는 PD가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5분부터 55분간 방송되는 불교방송 '룸비니 동산'의 한지윤PD가 그 주인공. 지난해 9월부터 이 프로를 맡아온 한PD는 재정난으로 인해 제작비 지원이 전혀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새싹 불자 포교라는 원력을 세워 어린이 포교 프로의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한PD의 가장 큰 고민은 프로그램 협찬과 후원이 없는 데다가 작가와 리포터 없이 혼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구성이 힘들다는 것이다. 또 출연료 때문에 유아 전문가와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출연자 섭외가 어렵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현재 이 프로는 진행자인 자용스님(평창 연화유치원 원장)을 비롯 이석순(수원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유탁(풍경소리), 조영애(한국 동화구연연구회 회장)씨 등 4명의 출연진들에 의해 구연동화, 찬불동요 부르기, 어린이들의 고민 상담 등 꾸며 지고 있지만 성격이 동일한 타 방송사 프로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PD는 스튜디오에 어린이들을 초대해 동요도 부르게 하고 전문 성우들을 출연시켜 구연 동화도 들려주는 등 현장감 있는 프로를 제작하고 싶지만 이 역시 현재 여건으로는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

한PD는 "새싹 불자들을 위한 방송 매체 포교는 어린이 인격 형성을 위해서 중요하다"며 교계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단 신

레크리에이션 2급 과정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송묵, 이하 포교회)는 제11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과정을 16일부터 6월말까지 개설한다.

지도자 과정에는 법회운영과 프로그램 작성법을 비롯해 불교교리, 민요부르기, 불교레크리에이션, 무대 꾸미기, 전래놀이, 오리엔티어링 등의 교육이 준비됐다.

포교회는 이번 강좌에서 어린이 지도자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집전의식을 봉행할 수 있는 불교전문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민요부르기'와 '집전교육'을 신설했다. 강좌는 매주 화·목요일 7~9시 마련된다.

연꽃노래잔치 4월 예선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이하 서울불청)는 4월 18일 불교문화교육관에서 제11회 연꽃노래잔치 예선을 치른다. 어린들에게 건전하고 밝은 찬불가 보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종목은 독창, 중·합창이며, 참가비는 독창 1만원 중·합창 5천원. 연꽃노래잔치 본선은 5월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02)730-6018

금광사 청년회 28일 창립

광주 금광사 청년회(회장 김장욱)는 28일 오전 10시 금광사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금광사 주지 증궁스님, 조기동 신도회장, 천태종 전국청년회 이문수 회장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년회는 이날 '무등산 연합등반'을 2부 행사로 준비했다. (062)375-3191

大道無門 육신통 기묘년 유.佛.선 사상최초
계룡산 연천봉 도인 사명자 및 도통군자 대법회

선천도수 강하시대와 증감시대가 교체되어 15진주 사만다. 사성제. 사구계를 통섭. 지계수복자라! 도깨비를 깨우고 사군과 사역을 통섭. 구천을 평정하는 계론. 시론. 생천론. 예단경 大道心力通天 천안통. 타심통. 천리통. 신족통. 숙명통. 루진통의 경지를 얻어 안 이 비 설 신 의 도인. 선인. 진인 출현미묘법으로 유.불.선 삼교를 포용하여 생애의 죄업과 영생의 비법과 지옥의 영가해탈법을 얻는 정진대회를 乾과 坤의 잣대이자 坤의 艮方의 초점인 이곳은 天地人의 대운의 뭉친 계룡산 계룡면 갑사위 대자암옆 연천봉하 천하 대명산 명당이자 대통군자 진인을 배출하는 명산에서 사상최초로 산신제 및 천신. 지신. 인신. 육신통의 수행정진과 도인들의 법연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와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양의 천운과 더불어 전 세계에 국위선양과 명예를 빛낸 이 명산도량에서는 천복과 천문이 교체되는 낮 정오에 태양과 직접 33초의 광도를 넘어 99초안에 천안통을 즉시 시험하여 삼생의 업연이 소멸되는 과정을 지도하오며 옛 신도안의 도인들에 발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옛 선조인들의 전통적인 수련법으로 연성법인 원 각 방 해인도법은 대은하계의 환인 천제님께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날인고로 저승명단에서 제외되며 혼미해진 정신 잡신에 끄달리는 신병과 신출괴몰한 비법은 귀신도 알지못하는 비밀장이므로 弓弓乙乙 이 재기처 사담칠두락. 석정곤 우복동 어차장구의 근본인 육자대명 왕진언과 준제진으로 鬼를 부릴 불 환우불 미륵상생의 본 뜻을 깨달아 수준높은 도를 통하여 도인들의 저변에 자질향상과 도덕성회복으로 환경질서와 후학들에게 眞人의 근본으로 소원성취하옵기 바랍니다.

특별강설. 주역서문. 昭夫 박종호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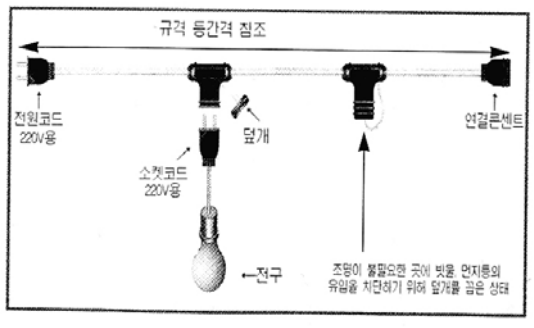
■고 문 : 정도아선생, 소산선생, 유성탁선생, 북한산 김용자박사, 민범 선생
■지 도 법 사 : 육해룡원장 임중산회장 설래장스님 혜광스님 철원약사사
■준비위원장 : 정창은사장
■신 도 회 장 : 정영도 ■약사회장 : 한숙자
■육신통회장 : 문반야심
■부 위 원 장 : 청주약사사 한문규 김성룡

●입 제 : 1999년 3월 8일(월) 亥시 ●회향 : 1999년 3월 9일(화) 亥시
●회 비 : 1박2일. 침식. 교통비. 일체포함. 일금3만원
●장 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위 대자암옆 연천봉하
●접수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태일 약사선원**
●전 화 : **02)821-6622. 923-3110. 016-239-3110**
●출 발 : 모자원고개. 보라매병원후문고개. 3월8일 오후 6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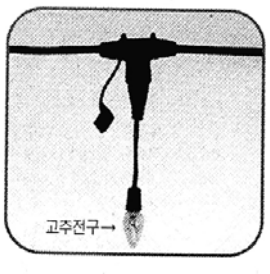
※계룡산 갑사 주차장 도착 입산하오니 각자 가실분은 가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시간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봉축행사 가로등·법당 기도등용 전기배선

귀의 삼보하옵고, 전법 도생에 여념 없으신 스님의
고귀하신 뜻에 합장 향배 올립니다.







▶ 규격 등간격
· 등간격 30cm, 50cm → 전체길이 25m
· 등간격 1m, 2m, 3m, 5m → 전체길이 50m
· 규격외 : 주문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 등 종 류
· 외부용 : 후로킹
· 내부용 : 팔각등 실크 후로킹

▶ 기 타 주 문
· 본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약속일에 맞춰 제작 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신 성 기 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

몰·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몰.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비람익이2개

건강 옥 염주
증 류 :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五福臨門 猛虎圖
용 도 액자용
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묘법연화경(전7권)
가격 : ₩ 140,000 (복장용)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3㎝

다포
기장 50㎝ 폭 33㎝
재질 면
가격 ₩ 800

수암옥 단주
가 격
₩ 45,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단주 열쇠고리
증 류 검정 빔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가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그림홈 건강매트
가 격
₩ 298,000
· 첨단 맥반석 코팅방법 원적외선 효과 체험
· 돌침대의 효과와 침대의 안락함 제공
· A/S기간 1년

재봉틀 박사
가격 : ₩ 43,0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홍삼
제조원 개성인삼 첨존조합
중 량 80ml/50포입
가격 ₩ 98,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게르마늄 이천도자기 쌀통
· 곰팡이 방지
· 쌀의 변질 보호
· 집안의 수맥 치단
정상가 ₩ ~~300,000~~
판매가 ₩ 198,000

사군자
가격 ₩ 120,000
최고급 양점
타불로이드 판 / 250폭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한국불교 총람 CD
가격 ₩ 60,000

날 개
가격 ₩ 9,500 (CD)

시나브로1집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만다라 양면 노리개
석굴암 부처님 像
디자인 : 만다라, 법륜
재질 : 순은 99.9%(12돈)
像진주2EA
가격 : ₩ 230,000

만다라 호신불메달
재질 : 18K (2.8돈) / 像진주
가격 : ₩ 280,000

법륜 호신불메달
재질 : 18K (2.4돈) / 像진주
가격 : ₩ 270,000

다라니 호신불메달
재질 : 18K (1.8돈) / 像진주
가격 : ₩ 250,000

12연기 호신불메달
재질 : 18K (1.8돈) / 像진주
가격 : ₩ 250,000

연꽃 호신불메달
재질 : 18K (1.8돈) / 像진주
가격 : ₩ 25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600,000

지상갤러리
작가 : 최재수(崔在洙)
한국 공모전특선 3회, 입선 3회
일본 국제공모미전 입선 1회
/일본 미전 특별상/국제교류 H.M.A전(백상갤러리)
KOREA H.M.A.회원 /일본 국제공모미전 회원
/국제공모미전 수상작가초대전(롯데미술관)
1 2 3 4 5
초대가 ₩ 120,000 / 고급액자 포함 ₩ 170,000

법회안내



무진장스님(동산반야회 법주) 9일 오전 11시 보리사 법회. (02)562-9939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6일 오후 3시 우리는 선우 선우토요법회. (02)2278-8672



철안스님(봉영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30분 인등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군인법회. 매월 세째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등산법회. (0346)571-0555



박원일법사(전 전국신도회장) 13일 오전 11시 화천사 법회. 18일 오후 2시 30분 파주시민회관 파주시청법회. (02)391-6344

이혜성법사(약사여래포교원)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8일 오전 10시30분 초파일법회. (062)263-506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3월4일 (목)

■**자비의 집 자원봉사단 법회**=자비의집 자원봉사단 법회가 오후 1시30분 열린다. (02)945-4200

3월5일 (금)

■**부산불교교육원 참선기초교실**=부산불교교육원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제24기 참선기초교실을 연다. 참선이론과 앉는 자세, 호흡법, 생활참선법 등을 지도한다. (051)466-4080

3월6일 (토)

■**선학원 춘계 선학강좌**=선학원 중앙선원이 제3회 춘계 선학강좌를 시작한다. 중앙선원 3층 대법당에서 4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좌선 실수와 〈선가귀감〉 강좌로 진행된다. (02)732-3327

■**길상사 주말 선수련회**=길상사는 7일까지 1박2일간 주말 선수련회를 실시한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입재해 일요일 오후 8시에 회향한다. (02)3672-5945

■**향일암, 오동도, 태안사 기행**=옛돌은 7일까지 무박2일간 향일암 일출, 오동도 동백, 곡성 태안사 등을 돌러보는 기행을 떠난다. (02)2266-1233

3월7일 (일)

■**금강메아리 불암사 산행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경기도 불암산 불암사로 산행법회를 떠난다. 오전 9시 30분 4호선 당고개역에서 집합한다. (02)772-9517

■**사자산 법흥사 순례**=터사랑은 사자산 법흥사와 무릉리 마애불, 단종의 애사 영월을 찾아 순례를 떠난다. (02)725-1284

3월8일 (월)

■**삼국유사 강좌**=한국불교연구원은 〈삼국유사〉 강좌를 5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법당에서 실시한다.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박사가 지도한다. (02)3411-6167

3월10일 (수)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사랑방 모임**=한국석불문화연구회 사랑방 모임이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가족아카데미아에서 열린다. '부처님의 상호이야기'를 주제로 이근후 회장이 발표한다. (02)760-5138

풍년·장수 비는 정월대보름

각 사암 방생법회 · 민속놀이 · 풍요제 행사



◇지역주민과 신도가 참석해 흥겨운 한마당을 펼치고 있는 천안 천불사 정월대보름 지산축제.

민족의 명절 정월대보름(2일)을 맞아 전국의 각 사암과 신행단체에서 전통과 문화를 되찾기 위한 각종 행사를 연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퇴색되어온 각종 전통문화를 되찾기 위한 민속놀이와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구광역시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2일 오후4시 경주 감포 나정리 해수욕장에서 제19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방생법회에 이어 달맞이 풍요재를 올리며 두 행사 모두 한해 동안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로 마련된다.

천안 천불사(주지 인경)는 2일 정월대보름 지산축제를 연다. 94년 처음 시작한 지산축제는 신도뿐만이 아니라 지산리 전 주민들이 참석, 풍물패를 앞세워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풍요제 및 당산제를 비롯 윷놀이, 점심공양 등을 함께 한다. 또 저녁에는 흑성산에서 달맞이 행사를 갖는다.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2일 대보름맞이 IMF극복 민속한마당을 펼친다. 민속한마당은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연만들기 등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노인들에게 오곡밥을 공양한다.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1일부터 2일 방등계단에서 탑돌이 법회와 사천왕기도를 봉행한다.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2일 정월대보름법회 및 석가탑 다보탑 탑돌이 행사를 갖는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게 시 판

♣ 인사

광동학원 △광동중학교 교감 신대식 수석교법사 김석희

♣ 알림

△보리수 불화공방=불화가 미숙씨는 2월 8일 종로구 진동 삼선빌딩 121호에 작실을 열었다. (016)234-7910

△선재방과후학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종합교육서비스로 선재방과후학교를 연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 30분~7시까지 운영하며, 초등학교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02)2282-1100

△장애어린이 무료상담=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유리어린이집은 발달지체아동을 위한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053)475-7733

△무료취업정보센터=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구인, 구직, 단순 노무직, 전문직 등 취업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하는 무료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 (02)852-0525

♣ 강좌

△불교문화센터 문화강좌=불교문화센터는 제26기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선이란 무엇인가, 금강경 등 불교강좌와 생활역학, 건강기공, 불교전통꽃꽂이, 요가 등 전통 교양 취미 예술분야 59개 강좌가 진행된다. 3개월과정. (02)703-0108

△청소년 문화교실=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단전호흡, 국악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노래교실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실 강좌를 연다. (051)405-5223

△물교기본교육=금강정사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 2회에 걸쳐 초심자를 위한 불교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수강료는 3만원이며, 실직자는 무료다. (02)893-2700

△신라의 건축과 예술=신라문화진흥원은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10주간 신라의 건축과 예술을 주제로 제5기 신라문화대학 강좌를 개설한다. 수강료는 6만원 (0561)746-1950

△아동사회교육프로그램=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피아노, 미술, 컴퓨터, 동화구연, 속셈, 글쓰기교실 등 아동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상은 유치부와 초등부. (02)817-8052

△영어독서 일기쓰기=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영어를 재미있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어린이 영어 독서 일기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571-2988

♣ 구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증소지자로 선임사회복지사는 경력자여야 한다. 또 총무와 노무기사도 모집한다. 3월 중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032)325-2161

♣ 모집

△노인·장애자 도울 자원봉사자=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과 재가장애인, 실직자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3)476-7700

△진주불교교양대학 초급신행반=진주불교회관은 불교교양대학 제13기 초급 신행반을 모집한다. 불교적 삶과 포교활동에 관심있는 불자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강의한다. 선착순 50명. (0591)747-0108

△도서실 책 후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이 유용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도서열람실 개설을 위한 책 후원을 받는다. (02)571-2988

♣ 화촉

△조계종 교육원 박용규 교육계장이 14일 오후 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이송원양과 화촉을 밝힌다.

△불교대구방송 박명한기자는 13일 낮 12시50분 대구 알리앙스예식장에서 차경화양과 화촉을 밝힌다.

△불교TV 뉴스팀 박실원PD가 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사당동 그랜드웨딩홀 2층 그랜드실에서 최종현씨와 화촉을 밝힌다.

종단소식

조계종

월정사 불우학생에 장학금



4교구본사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사진)는 2월 19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불우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을 각각 전달하고 격려했다.

동화사 상설포교사 추진

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2월 2일 설법전에서 대구지역 30여개 신행단체 소속 8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동화사는 신행단체의 교구등록을 촉구하고 동화사 상설포교사 배치를 약속했다.

은해사 본말사 행자교육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2월20일~22일 승가대학원 강당에서 '본말사 행자 정기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염불, 습의,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근본교리, 수행자예법에 대한 강의와 실수가 있었다.

태고종

강원교구 상반기 불사 수립

강원교구종무원(원장 백운)은 4일 오전 11시 춘천 석왕사에서 임원 및 간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8일 방생법회 봉행을 비롯한 상반기 불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단양분원 군에 백미 기탁

충북교구 단양분원(분원장 혜광)은 2월12일 단양군청 사회복지과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90kg을 전달했다. 쌀 모금활동에는 단양분원 산하 5개 사찰이 동참했다.

경남 종무원장 월봉스님

경남교구 지방종회(의장 산옹)는 2월11일 마산 종무원사에서 종회를 열고 신임 경남교구 종무원장에 월봉스님(마산 석봉사 주지)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천태종

중앙청년회 신년 하례식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2월21일 구인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구인사 강원 졸업식

구인사 강원 졸업식이 2일 인광당 5층에서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과 10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진각종

군법당에 2천만원 전달



통리원(원장 성초)은 2월21일 제75보병사단 군법당 호국철마사 낙성법회에 참석해 법당건립 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총화종

중앙종회 올 사업 심의

정기 중앙종회가 23일 오전 11시 수진사에서 개최된다. 이날 종회에서는 98년 결산 및 사업보고에 이어 99년 예산안과 신년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열반종

녹원 경남 종무원장 진산

경남종무원장 녹원스님(녹원정사 주지) 취임법회가 2월13일 김해 녹원정사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해곡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무원 산하 사찰주지, 신도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해동종

지역 종무원 원장 모집

총무원(원장 송산)은 서울·부산·광주종무원 등 전국 10개 종무원 원장에 대덕스님을 모신다. 또 미등록 사암 등록을 받는다. (0331)262-1577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大德스님을 모십니다

본 종단은 석가모니불을 교주로하며 원효대성화정국사를 종조로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대승불교 사상과 교리를 대중화, 현대화, 지성화를 이념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종단으로서 대덕스님을 모십니다.

아 래

서울종무원장 부산종무원장
대전종무원장 인천종무원장
광주종무원장 울산종무원장
경북종무원장 전북종무원장
전남종무원장 제주종무원장

을 모집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미등록 사,암 등록 받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전화 : 0331)262-1577,263-1353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참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주말 선 수련회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 오계 수계 등 불자에법.
♣ 장소 :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수련비 : 2만원

차수	기 간	대 상	회비
제5차	3월 6일(토)~ 7일(일)	일반인,길상사거사림회	2만원
제6차	3월13일(토)~14일(일)	일반인,길상사합창단	2만원
제7차	3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8차	4월10일(토)~1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9차	4월24일(토)~25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입재 /일요일 오후 8시 30분 회향)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별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소견(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친지나 본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 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公 告

귀의 삼보하옵고,
사중 스님들께 알립니다.

본 망월사 천중선원에서 동안거 결재에 들어갔으나, 선원대중 정진에 열중할 수 있도록 후원 소임자가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한 사중의 결재 준비미비로 더이상 정진하지 못함에 동안거 결재를 조기 해제 하였습니다.

이에 송구한 마음으로 사중스님들께 알립니다.

선원 대중일동

주말 참선방 안내

불자가 단기출가하여 대운스님과 함께 참선수행을 하며 입방중 승가 전통인 두끼의 발우 공양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간원합니다.

아 래

●일 시 : 매주토요일 오후7시입방
일요일 오전9시 방선 (회향)
※ 단기출가수행이므로 사찰기본의식(예불 공양 울력등)은 동참하여야 합니다.
●입방비 : 무료
●교 통 : 의정부시 북부역 토요일 오후5시 지장사 차량대기 출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중간 덕계리 저수지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경법회 안내
삼세제불의 정체이며 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경전을 우리 손으로 사경함으로 마음이 일심으로 모아지고 수행력과 공덕을 날로 증장된다고 하였습니다.
●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의정부시 북부역 오전 11시 차량대기)
● 회 비 : 무료임

전화 : 0351)863-1888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 71
지장사 대 운 합장

금산사 1400돌 기념 '미륵삼부경' 등 보시

미륵성지 금산사를 참배하는 불자들은 〈미륵삼부경〉과 미륵십선수계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개산 1400주년을 맞아 올해를 '금산사 방문의 해'로 정하고 참배객들의 신행 및 참배를 위한 각종 편의 방안들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금산사는 참배객 전원에게 〈미륵삼부경〉을 무료로 보시하며 '올바른 미륵신앙과 십선행' 주제 법회, 방등계단에서 미륵십선 수계식, 점심공양제공, 무료입장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금산사는 방생 장소 안내를 비롯 주변 사찰과 연계해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금산사측은 "개산 1400주년을 맞아 금산사를 참배하는 불자들을 정성스럽게 대하기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일정을 미리 알려주면 성심성의껏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사찰 홍보물 포교 '한몫'

역사·문화재 수록 무료 팸플릿 배포
수덕사·동화사 책 발간…타사찰도 준비

관광사찰이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는 사찰 안내책과 팸플릿이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는 포교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예산 수덕사, 대구 동화사를 비롯 각 사찰들이 연혁과 당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및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같은 홍보물은 사찰을 찾는 신도는 물론 초심자와 외국인들까지 사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 홍보 및 전법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업계획까지 망라한 홍보책 〈덕숭산 수덕사〉를 펴냈다.

이 책에는 수덕사의 역사 및 문화유산, 산내암자, 수덕사의 오늘, 역대고승의 발자취, 근역성보박물관이 컬러사진과 함께 엮었다. 이 가운데 역대고승의 발자취에는 수덕사를 창건한 지명법사부터 혜현법사, 경허·만공·혜암·벽초·원담스님 등 덕숭문중 고승들이 사진과 함께 수행이력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 책은 외국인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과 일문으로도 표기돼 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는 최근 사찰을 소개하는 책을 펴내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이 홍보책은 지난해 5월 성덕스님이 주지로 선출된 후 일반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작업에 비중을 두면서 처음으로 낸 홍보물이다.

60여쪽 분량의 홍보책인 〈팔공산 동화사〉는 동화사 창건 유래에서부터 당우, 암자, 성보문화재에 이르기까지 사찰 전모를 컬러사진과 함께 자세히 수록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있는 금당선원을 비롯 각종 당우들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통일약사여래석조대불과 부도암 등 6개 산내 암자도 간략하게 수록했다. 또 당간지주, 부도군, 불상, 비로암 삼층석탑, 보조국사등 고승들의 진영 등 성보문화재와 동화사 가람배치, 팔공산 산행안내까지 동화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책으로 발간된 사찰홍보물은 1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비해 영천 은해사, 경주 불국사, 양산 통도사 등은 팸플릿을 제작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최근에 팸플릿을 제작한 여주 신륵사 홍보물에는 연혁을 비롯 극락보전, 다층석탑, 대장각기비 등의 소개와 함께 가람배치도를 수록해 손쉽게 사찰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배우며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남 대흥사, 보문종 보문사, 부산 해운정사를 비롯 몇몇 사찰들이 사찰홍보책자 발간을 준비중에 있어 앞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사찰홍보물 발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 의정부 호암사



◇의정부 호원동 호암사는 1만2천여평 부지에 '연꽃으로 피어나는 염불도량' 불사를 진행중이다. 원내는 주지 혜우스님.

"지역불심 결집 기도도량 조성"

만불전 초파일 이전 완공
유아원·영탑묘원도 조성

의정부시 호원동 범골에 위치한 조계종 호암사(주지 혜우)는 '연꽃으로 피어나는 불국토 건설'을 염원하며 염불기도도량 및 유아원 영탑묘원 건립불사를 진행중이다.

1만2천평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호암사 불사는 32평의 현대식 법당, 40평규모의 기도방, 12평의 요사채 범굴의 만불전이 초파일 이전에 완공될 예정이다.

법당과 기도방은 8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범굴에는 1만불을 모신 만불전이 건립중이다.

또 초파일이후부터 2차공사로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중인 어린이 포교를 위한 유아원과 사부대중이 회향하는 영탑묘원을 3년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봉산의 혈이 뭉쳐진 의정부 호원동 범골에는 천상에서 지옥까지 모든 중생의 업을 소멸하길 발원하는 지장보살 대성신력이 깃든 업경대와 동자바위가 천연적으로 조성돼 있다.

그런만큼 이곳에는 예로부터 인근지역 주민들이 임진왜란, 6·25등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범굴(현재 만불전)에 피신하여 불단을 차리고 기도하며 무사히 국난을 극복했다고 한다.

호암사 창건은 고려말 우왕1년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범굴에서 3년간 기도하며 대업경륜을 이룩한데서 기원한다. 1960년 마을주민들이 임시법당을 건립한데 이어 이기현거사가 법당부지를 사찰에 증여했다.

1994년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탄성스님이 이곳을 방문하여 1천여명의 신도가 운집한 가운데 '이곳을 조계종 최고의 염불기도도량으로 건립해 불교가 중흥토록 하라'는 교시와 함께 불사가 시작됐다. 이후부터 주번의 임야를 사찰부지로 매입하여 지난해부터 불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종단등록도 마친 상태다.

호암사 약수는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석간수이므로 물맛이 좋을 뿐 아니라 위장병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의 각양각처에서 기도불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주지 혜우스님은 "96년부터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찰 공개운영을 하고 있다"며 "호암사가 불교를 중흥시키는 조계종 최고의 기도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심으로 불자들과 용맹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0351)873-1386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총지종 역삼노인복지관 운영

강남지역 첫 시설…노인진료·보호·복지사업 담당

총지종은 2월 26일 서울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은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여익구) 개관식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총지종 김녹정 종령, 김총지화 재단이사장, 안효강 법장원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등 3백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강남구 관내 최초의 노인복지 전문시설로서 대지면적 3백61㎡, 연건평 7백30㎡,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들어선 이 노인복지센터는 주로 경증의 노인질환을 앓는 고령자를 위한 물리치료서비스 등의 주간보호사업과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문화공간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2일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가는 이 시설은 9천만원의 강남구 보조금을 비롯 재단 자부담 및 후원금, 사업수익금 등 올해 총 2억4천7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동화사 개산대재 연다
올 사업계획 발표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2월 12일 설법전에서 교구종회를 갖고 98년도 결산보고 및 99년도 예산, 신년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신년도 사업계획은 동화사 개산대재를 비롯 팔공산연등축제, 산사음악회 등. 이가운데 개산대재는 본말사간의 유대강화와 교구의 정체성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화사는 개산대재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교구 정기사업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동화사는 행자교육을 정례화하고 종무원들의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승재가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남양주 호국철마사 낙성

경기도 남양주 75사단 호국철마사(주지 법사 한주회)는 2월 21일 삼존불 탱화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선사 회주 월운,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대각사 조실 도문, 봉선사 주지 밀운,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비롯 정남균 사단장 등 장사병 불자 6백여명이 참석했다. 호국철마사는 앞으로 법당 진입로 포장공사와 108계단 조성 등 부처님오신날까지 조경불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호국철마사 낙성식을 계기로 사단급 이상에 법당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

미주현대불교 UN NGO에 가입

미주현대불교사(대표 김광선)는 최근 국제연합(이하 UN)의 비정부기구(이하 NGO)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미주현대불교사는 UN 총회안건 및 NGO정책의 결회의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NGO는 UN의 비정부, 민간단체에 대한 의교를 전담하는 기구. UN은 이 기구를 통해 전세계에 UN의 활동과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NGO에 가입된 회원은 총 1천6백여개이며, △세계평화 △국비축소 △인권문제 △개발분제 △환경문제 등 NGO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대둔사 해남불교대학 개원

해남 대둔사(주지 보선)는 6일 오후 4시 해남불교대학(학장 은성·총무국장) 개원및 입학식을 봉행한다.

해남읍 고도리 포교원내에 위치한 해남불교대학은 1년과정으로 1백명을 모집하며 부처님의 생애, 불교학 개론, 사찰예절 등 불교기초교육과정이 진행된다. (0634)534-3355 김중근 기자

사찰 납골당 융자 '그림의 떡'

은행 "종교재산 담보불가" 대출기피

납골당 융자제도는 '그림의 떡'인가. 보건복지부가 장묘문화 가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골당 지원 사업이 은행의 무리한 담보요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찰의 경우 종교재산은 담보물이 될 수 없다는 은행측의 원칙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크다.

사찰 경내지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연천 오봉사주지 서진스님의 경우 복지부에 의해 융자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막상 은행에서 대출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추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서진스님은 98년 초 개인단 2천5백10기, 가족단 334기 규모의 납골당 건립계획을 세우고 8월 복지부에 의해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 곧바로 중소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 4억3천5백만원의 융자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논·밭·임야와 5가구 이상이 전세 입주한 주택, 종교재산은 담보가 될 수 없다는 은행의 까다로운 담보조건 때문이다.

서진스님은 "정부의 권장사업인데도 융자받기가 어려워 사실상 사찰은 융자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Avalat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코스
§ 아봐타 코스는 7~8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 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전화: 02)396-2736 휴대폰: 016)228-2358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⑤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꼭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봉영사 군사지역 해제요구

"아파트 신축허가는 해주고…" 편파행정
신도 · 주민상대 '5천명 서명운동' 펼쳐

전통사찰이 10여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편파적인 군(軍) 행정으로 신도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봉영사(주지 철안)는 85년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임의로 경내지 전체(5천여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각종 불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봉영사는 94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군은 봉영사(1㎞)보다 부대에 근접한 곳에 아파트신축지(600m)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편파적인 행정이란 목소리가 높다.

봉영사는 최근 약수터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개축하려다 또다시 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봉영사와 천접산약수보존회는 1월말부터 신도와 주민들을 상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5천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2천여명이 서명했으며 이달 말께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봉영사가 각종 불사에 제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4년 대웅전 재건축 과정에서도 10여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대웅전과 명부전을 철거하고 대웅전내에 명부전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군의 동의을 받아 불사가 이뤄졌다. 또 지난해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군의 개입으로 복구가 늦어지지는 등 그동안 수차례 군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찰측의 얘기다.

봉영사주지 철안스님은 "전통사찰을 군이 임의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같은 지역에 고층아파트건설을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주민들의 심신수련장인 사찰은 해제해 주지 않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이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종교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이 봉영사 이외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종단차원의 현황파악과 대처가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봉영사를 찾은 신도와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깨달음의 강좌-100일 법문'

정토회, 14일부터 6월21일까지
스님 · 목사 · 시민운동가 등 동참

한국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스님, 타종교지도자, 환경 ·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 인류가 직면한 공동체 파괴 · 자연환경 파괴등 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법회와 강연회가 열린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100일 법문'을 개최한다.

지구의 위기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속에서 찾고자 마련되는 이번 '100일 법문'에서 법륜스님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8시 '실천적 불교사상'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 '반야심경-부정을 통한 절대 긍정의 세계' 등을 주제로 70회에 걸쳐 법문한다.

이외에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새 문명의 지평,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도문스님(대각사 조실), 근일스님(부석사 주지), 통광스님(칠불사 주지),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 청하스님(성륜사 조실)등 대덕스님들의 특별법석이 마련된다. 또 김동완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융희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청수교무(원불교 강남교당), 오태순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등 종교지도자와 환경 · 시민운동가들은 매주 토요일 3시 '상생의 시대, 새로운 문명의 열림'을 주제로 토요강연회를 개최한다. (02)587-8994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LA 동국 로얄대서도 훼불
명상실 봉안 불상 목잘려

지난 1월 5일 동국대학교 미국 LA분교인 로얄대학(총장 한진수) 명상실에 봉안된 불상 목이 잘려나가는 훼불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부서진 불상을 학교관리자가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불자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회장 제니퍼 리씨에 따르면 "저녁 강의 시간에 불상이 파괴됐다는 제보를 받고 명상실에 가보니 불상의 목이 잘린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다음날 불상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무단 폐기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학교측을 비난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사건 접수를 받은뒤 경찰에 신고, 조사에 착수했다. 훼불이 학교측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다"고 반박하고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북한문화재 지킴이운동 전개

불추위, 임원진 새로 구성…북에 비료 보내기 추진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이하 불추위)는 2월23일 조계종 포교원회의실에서 1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금강산순례단(6/2~6/5) 구성, '한민족공동체 더불어 살기운동' 캠페인, 북한 불교문화재지킴이운동 등을 통해 불교계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장기적 대북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해부터 전개해 오던 불교정책위크샵, 정기홍보물 〈나눔과 화합〉 발간, 비료보내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북한불교 및 불교문화재 현황조사, 남북한 불교지도자 상호방문 및 공동법회 개최 등 남북불교교류사업도 계속해 나간다. '북한불교문화재 1사찰(단체) 1문화재 지킴이 운동' 전개로 통일이후 불교문화재 보존 · 관리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총재를 비롯한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다. △총재-고산스님 △부총재-정련스님, 법등스님, 함종한 한나라당의원 △상임집행위원장-명진스님 △공동집행위원장-성조스님, 법안스님.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통도사 말사주지 인사 '물의'

배밭절 · 해남사 사찰접수 놓고 갈등

통도사가 일부 말사에 대해 주지 해임과 위촉장을 발부, 사찰 접수를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통도사 말사인 배밭절(주지 동주) 신도 70여명은 2월 21일 통도사 대웅전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10일자로 동주스님을 해임하고 사찰을 접수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배밭절 신도회는 호소문과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주지해임과 사찰 접수 기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울산 해남사(주지 범해)도 2월 24일 2백여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통도사의 일방적 주지 해임에 대해 항의했다.

이같은 사태는 배밭절과 해남사, 창녕 관룡사(주지 정안)와 울산 문수사(주지 향과) 등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의 상좌가 주지를 맡은 사찰에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찰은 "월하스님의 뜻을 따르는 일부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청하스님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찰을 접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도사 주지 월파스님은 "주지 명의로 해임장이나 위촉장을 발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월하스님은 3월16일자로 "개혁불사를 계속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태고종 선암사 관련 재판 승소

태고종이 선암사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조계종 세민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0 민사부는 2월20일 판결문에서 "신청인(세민스님)에게는 이 사건 사찰(선암사)의 경내에 진입하거나 건물에 출입 · 지주(地主)할 법률상의 권리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명시했다.

이와관련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지성스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 종단이 승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종단간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양 종단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사회정화와 대중교화에 함께 매진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세민스님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뉴스 & 뉴스

불교TV 살리기 범불교토론회

불교TV노동조합(위원장 신동우PD)은 3일 오후2시 동국대 학술문화회관에서 '불교TV살리기 범불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채 해결 방안 모색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대안 마련 △범종단적 후원 유도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교TV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복원중 홍련암 출입통제

붕괴위기에 놓인 양양 낙산사 홍련암의 해체 · 복원〈본지 제210호〉을 위해 2월22일부터 암자를 찾는 관광객과 신도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양양군은 홍련암 안전에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신도와 관광객들의 법당 출입을 제한하고 이번 달부터 해체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결과 바다방향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내력을 완전히 손실, 안전성 최하급인 'E급'판정을 받았다. 강지연 기자

밀각심인당 노인 무료세탁

진각복지회 지부 밀각심인당은 2월22일 서울 성동구로부터 위탁받은 무료깔끔세탁 · 배달사업장을 개장했다. 15평의 공간에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 등을 갖추고 문을 연 이 세탁방은 성동구 10개동 독거노인과 저소득 세대 노인 6백여명을 대상으로 의류 등을 정기적으로 무료 세탁 · 배달한다. (02)292-3252 김재경 기자

나눔의집, 3 · 1절 특별공연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은 2월 27일 나눔의집 야외무대에서 3 · 1절 80주년기념 특별공연 '역사의 아픔 어머니의 눈물'을 거행했다.

이날 공연은 1부 노래공연(이지상씨 등 3인), 2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추모 퍼포먼스(박찬수 목아불교박물관장의 목각 퍼포먼스와 임이조씨의 살풀이춤 등), 3부 진혼굿(주요무형문화재82호 김금화씨)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제주 수정사지 확장발굴

최근 제주시는 도로법에 위반되는 건물이 밀집해 있는 구획정리 의부지역의 4백여㎡에 관해 6월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수정사지 확장발굴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대박물관은 지난해 제주시의 의뢰로 수정사지 발굴 작업을 해 고려시대 인왕상, 고려말 기와, 화폐인 원풍통보, 석함 등 유물을 발굴했다.

제주시는 확장발굴 대상지에 이미 주택이 대거 들어서 있는 등 철거가 어려워 건물철거가 가능한 도로법 위반 지역에 대해 철거처리 후 그 지역에 대한 발굴만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강지연 기자

사후장기기증 25명 서명
'생명나눔' 학성선원법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현대불교신문은 2월22일 울산 학성선원(조실 우룡)에서 제 2차 화장유언 및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5명이 사후 장기기증을.. 67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했다.〈명단 차주 보도〉

정초 참회기도법회 기간에 동참한 5백여명의 불자들에게 우룡스님은 전날 법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생명의 기회를 주는 생명보시"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후시신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등을 서약한 인철스님은 "죽으면 소용없는 내 몸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귀중한 보시가 되겠느냐"며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불제자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을 한 이명희보살(36세, 남구 신정동)은 "집안에 뇌사자가 생겨 장기기증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본인의 분명한 뜻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신문사는 오는 3월 28일 철원 심원사에서 제3차 캠페인을 연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香妃)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 )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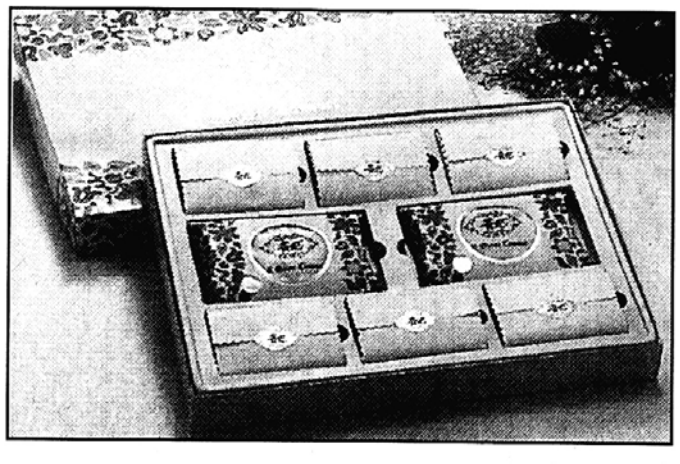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몸이 빠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쳐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 미선)

신행수기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작은 실천 큰 기쁨 ② · 〈끝〉

김민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빈병 모아 소쩍새마을에 휠체어 전하니 수천겁 업식이 녹는듯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처음 봉사차량에 발을 올리던 3월에는 마을 입구 치악산에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이른 시간부터 바삐 점심공양을 준비하여 공양을 끝내고, 날이 좋아 마을 사람들과 산 입구까지 산보를 나갔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동차를 사오라는 커다란 아이, 내 몸도 가누기 힘들면서 더 힘든 아이를 도와주는 아이. 많은 사람들이 긴 행렬로 늘어선 산보였다.

나 또한 낡아서 비틀거리는 휠체어에 불편한 몸을 지탱하여 누운 아이를 밀어주며 마을로 돌아왔다. 낡아서 잘 굴러가지도 않는 휠체어를 밀며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끝에 휠체어 보시를 해야겠다는 다짐이 마음 속에 점점 확고해진 것이다.

불법의 실천은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하라', '조그마한 선행부터 시작해라', '조그마한 선행이나 큰 선행이나 둘이 아니다' 하는 행동지침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 미세한 것에서부터 탐심·진심을 닦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이같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가.

그후 나는 매일매일 부지런히 캔 뚜껑을 모으러 다녔다. 처음에는 학교 일을 끝내고 밤이 늦도록 우리동네 쓰레기 분리수거더미 속에서 음식 상한 냄새·더러움도 잊고 오직 환희심으로 캔 뚜껑 하나하나에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의 염(念) 아래 5백~1천개까지도 모아서 돌아오곤 했다. 캔 뚜껑이 제법 모이기 시작할 무렵 '캔 뚜껑 1만개에 휠체어 1대는 95년도 사업'으로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애써 모은 캔 뚜껑은 고작 4kg으로 2백92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견주어 본다면 너무나 황당한 금액이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한숨을 쉬며 어두워져 가는 거리를 망연히 바라보아야만 했다.

뱃속까지 투명해지는 듯한 허망함이 맘 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 왔다. 하지만 캔 뚜껑을 주으며 청소미화원의 고마움도 알게 되었고, 상한 냄새와 오물이 더러운 것도 모르고 환희심으로 일해보기도 하였으니 부처님이 나의 근기에 맞는 일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하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깊이 새겨보며 캔 뚜껑 모으기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하여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까?' 며칠의 고심 끝에 빈 병을 모으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붉게 물집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동네 아파트 20여 동을 하루에 한바퀴씩 돌면서 빈 병을 모았다.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만나면 힘든 생활을 배우고, 귀부인을 만나면 '저 부인은 전생에 어떤 복덕을 지었을까?' 생각한다. 이런 공부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해 가는 과정이며 참된 재가신도로서 변화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 요즘같은 IMF시대엔 하루에 30개의 병을 줍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고, 어떤 날은 5병, 어떤 날은 공치는 날도 있었다.

병 하나하나 버린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마음 속으로 외쳤다. 공병의 고마움, 돈의 고마움, 내 생애에서 돈의 소중함, 돈의 귀중함을 새삼 뼈저리게 느꼈던 때였다. 잡시니마이 세상의 또다른 면을 엿보면서 나는 지금의 내 자신에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늦게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현재의 나에게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한다.

이 몸을 움직여 배우고 나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는 말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알고 느끼고 행하기란 더 어려운 것이 부처님 닮아가는 길인 듯하다. 지혜는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것이지 머리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지혜란 어리석음·선악·귀천·상하·공포·소망·일체를 버렸을 때 그 빛을 발한다"는 원공스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 안에서 자리하고 있다. '나는 어느 경지에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까?'라는 과제를 안고.

휠체어 보시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사무실 책상 위에 '소쩍새마을에 휠체어를 보냅시다' 동전 모금함을 만들었다. 그래도 무언가 '있다' 하는, '배웠다' 하는 교직원들이라 내 기대가 지나친 탓인지 겨우 2만원이라는 금액이 모금됐다는 것에 실망하기도 하였다. 조그마한 선행에도 계산이 붙기가 쉽고, '일전이라도 내가 왜 주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다. 나부터도 남에게 무엇을 준다고 할 때는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계산이 붙기 때문이다. 지식인일수록 알음알이가 많고, 주기보다는 받는 쪽에 익숙해져 있음을 새삼 느끼고 아쉬울 따름이었다. 남을 돕는 이들은 결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며 어려운 사람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남을 도울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 할까?



그림 · 문병성

검은 콩(1kg)팔기, 담배팔기, 일주일에 2일 금식으로 1만원 모으기, 이웃·친구에게 동전모으기 등으로 7월말이 되어서야 소쩍새마을에 휠체어 2대(1대 33만원)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새 휠체어를 보며 좋아하는 소쩍새 아이들을 보니 '작은 실천 큰 기쁨'이라는 현대불교신문지상의 한 제목처럼 기쁨으로 내 안 수천 겁의 업들이 녹아 내리듯 뿌듯해져 옴을 느꼈다. 이후에도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마을을 찾아가 마을 사람들의 작은 손, 발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한 마음을 내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보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루하루 부처님 시봉(侍奉) 잘 하고 부처님 즐겁게 해드리러 가는 날이 되면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하게 승가원 자원봉사 차량에 올라앉는다.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의 "인간은 남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다.

오늘 하루 선행에 그치지 말고 내 가족과 내 이웃, 또 남을 위해 일생동안 봉사하는 생활로 이어지는 자비행을 이루고자 정진하고, 서원(誓願)하고, 기도하고, 행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부처님을 닮아 보려하는 동안 충성했던 녹음도 자취져 마른 가지만 남은 겨울,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지금의 자리로 돌아와 있다.

37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혀전하고 초라할 것 같던 나의 자리를 새로운 수행으로 이끌어준 작은 서원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를 언제나 외친다. 커다랗게 느껴지는 새하얀 종이에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며 부끄러우면서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도 했지만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려 하니 긴 여행을 끝내고 종착역에 도착한 것처럼 마음 한 켠에 아쉬움도 든다.

이제 아침잠을 깨고 보글보글 끓어대는 따뜻한 찌개를 함께 먹을 우리 식구들과 올 한해에도 큰 고난과 역경없이 봉사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새로운 각오로 동안거 감사기도를 올리기 위해 나의 방탕벽을 깨워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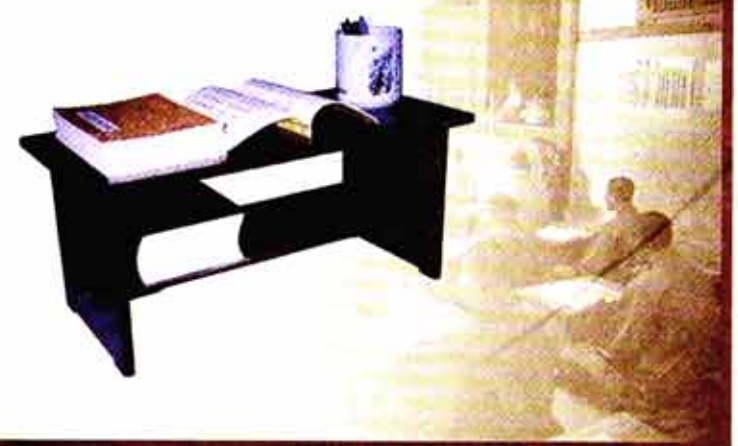
경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재질 : ASH(느릅)완전원목
규격 : 가로 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가격 : 8만5천원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부디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보관, 환경을 생각하는 연등
- 정성을 다해 제작한 이 연등을 삼보전에 올립니다 -

봉축 장엄 팔각등



만다라 장엄 팔각등



주문 전화 : 02-732-1522 / 737- 8881(대표)
주문 팩스 : 02-737-0697
인터넷 주문 : (http://mall.buddhapia.co.kr)
의 장 등 록 : 98-27738
실용신안등록 : 98-23124
납품방법 : 신청장소로 직배, 택배 발송

연등 납품 및 보관시



연등 조립방법



함석판으로 제작된 촛대,등걸이 드립니다.

장엄팔각등이 좋은 이유 10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1. 운반, 사용, 보관이 간편합니다.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한 번의 공정으로 사용이 가능하며(조립30초) 필요하신 모든 곳에 바로 설치할 수 있게 제작 되었습니다.사용후 연등을 분해(분해시간10초) 하시면 펼친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됩니다
2. 색상이 선명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고전적 단청 문양을 참가한 장엄 팔각등은 완벽한 인쇄 처리를 통하여 기존등과는 차별되는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색이 없어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세척하면 새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사용이 오래 된 경우 분해하여 세척한 후 조립하면 새 것처럼 깨끗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기간이 깁니다.
분해 조립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장소 기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어 사용기간이 길어집니다. (4-5년)
5. 환경을 고려한 재생용 등입니다.
PP로 제작하여 재활용이 되므로 환경 침해가 없습니다. 오랜 사용으로 파손된 경우 분해하여 모아두면 용해후 재활용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변환경에 전혀 부담을 주지않습니다.
6. 눈, 비, 거센 바람에도 파손 변형되지 않습니다.
7. 야간 점등후의 모습은 더욱 화려합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8. 광상시 사찰 장엄용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9. 별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500등 이상 주문 시 사찰명을 인쇄해 드립니다.
10 디자인 변경이 용이합니다.
3천등 이상 주문 시 원하는 디자인을 제작해 드립니다.

부처님 오심을 깨끗한 환경으로 축복합시다! 집안과 내집 앞길을 깨끗이 하고 도로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치우며 밝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합시다.
만 중생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등부처님 재세시에 흙탕길을 긴 머리카락으로 깔아 연등부처님께 공경을 표했습니다. 우리모두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디피아 (http://mall.buddhapia.co.kr)